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 인도돕기)

www.buddhanews.com | THE HYUNDAE BULKYO |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9월 24일 수요일 (주간) | 제 440 호



◇북한산 국립공원 · 수락산 · 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관계자 20여명이 9월 1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관통노선 백지화'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박재완 기자

정부 '뚫겠다' 교계 '분노'

19일 국정현안회의 천성 · 금정산 기존노선대로 공사 북한산 관통도로 공론조사후 결정

정부가 경부고속철 천성산 · 금정산 고속철 공사를 당초 정부안대로 강행한다. 또 북한산 관통도로로 기존 노선 강행방침도 시사했다. 불교계 및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 · 14면

9월 1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최종찬 건교부장관과 최경수 국무총리실 사회수석조정관은 공식 브리핑에서 "불교계에 제의했던 공론조사를 통해 북한산 관통도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천성산 · 금정산 고속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노선이 최적의 노선임을 확인했으며, 공사 재개시 자연환경 및 사찰수행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존노선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산 문제와 관련 불교계는 지난 7월 공론조사를 통해 북한산 문제를 해결하려다 불교계 및 환경단체의 반발로 취소했던 정부가 다시 공론조사를 들고 나온 것은 결국 정부안대로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순밟기라는 점에서 사실상 기존 노선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현고 스님(기획실장)은 "종단의 공식입장은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나오게 될 것"이라면서도 "노선재검토위 합의내용에는 공론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며, 공론조사가 정부안대로 추진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상당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정부 발표 직후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불교환경연대 조직실장 법현 스님은 "공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기존노선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며 "불교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공동대책위는 "정부가 노선재검토위 보고서도 발간하지 않은 채 노선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불교계와의 합의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관련 단체와의 조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선원수좌회(회장 지환, 동화사 기초선원장)도 "공약대로 북한산 관통도로를 백지화하고 노선을 변경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봉영 · 남동우 기자

국립공원 입장료 · 문화재 관람료

당분간 인상하지 않기로

조계종 관람료위 결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진해 온 국립공원 입장료 인상이 무산됐다.

조계종 관람료위원회는 9월17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조계종에 요청했던 공원 입장료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했다. 또 사찰이 징수해오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도 당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관람료위원회 위원장 명섭스님(화엄사 주지)은 "돌다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태풍 피해로 국가적 재난을 당하고 있음을 감안해 인상안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인터뷰 3면

그러나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합동징수하고 있는 21개 국립공원 사찰과는 달리 단독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46개 사찰에 대해서는 사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람료 인상을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몇 년간 입장객 감소에 따라 입장료 수입이 줄면서 적자폭이 커지자 지난 8월 공원 입장료 인상 방침을 밝히고 조계종의 협조를 요청했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조계종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공원 입장료 인상시 조계종과 공단이 서로 협의토록 돼 있는 1997년 합의에 의한 것이다.

한편 관람료사찰 전체회의에서는 명섭스님이 관람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기가 만료된 13명의 관람료위원이 새로 선출됐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첫 영산재 재현 28일 조계사서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영산재를 재현한다. 조계종 문화부는 9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28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조계사에서 영산재 재현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영산재는 동주, 동희 스님을 어장(魚丈, 영산재를 시연하는 최고 스님)으로 40여 명의 조계종 스님만으로 재현된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수재민들 고통 덜어주세요

조계종 · 불교계 언론사들 모금운동

태풍 '매미'는 너무나도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수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자비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불교 조계종과 본지를 비롯한 불교계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수재민 돕기 성금모금 캠페인을 벌입니다.

수재민들이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불자와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대한불교신문사 · 법보신문사 · 불교신문사 · 주간불교신문사 · 현대불교신문사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11-991(재)불교중앙교육원, 농협 053-01-239894(재)불교중앙교육원

※성금 접수처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02-735-5864)

감동의 신행체험수기 공모

교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온 현대불교 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중한 체험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큰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부터는 신행수기 당선자들의 모임인 신수회 회장상이 신설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4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담당자 e-mail: thatiswhy@buddhapia.com
- 접수 마감: 12월 13일

200자 원고지 30매…12월 13일 마감

- 시상내역

▷대상(유마상)
▷우수상(본사 사장상)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 천태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상금, 부상을 각각 수여하며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요)

현대불교신문사

달라이 라마와 석학 26명의 '마음탐구' 8~9면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제천:(043)644-4366 경남 서부:(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불교 學術誌의 위상

<보조사상> <불교학연구> <가산학보> <한국불교학> 등 4개의 불교 관련 학술지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이하 학진)이 선정한 등재후보학술지에 올랐다.

이런 결과는 학진의 경제적 지원이란 물질적 성과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대외적 권위 상승으로까지 이어져 불교학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학진의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국내 저명 학술지로 인정돼, 교수 평가 시에 해당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높은 점수를 얻게 된다. 따라서 논문을 싣고자 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학문적 수준이 담보된 논문을 실을 기회가 더 커져, 등재학술지로 선정됐을 때의 이득은 크다.

지난 9일 학진이 발표한 '2003년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는 총 263개, 그 가운데 인문학 분야는 87개다. 인문학 전체에 비해 선정된 불교학 학술지의 수는 적지만, 98년 학진의 학술지 평가 이후 불교학 학술지가 단 한 건도 선정되지 않아 우려와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높았던 불교학계는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봤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가득하다. 또 4개의 학회 외에 나머지 20여개의 불교계 학회는 학회만의 정체성과 학술적 수준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이제는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이상, 등재학술지로 확정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미 <불교학연구>와 <보조사상>은 향후 2년간 학술지를 1년에 4번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을 시작으로 불교학 연구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오유진(취재1부 기자)

scom

에스콤을 만나는 순간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에스콤은 무인경비 시스템을 통해 가정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또한 평안한 삶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풍요와 희망이 가득한 세상! 지금 에스콤으로 오십시오!

에스콤과 함께할 불자가족(총판 및 대리점)을 찾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일정한 경비구역의 경비업무를 경비원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장치를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러한 무인 경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지속적으로 그 기능이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CCTV카메라를 이용한 경비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은 녹화 감시 기능만을 수행할 뿐이며 그 녹화도 아직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하고 있는 곳이 많고 디지털화 되어 있어도 대부분 건물 경비에 사용되며 일반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장치로는 거리가 있었다.
이 번 S-COM에서 개발한 제품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단히 설치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어디서나 설치된 장소를 본인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난 및 가스, 화재 방지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정 및 점포에서 든든한 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관리 지사 모집

▶ 모집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청주, 전주, 원주, 대전, 인천, 경기 외 지역
▶ 모집자격 : 금융거래 하자 없는 분으로 순 자기 자본 2천만 이상 가능자

가정용 CC카메라 도난 경보기 S-COM (에스콤)

S-COM을 설치하시면, 밖에서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제든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

"에스콤이란?"

보안 및 경비를 필요로 하는 사찰, 사무실, 고급주택, 상점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침입자의 영상을 잡아내어 사용자의 PC 또는 PDA 등으로 실시간 동영상을 보내주는 컴퓨터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언제어디서나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내주기도 하며 사용자가 지정하는 8곳에 침입사실을 전화 또는 메세지로 통보하여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가스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비실과 관리실, 사용자 휴대폰 등 사용자가 지정하는 8곳으로 자동 연락해드립니다.
둘. 도둑이 들어오면 사용자가 지정한 8곳으로 통보할 뿐만 아니라 본사 상황실에서 판별하여 인근 파출소나 112에 출동을 신고합니다.
셋. 아이들이 집에서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외부에서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 지체 부자유자나 노부모님들에게는 비상 목걸이를 드려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로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사 상황실에서 판별하여 119에 출동 신고합니다.

"제품의 구성"



● 주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8-5호 진성프라자 404호 ● 문의전화 : 1544-1088 (전국)

사 설

수재민과 아픔을 함께

망연자실. 태풍 '매미'로 인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심경이 바로 이럴 것이다. 위로의 말을 고르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달 말까지 호우가 계속된다고 하니 상처를 돌보는 일조차 쉽지 않다.

그런데 만신창이가 된 남해안 양식장에서는 낚시꾼들이 떼로 몰려 양식 물고기를 낚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과연 저 사람들이 우리와 한 하늘에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저 모습 또한 타인의 아픔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라는 생각에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경기 침체와 실업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를 버려도 좋을 변명거리일 수는 없다.

베풀 것이 없다면 측은지심이라도 가져야 한다. '소외와 절망'이라는 제2의 태풍을 안겨 줘서는 안 된다. 그것에 의한 상처는 영원히 치유불능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최고 실천 덕목은 육바라밀이다. 그중 '보시'는 으뜸이다. 하지만 자비행이 그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보시와 지계, 인욕과 정진은 자비행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지혜와 계합할 때 깨달음의 꽃이 피는 것이다. 불자라면 마땅히 일거수일투족이 자비와 지혜에 놓여야 한다.

거듭되는 재난에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수재민들에게 '소외와 절망'이라는 제2의 태풍을 맞게 해서는 안 된다. 따뜻한 마음을 모으는 것, 연대의 방파제를 세우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다.

여성전문인력 네트워크형성 환영

불교여성개발원이 17일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위한 여성 불자 108인'을 선정, 그 명단을 발표했다. 앞으로 여성복지와 교육 등 다양한 불자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이끌 교계 리더 그룹의 탄탄한 조직망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우선 반가움을 표하고 싶다.

근현대 한국불교의 버팀목으로 여성 불자들의 신심이 큰 역할을 했음에도 그동안 전통과 관습으로 인해 교계 안에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자칫 기복위주의 신앙으로 흐른다는 비판 또한 없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108인 전문인력 그룹'이 앞으로 교계 안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신해행증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리라 기대하고 싶다.

이번에 조직된 네트워크를 보면 그동안 여성의 꾸준한 사회진출로 전문분야의 다양성이 돋보일 뿐더러 이들을 묶는 네트워크가 잘 작동만 하면 기대이상의 역할을 해 낼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네트워크'란 '홀로 존재하는 나라는 것은 없다', 즉 제법무아를 근거로 세계를 하나의 큰 그물망으로 인식하는 부처님 가르침과 무관하지 않은 단어일 것이며 세계는 지금 그 '인드라의 그물망'에 대한 깨우침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그물망에 대한 깨우침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108인 네트워크' 역시 조직만으로는 교계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정체되는 조직이 아닌, 네트 안에 긍정적이며 올바른 흐름이 있게 하는 진정한 힘과 실행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청소년지도사 양성 '발등의 불'

'현대' 만평 심 민 섭



'청소년 법안' 통과 대비…포교대책 시급

교계단체, 종립대에 관련학과 증설 요청

불교계 청소년지도사 양성이 시급하다.

청소년 시설 · 단체 및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의무 채용과 정부 차원의 청소년지도사 활동 · 생활비 보장, 청소년활동인증제 시행을 골자로 한 청소년기본법개정 및 청소년관련법제정안이 8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소홀히 해온 교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각 단체와 학교 등에 청소년지도사가 의무적으로 채용되며, 단체 · 학교 단위의 포교활동이 청소년지도사의 지도하에서 가능해진다. 또한 대학입시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청소년활동인증제가 사찰수련회 및 각종 불교문화 · 체험행사에 적용됨으로써 종교 전반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청협) 소속 전국 청소년단체에서 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활동하는 8,573명의 청소년지도사 중 불교계 청소년지도사는 1.2%에 불과한 100여명이며, 이들 중 70여명만이 청소년단체와 종단, 사찰 등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1년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관련단체 및 행사주체들에게 청소년 수에 비례하는 전문 지도자를 배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불교계는 그동안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청소년지도사 양성은 물론, 행사배치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을 무시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와 조계종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옥), 태고종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가 9월 9일 동국대, 승가대, 위덕대에 청소년관련학과 증설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불교계 대학 내 청소년학과 신설에 발 벗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성 스님은 "불교계도 학과설치는 물론, 청소년 및 신도단체에 관련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동국학원 재가이사추천 논란

동국대 총동창회 "종관위가 정관위배"

11월 22일로 임기가 끝나는 동국학원 재가 이사 후보 추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날로 임기가 끝나는 이사는 법장 · 고산 · 성오 · 현성 · 녹원 스님 등 스님 이사 5명과 홍기삼 · 서돈각 · 류주형 등 재가 이사 3명이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택, 이하 종관위)는 9월 13일 제50차 전체회의를 열고 스님 10명과 재가자 6명을 학교법인 동국학원 신임 이사 후보로 복수 선출했다. 후보 한 명은 사망 사실이 확인돼 곧 명단에서 삭제됐다. 이들은 23일 개원하는 제160회 임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동국학원 이사회에 추천된다.

그러나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류주형)는 18일 기자 회견을 갖고 "동국학원 이사 정원 13명 중 9명의 스님 이사에 대한 추천권만 있는 종관위가 나머지 재가 이사까지 추천한 행위는 (이를 규정한) 동국학원 정관 제24조에 위배된 불법행위이며 1973년 이후 30년 동안 총동창회가 재가 이사 3인을 추천해 오던 관행을 깨고 동국학원 이사 전원을 장악하려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종회 사무처 측은 "동국학원 정관에도 재가 이사의 선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며 "종단에서 설립한 종립대학이고, 출 · 재가 구분 없이 중앙종회 동의를 얻어 이사 후보를 복수 추천하게 돼 있는 종법(종립학교관리법)에 따라 추천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권형진 기자

조계종·불교계 언론사 수해복구 캠페인

조계종 총무원과 본지를 비롯한 불교계 언론사들이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이달말까지 수해복구 캠페인을 벌인다. 현재까지 구룡사 주지 정우스님이 1억원, 각화사 1백만원, 조계종 수선회 1백만원, 중앙종무기관 직원들의 모임인 원우회 300만원, 총무원 호법부 덕환스님이 1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한명우 기자

교구본사 주지스님 11명 영부인초청 청와대오찬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의 초청으로 9월19일 청와대를 방문,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찬은 권 여사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자리에는 지성(동화사) · 법타(은해사) · 종상(불국사) · 세민(해인사) · 현문(통도사) 스님 등 11명의 교구본사 주지들과 총무원 총무부장 성관 스님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양숙 여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국민을 안정시키고 국운이 융성할 수 있도록 스님들께서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개혁은 지속적으로 하되, 개혁세력과 보수세력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 참석하지 않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24일 권 여사와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교구본사 · 스리랑카 사찰 민간 불교관광교류사업 추진

스리랑카가 한-스리랑카 불교교류 차원에서 조계종 24개 교구본사와 스리랑카 사찰들 간의 민간 관광교류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방한한 스리랑카 가마게(Lal D. Gamage) 외무부 부장관은 9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내 언론사 초청 오찬에서 이 같이 밝히고, 15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가마게 부장관은 "한국과 스리랑카는 1987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경제, 무역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양국이 불교 형제국가로서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관광산업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혁 기자

봉선사 19일 산중총회 새주지 철안스님 추대



조계종 제15교구본사 봉선사는 9월 19일 경내 청풍루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단독으로 출마한 철안스님(사진)을 만장일치로 새 주지에 추대했다.

철안스님은 월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6년 봉선사에서 운경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8년 범어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9년 망월사에서 수선안거한 이래 21하안거를 성만했으며, 1989년부터 남양주 봉영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는 조계종 법규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한명우 기자

고침 438호 6면 '각 사찰내 납골시설 건립…' 기사의 제목과 내용 중 '대승종'은 '조동종'이기에 바로잡습니다.

통도사 창건 제1358주년 개 산 대 재

646년 신라 대국통이자 겨레의 정신적 지주이셨던 자장율사에 의하여 창간된 통도사는 천년의 佛香을 머금을 삼보종찰로서 면면히 불지종가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여 오늘에 이르기 까지는 수 많은 역대조사의 외호와 가르침이 있었기에 오늘의 통도사는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음력 9월 9일 중양지절을 맞이하여 자장스님의 연고재를 봉행함으로써 그 높은 덕화를 기리고자 합니다.
이로써 창사정신을 길이 전승하고 역대 큰스님들의 고매한 뜻을 잇고자 하는 공양의식과 다채로운 법회로 짜여진 개산대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저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입재식** : 2003년 10월 3일(금) 10:00(음 9. 8)
● **법요식** : 2003년 10월 4일(토) 10:30(음 9. 9)
● **장 소** : **설 법 전**
● **문의처** : **종무소** 전화 **(055)382-7182~7**
전송 **(055)382-7196**
www.tongdosa.or.kr

개산 1358주년 기념 행사 일정표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주 부 서
2003년 10월 3일 (음 9. 8) 금요일	09:00	도예전시, 서예전시, 꽃꽂이, 사진전 (10. 3 - 10. 4까지)	하노전 중노전	포교국
	10:00	개산대재 및 영축사생대회 입재식	설법전	교무국
	13:00	개산 1358주년 기념 제5회 부도헌다제	부도전	포교국
	14:00	부처님 가사, 자장율사 가사 친견	대웅전	호법국 박물관
	19:00	점등식	대웅전 앞	교무국 재무국
2003년 10월 4일 (음 9. 9) 토요일	08:00	괘불헌괘	대웅전→괘불대	박물관
	09:00	불공의식	설법전	교무국
	10:30	개산대재 법요식	설법전	교무국
	11:00	부처님가사, 자장율사 가사 친견	대웅전	호법국 박물관
	11:30	재룡잔치	설법전	사회국
	11:40	괘불 헌공	상노전 괘불대앞	박물관
	01:30	개산대재 기념 합창제	설법전	포교국
	13:00	1358주년 개산대재 제 10회 진주 청곡사 괘불탱 특별전	중앙괘불전	박물관
		지역노인 경로당 위문		총무국 사회국

영축총림 **통 도 사** 주지 **이산 현문** 합장

‘여성불자 108인’ 최종 확정

불교여성개발원 전문성·사회활동 경력 등 기준 선정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이 지난 1월부터 추진해 온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위한 여성불자 108인’의 명단을 9월 17일 공개했다.

이번 선정작업으로 여성불자들 간의 정보교류와 인력활용이 용이해지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불자들의 위상이 부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개발원은 앞으로 매년 108인을 선정해 이들에 대한 총체적인 인재풀(Pool)을 형성할 계획이다.

전문 인력 발굴·네트워크 구축 기여

11월 27일 첫 만남…인증서 전달

여성불자 108인 선정은 불교계 안팎에서 많은 여성불자들이 전문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구제적인 정보와 체계적인 자료정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발원은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여성불자들을 발굴해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선정작업을 실시했다. 개발원은 교계 신문, 잡지 등 언론자료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사된 1200명을 종단, 신행단체 등의 추천과정을 거쳐 분야별로 구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계종 총무원 부장급 스님들과 임완숙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공종원 한국불교언론인회장,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장을 비롯한 12명의 선정위원들이 세 차례에 걸친 선정위원회를 갖고 108명을 선정, 9월 3일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은 △교단 및 사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직 여성불자 △포교, 사회봉사,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경력을 인정받은 여성불자 △신심이 깊고 수행력이 높아 널리 귀감이 되는 여성불자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108인은 오는 11월 27일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3주년 기념법회 때 첫 만남의 자리를 갖고 인증서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여성불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여성복지와 교육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또 ‘불교와 나의 삶’을 주제로 한 이들의 신행수기와 경력사항을 모은 자료집도 발간될 예정이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분야	이 름
경제	유옥현(금토상사 대표이사) 이영숙(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정금자((주)쌈지 감사)
교육	박명순(명성여중교장, 한국미술협회 이사) 박현희(부산교사불자회 회장) 성귀자(전국교사불자연합회 군산지회 회장) 구본일(한국태교연구소 소장, 불교TV문화원장) 김향란(대구과학대 학장) 안은자(전 명성여중 교장) 김리나(한국미술사학회장) 김인숙(국민대 사회학 교수) 박선자(경상대학교 교수) 배경숙(인하대 명예교수) 백경남(동국대 교수) 백경임(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불자회 회장) 서혜경(전주대 가정교육과 교수) 윤영자(방통대 경제학과 교수) 은정희(서울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 이기향(한성대 의류직물학 교수) 이동화(순천향의대 교수) 이애주(서울대 부교수, 승무 기능보유자 후보) 이은영(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경연(홍익대 섬유미술학과 교수) 하수경(전주대 미술학과 교수) 박상희(조계종 봉축위원회 간사)
단체	고경순(대구 자비의전화 회장) 김경희(포항시불교여성회장) 김의정(명원문화재단 이사장) 배득연(무루회 회장) 변광순(여성불교회 회장) 윤용숙(재단법인 보덕학회 감사, 향산학술장학회 회장) 이수복(우리는 선우 상임이사) 이연숙(태연초.중.고 및 재활원 이사장) 이위순(제천불교어머니회 창립) 정해숙(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 하도명화(재단법인 불심홍법원 이사장)
문화예술	강선영(무용가, 14대 국회의원) 고영을(탱화작가) 김성녀(연극인, 중앙대 겸임교수) 김양식(한인문화연구원 원장) 김해자(중요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남상민(서울 한국예절문화원 원장, 본원 이사) 남지심(서울 소설가, 조계종포교대상) 박정자(단청장 후보) 방귀희(한국장애인문인협회장) 신영자(백제불교문화대학 부회장) 안숙선(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이귀례(가천박물관 관장) 황혜성(궁중음식연구원 이사장)
방송연예	강부자(탤런트, 14대 국회의원) 김용림(탤런트, 신행365일 진행) 이선미(전 불교방송제작편집국장) 장미화(가수)
법률	배금자(해인법률사무소 대표)
보건의료	나청자(불자약사보리회 명예회장) 도분순(소아과 의사, 포교사) 주양자(전 한국여의사회장)
복지	김정자(자광원 원장) 박건련(천마재활원장) 손경숙(사회복지법인 붙이원 이사장) 우용호(서원노인복지회관 광장 취임) 이성희(대구사회복지개발연구원 상담부장) 이인숙(여성 노숙자 쉼터 화엄동산 신임소장) 장선옥(주몽재활원 이사장) 장영심(자양사회복지관 관장) 정민숙(광주광산구장애인복지관장) 홍영선(제주불교사회봉사회 회장)
사회운동	김상희(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노귀남(불교포럼 운영위원장) 미영순(전국저시력인연합회장) 신혜숙(여성문화인권센터대표) 이춘호(한국정치연맹 회장) 임효정(지리산생명연대 사무처장) 진민자(한국청년여성문화원 원장)
언론·출판	김정자(언론인) 맹난자(수필가) 박은주(김영사 사장)
자원봉사	김순숙(자원봉사자, 대통령 표창) 김옥자(자원봉사자, 국무총리상) 장석희(서울 길상사) 정옥진(봉화회 회장) 정형자(조계종 자원봉사단, 자원봉사자의 날 장관상)
정치·정부	강금실(법무부장관) 추미애(국회의원)
포교·신행	강근자(군산 성흥사 신도회장) 경봉수(20년간 재소자 후원) 고하영(불교상담개발원 이사) 김명순(청계사 총신도회장) 김현숙(김현숙우리옷문화연구원장) 박동원(찬불동요작곡) 박수자(동다송문화회 회장) 박정자(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 고문) 배선혜(영남불교대학 동문회 회장) 송춘희(가수, 백련장학회 회장) 안명희(조계사신도회 자문위원) 안성이(부산불교보현회장) 이남덕(전 이화여대 교수) 이숙희(이숙희콜렉션대표) 이윤목(부산여성불자회 수석부회장) 임수영(부산경남포교사단 청소년포교 선재팀) 전청금(대구 불광사 자비회 회장) 정기자(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 부회장) 정운자(전 경상대 의류학과 교수) 최희자(여여선원 합창단 단장) 황명숙(전 한양대 교수, 교도소 교화활동) 황남채(불교TV문화원 이사)
불교학자	리영자(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이창숙(불교여성개발원 창립 준비, 불교여성학전공)

북한산·천성산 관련 일지

북한산

△1998. 10. 8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시민연대’ 결성 △2001. 10. 24 관통도로 건설 저지를 위한 불교 대책위 출범식 및 제1차 결의대회 △2002. 2. 18 LG건설 회룡사 비구니 스님 폭행 △2002. 3. 5 조계종, ‘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결의대회’ 개최 △2002. 7. 18 북한산국립공원 살리기 3보 1배 △2002. 8. 14 조계종 공대위·시공사 북한산 터널 노선 재검토 합의 △2002. 12. 4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북한산 관통도로 전면 백지화 공약 발표 △2003. 6. 5 노선재검토위 활동 종료, 의정부 우회노선 4명, 북한산국립공원 외곽우회노선 2명, 북한산 관통노선 5명.

천성·금정산

△2002. 1. 21 금정산 범어사 경내계곡 고속철도 통과저지 대책위원회 출범식 △2002 4. 12 금정산 고속철도 통과반대 시민·종교대책위원회 출범 △2002 7. 24 내원사 선방 및 사부대중 삼보일배 △2002. 10. 14 지율스님과 내원사 스님, 분도수녀회 수녀 8명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 구간 도보순례(18일 회향) △2002. 12. 1 제8차 람사회의 참가 삼보일배 △2002. 12. 4 민주당 노무현 후보 관통반대 백지화 및 전면 재검토 백지화 공약 △2003 2. 5 지율스님 부산시청 앞 단식정진 시작, 3월 14일 회향 △2003. 5. 12 시민종교대책위 ‘대안노선 및 기존노선 재검토위원회’ 구성 합의 △2003. 8. 13 지율스님 부산시청 앞 3000배 정진 시작

“참여정부, 反불교·환경 포기”

불교계, 천성·금정산 기존노선 강행 ‘폭거’ 규정

정부의 북한산 관통도로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구간 기존 노선 강행 발언에 대해 불교계는 ‘노무현 정부의 환경 포기 선언이자 반불교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당선 후 1400여 중진 스님들 앞에서 재차 약속했던 부분인 만큼 불교계의 자존심을 무참히 꺾어버린 폭거라고 지적한다.

단식·철마선원 재진입… 공사 저지

전통사찰 보존법 위반 등 소송도 준비

불교환경연대는 9월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수행환경을 지키는 호법신장이 되라’는 원로회의 유시와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 일신의 안위를 버렸던 역대 조사들의 위법망구 정신을 받들어 불교계의 모든 역량을 모아 노무현 정부에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불교환경연대 조직실장 법현 스님은 “정부가 불교계에 공론조사를 다시 제안하겠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는 불교계 거부 의사를 무시한 것 뿐만 아니라 공사 강행을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또 “우리는 관통저지를 위해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며 “단식 정진과 철마선원 재진입 등 모든 방법과 역량을 동원해 관통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사찰인 의정부 회룡사 부지가 공사 구간에 들어간 부분과 관련해서도 “총무원 차원에서 전통사찰 보존법 위반 등으로 법적인 소송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청 앞에서 매일 3000배를 진행하는 지율 스님도 “정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3000배를 지속할 뿐 아니라 환경부·문화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남동우·김철우 기자

문화재에 대한 국민인식 달라져야

관람료 인상요인… 적절한 때 검토

조계종 관람료 위원장 명섭 스님



9월 17일 관람료사찰 전체회의에서 관람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명섭스님(화엄사 주지·사진)에게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한 현안 및 관람료위원회의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들었다.

— 문화재 관람료를 인상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가?

“물가인상분이나 문화재보호 측면에서 보면 현재로서도 인상요인은 충분하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적절한 시기를 택해 인상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 지난 2000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문화재관람료 반환소송을 내는 등 문화재관람료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문화재관람료가 싼 곳도 없다.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가꾸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도리며, 문화재관람료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

— 공원 입장료 수입을 공원 내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국립공원 내 21개 사찰, 2억여 평의 토지를 국가가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 보수비 명목으로 입장료 수입의 10~30%를 불교계가 받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장기적으로는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불교계의 권익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 관람료위원회의 활동계획을 밝혀 달라.

“입장객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람료 사찰마다 안내책자를 비치하는 등의 소장 문화재 안내의 질적 향상과 포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한명우 기자

‘멸빈자 사면’ 논란 재연

월서 스님 “법규위 법리오인 잘못 결정”

법규위 “특별법에 따른 심사개시 적법”

조계종 호계원장 월서스님이 멸빈자 사면과 관련한 법규위원회의 심판결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멸빈자 사면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월서스님은 9월17일 “정우스님으 멸빈자이므로 심판청구 자격이 없으며 법규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한 ‘행위’를 심판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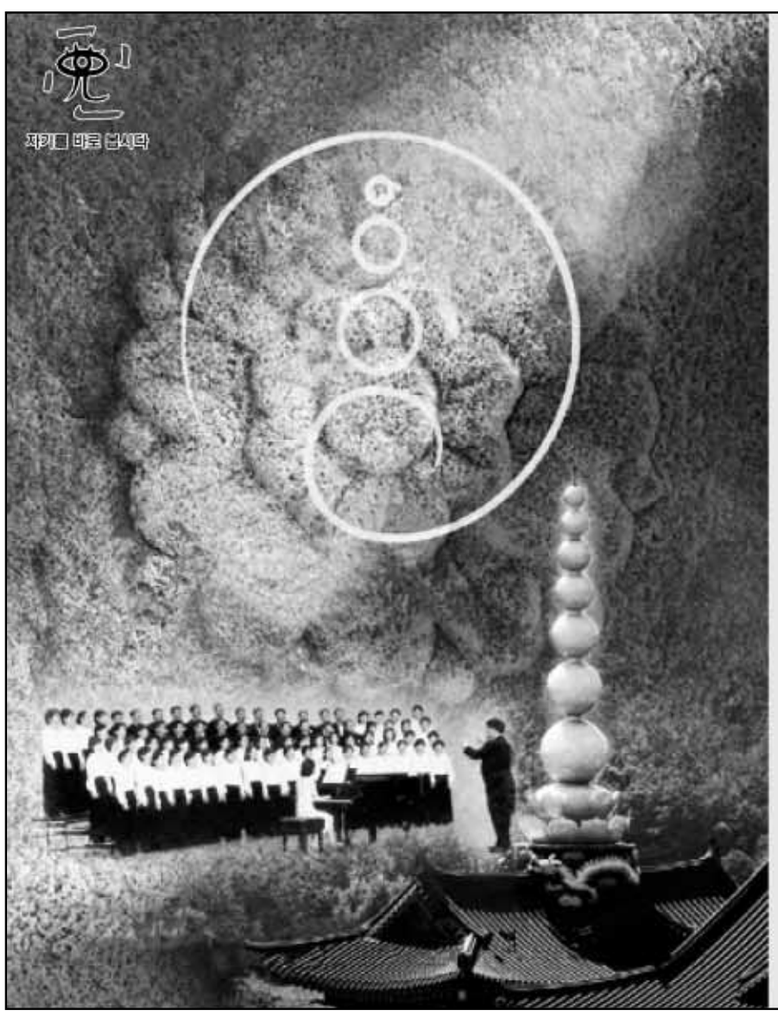
법규위원회는 98년 멸빈 징계를 받았던 정우스님이 청구한 ‘특별법이 종헌 제12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과 ‘특별법에 계류 중이므로 징계효력이 유예상태 확인 청구’ 건에 대해 지난 7월 “특별법에 의해 심사개시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규위원장 천제스님은 “특별법에 계류 중인 이상 멸빈 징계는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권자 자격이 있다”며 월서스님의 주장을 일축했다.

천제스님은 또 “정우스님의 청구건은 종헌소원으로 봐야한다”고 말하고 “종헌 소원에 대한 심판은 법규위원회의 고유권한 중 하나”라며 “당시 심판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전통한정식 복 현
정갈하고 담백한 전통한식으로
스님과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예약전화 : 02)2269-7155(주차장완비)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6번출구 (인쇄정보센터빌딩 지하) 금강심 합장 배례


무의탁 독거노인 돕기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 일시 : 불기2547(2003) 10 3(금) 오후 7시 ● 장소 :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초/대/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화사하게 피었던 온갖 꽃들이 열매로 화하여 윤회의 도리를 전해주고 있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저희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에서는 합창단 창단 10주년을 맞이하여 무의탁 독거 노인들에게 보시행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율에 실어 전하고자 음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지원장 혜묘 단장 부정숙 합장
■ 주 최 :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 후 원 : 제주도불교총연합회, 제주도, 제주시, KBS, MBC, JIBS, KCTV, 현대불교신문, 정토신문



중국 백림선사서 법어

부산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은 9월 6일 중국 하북성 조주원 백림선사 만불전 낙성 및 불상점안 법회에 증명법사로 초청돼 법문했다.

일주문



제10회 장애우 나들이

사단법인 우리는선우 박광서 이사장은 21일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 대공원으로 '2003 제10회 장애우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사형제도 폐지문제 논의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19일 청와대 초청 종교계 원로 오찬에 참석, 사형제도 폐지문제를 논의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객원교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 교수 도업 스님은 1년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불교와 타종교 수행법 연구를 위해 22일 출국했다.



종교왜곡 실태 주제 세미나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설 청소년문화연구소 김형중 소장은 22일 종단협 사무실에서 '교과서 내 종교왜곡 기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동아 청년국제회의 참석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현성 스님은 17~20일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청년국제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 차 16일 출국했다.



성삼재 도로 걷기 행사

지리산생명연대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28일 지리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성삼재 도로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063)636-1945



충북예비역불자련, 10돌

충북예비역불자연합회 이만호 회장은 23일 청주 충북불교문화회관 4층 광명아트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창립 10돌 기념 전국 강연회

서울 길상사 회주 법정 스님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창원, 부산, 대구 등에서 맑기향기롭게 창립 10주년 기념 전국 강연회를 갖는다.



삼사 정기성지순례 떠나

양주 장흥 대원정사 주지 해련 스님은 28일 경북 문경 봉암사, 윤필암, 김룡사 등으로 정기 성지순례를 떠난다. (031)855-5501



한 · 케냐 수교 40주년 사진전

불교사진연합회 이병윤 자문위원은 10월 1~5일 케냐의 사립센터에서 한국 · 케냐 수교 40주년 기념 사진전을 연다. (02)2611-8262



성타 스님 초청 법회 열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법혜 스님은 17일 정각원에서 '종교와 신앙'이란 주제로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초청 법회를 열었다.



윤이상음악연 초청 방북

진각복지재단 지현 사무처장은 15일부터 23일까지 북한 윤이상음악연구소 초청으로 평양을 공식 방문했다.



'…CEO 리더십' 주제로 세미나

21세기 비즈니스 포럼 노부호(서강대 교수) 회장은 2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불황을 이겨낸 CEO 리더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병들 마음에 法香 채울것"

이라크파병 서희부대 군종장교 강창모 법사



"낯선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불자 군장병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법회, 법문 등을 활발히 진행할 생각입니다."

9월 17일 제2차 이라크 파병 군종장교로 결정된 육군 보병 제1사단 군법사 강창모 대위(법명 묘인 · 사진)는 "이라크 파병 장병들이 종교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강 법사의 소감은 남다르다. "월남전 이후 최근까지 군법사의 해외파병이 없었는데 이번 제2차 파병에 군법사가 군종장교를 맡게 돼 기쁩니다. 어디를 가든지 포교활동 등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것이 군법사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법사는 "이라크에서 전후복구 사업을 맡고 있는 군 장병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고향에 대한 향수 아니겠냐"며 "군 장병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종교를 통해 위로해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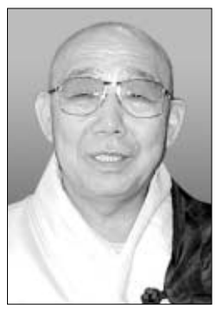
강 법사는 또 "서희부대와 같은 지역에 있는 의료지원단 '제마부대'에 대한 포교활동도 활발히 할 것"이라며 "기회가 되면 이라크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과 구호활동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1999년 명지대 화공과를 졸업하고 군종장교 57기로 임관한 강 법사는 첫 부임지 국군 덕정병원에서 군포교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제7공수 여단을 거쳐 현재 육군 보병 제1사단 군법사를 맡고 있다.

강 법사는 19일 파병교육을 시작으로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뒤 이라크 현지로 떠날 예정이다. 이동혁 기자

"대전에 포교거점 · 통일기원 사찰"

용수사 성역화 10년불사 나선 만다 스님



"제 2의 행정도시인 대전지역 포교 거점과 남북통일 기원 사찰이 되도록 불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불사입재식을 갖고 10년 성역화 불사를 시작하는 통도사 대전포교당 용수사 주지 만다 스님(사진). 스님은 최근 불사원만성취와 민족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며 <약사유리광여래 칠불본원공덕경>과 <생전예수재 참회의 공덕>을 발간(본지 22면 참조)하고, 9월 24일 오후 6시 대전 스파피아호텔 크로바홀에서 출간법회를 개최한다.

대전시 중구 목달동 보문산 자락 3만4천평의 부지를 확보한 스님은 "내년 2월부터 생전예수재 1천일 기도 입재를 시작으로 19m 높이의 백옥 약사여래대불 조성을 비롯 마야황후전, 적멸보궁, 10대 제자전 등 전각 12동과 노인요양소, 청소년 수련문화원, 대안학교 등을 2014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불사가 노인과 청소년포교, 마야황후 선양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멸보궁 · 수련원 등 2014년까지 건립

세계 최초로 건립되는 마야황후전과 관련 스님은 "마야황후전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머니의 위대함을 배우고, 효도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인도박물관을 비롯 프랑스 등지의 마야황후 모습을 기본으로 마야황후영정을 모시고, 마야황후를 재조명하는 연구회도 만들어 성모의 위의와 업적을 선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수사는 불사입재식과 함께 내년 2월부터 생전예수재 1000일 기도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전예수재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명의 비구 비구니 고승대덕을 초청하여 법석을 열 예정이다.

만다 스님은 7세인 1945년 통도사에서 우담스님을 은사로 동진 출가했으며,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50여년간 전국 제방에서 수선안거 했다. 91년 대전시 중구 유천동 공공건물 1층을 빌려 통도사대전포교원 무성사를 열었으며, 94년 통도사대전불교대학을 설립해 1천여명을 배출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포교방법 새롭게 구축"

국제불광회 부산협회장 심산 스님



"국제불광회 부산협회는 국제불광회 활동을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적인 불교의 흐름과 실천을 주도하는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9월 1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불광회 부산협회 출범식에서 심산스님(부산 신창농원 홍법사 주지 · 사진)은 회장으로 취임했다. 서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협회다. 당분간은 현재 19명의 이사 감사를 두고 있는 부산협회 조직을 회원 1천명으로 확대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대만 불교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국제불광회 조직은 상하조직이 아니라 불법으로 세계를 두루 비추겠다는 자비사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불광회의 인연은 2002년 6월, 심산스님이 대만 불광산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스님은 선방의 참선, 사경 등 그곳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국제불광회의 문화포교, 복지 포교에 깊은 공감을 갖게 되었고, 부산협회 출범의 결실로 이어졌다.

스님은 "국제불광회의 실천 모델을 통해 한국불교의 포교, 전법의 방향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경기북부 불교복지시설 확충"

복지의 날 경기도지사상 수상 이건식 행정원장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불교 복지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불교계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매진할 생각입니다."

제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유공자로 선정돼 9월 16일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한 이건식 연화복지의원 행정원장(사진)은 "무의탁 노인,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불교 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건식 원장은 1998년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사장 정암)'의 사무국장을 맡은 이래로 경기도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북부소장 등을 역임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 특히 이 원장은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무국장 시절 도입한 '잉여음식 나눔운동'(food bank)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IMF 한파와 음식물 배송에 있어서 위생 및 인력부족문제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장은 힘들었던 시절을 무사히 넘기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당시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조금씩 정성을 모아 '잉여음식 나눔 운동'에 참여해 준 후원자들이 있었기에 이 운동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원장은 이와함께 1999년 노인전문병원 '연화복지의원'를 운영, 현재까지 5만 여명에게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동혁 기자

봉축 탄허 대종사 열반 20주기 학술회의 및 법어집 발간 기념 대법회

인 사 말

귀의 삼보 하옵고
한여름의 수고로움이 결실로 이어지는
만산 홍엽의 계절입니다.

한국 근대의 대선지식이신
탄허 대종사 열반 20주기를 맞이하여
큰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고 법어집을 발간하는
"탄허 대종사 열반 20주기 추모 학술회의 및 문집 발간 기념 대법회" 자리를 마련 하였습니다.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오대산 월정사 주지 김현해 합장
탄허 불교 문화재단 이사장 전창열 합장

탄허 대종사 법어집 발간 기념 대법회

식순

삼귀의례 ..... 합창단
찬양합니다 ..... 합창단
반야심경 ..... 다함께
발 간 사 ..... 혜거스님(금강선원 주지)
인사말씀 ..... 현해스님(월정사 주지)
육성법어 ..... 탄허 대종사 육성 녹음
법 어 ..... 석주 큰스님(칠보사 조실)
격 려 사 ..... 법장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축 사 ..... 지관스님(원로의원) 월주스님(전 총무원장)
홍기삼(동국대 총장) 김진선(강원도지사)
축 가 ..... 교향악단 · 합창단
사홍서원 ..... 다함께

♣ **일시** : 불기2547년 9월 30일 오후 5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탄허 대종사 열반 20주기 학술회의

기조강연 탄허 사상의 종합적 고찰
강연 **각성스님**(화엄사 회주)

주제발표 (1) **탄허스님의 생애와 교화활동**
◆발표자 : **김광식**(부천대 교수)
◆토론자 : **김문환**(국민대 교수)

(2) **탄허스님의 선관 및 수행관**
◆발표자 : **무관스님**(전 해인사 강주)
◆토론자 : **태원스님**(승가대 교수)

(3) **탄허스님의 화엄사상**
◆발표자 : **해주스님**(동국대 교수)
◆토론자 : **김상현**(동국대 교수)

♣ **일시** : 불기2547년 9월 30일 오전 10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 **주최** : 오대산 월정사, 탄허대종사문도회, 탄허불교문화재단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재)불교문화진흥 조계종 성찬회, 월정사 성보박물관, 불교신문, 불교방송, 법보신문, 현대불교 ■ **문의전화** : 033)332-6664~5

불교계 태풍피해 사찰50곳·성보문화재 44건

종단·복지단체 복구의 '땀방울'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9월 18일 현재 127명에 이르고 4조3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찰과 불교문화재의 피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50여 사찰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44건의 불교문화재를 포함해 227건에 달하는 문화재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불교 종단과 불교 · 복지단체 등은 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복구작업에 동참하고 나섰다. 각지에서 불자들의 자비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편집자〉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불교 종단들은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에 나섰다. 사진은 9월17일 부산 수해지역을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복구에 동참한 모습.

조계종 총무원=재해대책기구 구성·가동

태고·천태·진각종=봉사단 투입·성금모금

조계종은 9월 16일부터 대국민 호소문 발표, 성금 전달, 복구인력 파견 등 재해 복구에 동참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16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초유의 태풍으로 인해 불의의 재난을 당한 수재민에게 통절한 마음으로 위로를 보낸다"고 말하고 "민족과 고락을 함께해 온 조계종은 물심양면으로 수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호소문 발표 뒤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이날 한국방송(KBS)에 1억원의 수재의연금을 기탁하고, 17일에는 부산과 마산 수해지역을 방문해 수재민과 불교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16일 재해대책기구를 구성하고 태풍 피해복구 활동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총무원은 전국 교구본사에 공문을 보내 교구별로 수재성금 모금 및 피해복구 활동에 참여할 것과, 피해사찰 현황을 조사하여 총무원으로 통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태고종과 천태종, 진각종도 수재민 격려와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태고종은 각 교구 종무원을 중심으로 성금 모금활동을 펼치는 한편, 종단 소속 스님과 신도로 구성된 1백여명 규모의 자원봉사단을 경남지역에 긴급 투입했다.

천태종도 9월 18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충주KBS에 수재의연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호소문을 통해 "국가적 재난에 직면한 수재민 여러분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결코 좌절하지 말고 굳은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천태종은 14일 전국 말사에 하달한 공문을 통해 한달간 수재민 돕기 운동을 위한 모금 및 봉사, 후원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진각종은 15일 KBS에 수재의연금 1천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부산, 대구, 경주, 포항 등 6개 교구청과 일선 심인당에 수재의연금 모금과 피해복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하달했다.

한명우 · 박봉영 기자

도성암 요사채 유실…인명피해 2명

불국사 대웅전·전각12동 기와 파손

사찰 피해

태풍 '매미'가 휩쓸고 지나간 남부지방과 강원도 일부지역 50여 사찰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9월 12일 남부지방에 상륙한 태풍 '매미'는 조계종 각 교구본사와 말사에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등 심각한 타격을 줬다.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부산, 경남지역의 경우, 통도사 말사 도성암에서 12일 요사채 유실로 인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범어사는 관음전, 천왕문, 미륵전 등의 기와 일부가 강풍에 파손됐다. 마산 정법사에서는 강풍에 은행나무가 쓰러지면서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 경북지역 사찰들도 태풍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구 동화사는 석축이 붕괴되고 해탈교에 금이 가는 피해를 당했으며 현풍포교당, 천수암, 용화사 등도 폭우에 침수되거나 건물이 붕괴됐다.

영천 은해사의 경우 신흥사, 봉림사, 죽림사, 신령포교당 등 말사들의 대웅전과 전각들의 기와, 석축 등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주 불국사도 대웅전을 비롯한 경내 전각 12개 동의 지붕기와가 강풍에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경북 울진 불영사는 진입로가 유실돼 외부와 한동안 고립되기도 했다. 천미희·박원구·이동혁 기자

문화재 피해

국보 분황사 석탑 포함 227건 집계

문화재청, 실사거쳐 복구비 지원

태풍에 의한 피해는 문화재도 피해갈 수 없었다. 분황사 석탑(국보 제30호)을 비롯한 국보 3건, 보물 22건, 사적 28건, 지방유형문화재 45건 등 문화재 피해는 9월 18일 현재 전체 227건, 115억 2천5백만 원(추정 피해액)의 피해가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교 문화재는 국보 2건, 보물 14건, 사적 3건 등 국가 지정 문화재 21건과 시 · 도 지정 문화재 23건에 총 25억 5천7백여만 원의 피해액이 신고됐다.

전남 여수시 흥국사는 팔작지붕, 다포양식의 대웅전(보물 396호)을 비롯한 사찰 내 건물의 기와와 용마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 경북 군위의 군위삼존석굴(국보 제109호)은 담장과 석축이 유실돼 7천4백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태풍 피해가 가장 심했던 경남은 문화재 피해 역시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주 청곡사는 대웅전(지방유형문화재 51호)의 기와가 파손되고, 두방암 다층석탑(지방유형문화재 200호)은 석탑의 옥개석이 무너지고, 요사채 일부도 파손됐다.

문화재 피해가 경미한 경우는 각 사찰별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의 문화재 복구 비용은 중앙재해대책본부와 문화재청의 실사 후 문화재청의 재난대비 사후관리비(올해 20억 책정)와 정부와 시 · 도의 재해 복구 예비비로 지급된다. 오유진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범어사 대웅전 지붕의 기와가 태풍 '매미'에 의해 훼손된 모습.

피해불교문화재 현황(일부) 자료제공=문화재청

지역		문화재지정	문화재명	피해상황
강원	강릉시	보물 84	신복사지 석불좌상	경사지 토사유실
	고성군	지방기념물 51	고성 건봉사지	능파1교 주변 하천변 토사유실 부도군지 담장붕괴
전남	여수시	보물 396	흥국사대웅전	기와 및 용마루파손 담장석축 유실
경북	포항시	보물 252	보경사원진국사비	담장붕괴
	경주시	국보 30	분황사 석탑	담장붕괴,이완
	경주시	사적및명승1	불국사 경내	담장붕괴 · 이완 대웅전외12동내림마루파손
	경주시	문화재자료 313	덕봉정사	담장붕괴 · 이완, 내림마루 파손 관리사 누수
	김천시	보물 297	청암사수도암 삼층석탑	화장실 1동 유실, 석축 교량 2개
	영천시	보물 465	영천신월동삼층석탑	대웅전기와훼손
	경산시	보물 562	환성사 대웅전	협문 · 마당붕괴, 담장 및 석축
	군위군	국보 109	군위삼존석굴	담장 · 석축유실, 산사태
	영양군	보물 610	현일동삼층석탑	석축 · 철책붕괴
경남	진주시	지방유형문화재 51	청곡사대웅전	기와파손
	통영시	사적 236	통영충렬사	광한루, 일주문 지붕파손
	밀양시	보물 493	무봉사석조여래좌상	협문 파손, 대웅전앞 마당 침하
	밀양시	보물 466	만어사삼층석탑	종각 반파
	창녕군	지방유형문화재 69	영산법화사다층석탑	대웅전 기와파손, 진입로유실 법면배수로, 법화암 진입로 유실 문짝파손 4기
	창녕군	보물 212	관룡사 대웅전	일주문 기와벽체 붕괴 진입로 측구, 하천제방유실
	창녕군	보물 295	관룡사용선 대석조석가여래좌상	진입로 유실 2개소
	창녕군	문화재자료 20	석불사 석불입상	창고 · 용왕각 반파, 요사체 유실 대웅전석축, 하천복개시설물 붕괴 하천옆 계단, 하천축대, 진입로 배면 유실
	고성군	문화재자료 39	호암사	협문, 내삼문 전파, 마루기와 도괴
	남해군	문화재자료 41	운곡사	외삼문 파손, 부속사 누수
	남해군	사적 233	남해충렬사	청해루 기와, 마루 누수
	남해군	문화재자료 152	화방사 채진루	석축 붕괴
	남해군	지방유형문화재 85	용문사 대웅전	석축 붕괴

목탁소리

상식 '초월'한 종관위



권형진 (취재1부 기자)

동국학원 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최근 행보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종관위는 9월 13일 동국학원 이사 13명 중 11월로 임기가 끝나는 8명(스님 5명, 재가자 3명)의 후임으로 16명을 뽑았다. 그러나 추천 후보 중에 지난해 사망한 김인홍씨가 포함돼 있어 부랴부랴 명단에서 삭제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사로 추천하려면 사전에 자격 유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명단에 포함돼 뒷맛이 개운치 않다.

문교부장관과 동국대 총장을 지낸 김법린 스님의 아들인 김씨의 사망 사실을 아무도 모를 수 있냐는 일반적인 반응은 차지하더라도, 동국대를 이끌어갈 이사 후보를 뽑으면서 본의 동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종립학교관리법상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이사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중앙종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종관위 결정 사항에 관한 공문을 동국학원 사무처에 보낸 것도 마찬가지다. 종관위 측은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법인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그런 공문을 거의 보내지 않다가 올들어 동국학원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도 절차를 무시한 '사실상의 결정 사항 통보'가 아니냐는 오해의 여지가 남는다.

출가하여서는 부처님 전에 감사함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
세상에 태어나서는 부모님 전에 감사하고



소납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부모님 전에 감사함을 간직하였으며 출가하여서는 부처님 전에 감사함을 가슴 깊이 간직하였으며 승려로서 수행과 정진을 하면서는 여러 인연 불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공양하신 음덕에 항상 감사함을 생각하며 기도 축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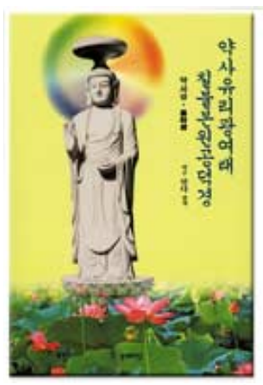
부처님 혜명을 받들어 전법하는데 온 정성을 다하는 동안 세월이 흘러 소납도 육순을 넘어 칠순을 바라보는 현실에 서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기도 중에 밝아오는 여명으로 불현듯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 전, 부처님 전, 시주님 전에 더 늦기 전에 보은을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부처님 말씀 중에 「약사유리광여래 칠불본원공덕경」은 세상을 살면서 병고액난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길잡이가 될 것이며 「생전예수재 참회의 공덕」은 이제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 인연 불자들에게 생전의 업장을 소멸케 하고 명부의 세계에서 고통을 면하게 해야 되겠다는 소납의 성심 어린 정성 발원으로 이 두권의 책을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편역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간의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법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불은이 충만하시길 성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부처님 유교제자 만 다 합장

출판 기념법회 안내
●일 시 : 9월 24일 오후 6시 ●장 소 : 유성 스파피아 3층 크로바대강당



만 다 편역 / 문예마당 펴냄 / 13,000원



만 다 편역 / 문예마당 펴냄 / 10,000원

약사유리광여래 칠불본원공덕경
약사경 · 藥師經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을 통하여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병마가 침입하여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촉을 받아 중생들의 무병장수를 서원하며 성불하신 동방만월세계 약사유리광여래 부처님의 위신력을 담았습니다.

12가지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우신 약사유리광여래의 행적을 찾아 경전을 읽을 때마다 중생들의 영원한 생명의 실상인 약사유리광여래 부처님을 예경하고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부처님의 명호를 항상 예송하며 믿고 실천함은 필경 자신의 본래 성품으로 돌아가므로, 일체 병고액난을 해탈하는 한량없는 무량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참 · 사 · 람 · 의 · 아 · 름 · 다 · 운 · 회 · 향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 참회의 공덕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에만 크게 집착하였지 생을 마감하고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려 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태어나면 가야만 하는 길이 저승길입니다. 그렇다면 명부 열시왕의 세계는 어떠한 것인가?

이 책 속에서 그 의문의 세계를 만나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후이신 마야 왕비께서 지옥중생을 구제하시는 지장보살에게 중생들의 사후세계를 염려하시어 상세하게 하문하시는 과정을 읽으신 후 과연 '생전예수재'를 올리는 공덕이 나에게는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법보시용으로 이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사찰에서 다량으로 법보시 하시면 할인가능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대전포교원 용수사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427-55 Tel. 042)531-1332 Fax. 042)525-1333



◇관문사는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등 지역사회 현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중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9월 6일 관문사에서 열린 트러스트 운동 기금 마련을 위한 알뜰장터의 개막식 모습.

천태종 서울분원 관문사 창건5주년

문화도량으로 자리잡는다

무료진료·수화통역으로 포교계층 다양화

알뜰장터 수익금 '우면산 트러스트' 출연

불화특별전 등 문화행사도 정례화 추진

천태종 서울분원인 관문사(주지 춘광)가 각종 문화행사와 대중법회 서비스, 지역사회 현안 참여 등을 통해 신도와 일반인들의 문화도량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관문사는 창건 5주년을 맞아 천태종의 서울지역 중심사찰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도량, 다양한 계층을 위한 포교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9월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7일 정기법회부터 시작된 무료진료와 수화통역 서비스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미술·공연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화통역센터와 한국농아인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수화통역 서비스는 소외계층인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포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천태의료봉사단이 주관해 노인층 신도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상담, 진료, 처방, 투약 등 의료서비스도 다양한 계층포교의 한 사례로 꼽힌다.

서울 포교중심도량으로 자리잡기 위한 관문사의 전략에는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문사는 관문사가 위치해 있는 우면산을 무분별한 개발 위험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9월 6~7일 열린 알뜰장터에서 얻은 수익금 1천여만원도 우면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기금으로 기탁했다.

한편 관문사는 창건 5주년 기념일인 10월 5일 천태종 서울종합불교회관에서 타악뮤지컬 '야단법석' 공연(오후 2시 30분)과 '금낭 이경자 불화 특별전'을 연다.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과 일반인들도 관람할 수 있는 문화공연과 전시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감사원장 정산스님, 조남호 서초구청장 등 종단 중진스님과 지역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건 5주년 기념 국민화합 기원대법회도 개최한다.

관문사 주지 춘광스님은 "대중과 함께 하는 사찰이 현대사회와 잘 부합하는 사찰 모델이라 할 수 있다"며 "관문사는 서울지역 천태종을 대표하는 중심사찰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태고종 제주교구 종사 법계품수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원장 도성)은 9월 1일 북제주 금붕사에서 종사법계 품수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품수한 스님은 지난해 6월 열린 제8차 법계고시에서 종사로 추대된 제주교구 소속의 관운 · 각림 · 매계 · 수암 · 상허 · 춘곡 · 도산 · 선융 스님 등 8명이다.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을 비롯해 제주교구 종무원장 도성스님,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한-스리랑카 교류 30주년 기념법회

열반종(총무원장 해곡)은 스리랑카 불교계와의 교류 30주년을 맞아 9월 14일 총본산 와우정사에서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랄 가마게 스리랑카 외교부 부장관, 비제야시리 주한 스리랑카대사 등 외교사절 10여명과 열반종 해곡 총무원장 등 열반종 관계자 30여명이 동참했다. 이어 열린 1시간여의 환담에서 한-스리랑카간 불교교류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덕대, 복지·정보시스템 확충

학생편의시설 개선·웹환경 보강

위덕대가 재학생들의 복지 서비스 확대와 정보시스템 ·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 특성화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나섰다. 구성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학생복지, 정보, 시설 등 분야별 개선조치를 단행한 것.

위덕대는 일본 · 태국 · 캄보디아 등 해외문화 탐방을 3차례 실시한 것을 비롯해 지난 7월 4개월 과정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지원제를 운용했다. 또 학생퀴즈코너 운영, 학생서비스센터 편의시설 확충 등 학생복지 서비스도 꾸준히 늘려 교육여건을 개선했다.

정보와 시설 분야에서의 개선도 두드러진다. 지난 8월에는 웹환경 전자자료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도서전산시스템 서버 증설, 신착도서 코너 개설, 장서 2천5백여권 확충, 인터넷디스크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취했다. 9월말에는 디스크시스템과 연계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오픈, 재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각각 300MB와 500MB씩 인터넷상의 저장공간을 무료로 제공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자료 수집과 열람, 참여 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위덕대는 하계 방학기간중 바이러스와 해킹을 예방을 위한 교내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장비를 교체한 것을 비롯해 10월중 자연과학관 준공, 9월말 운동장 서치라이트 설치 등 시설 확충 공사도 진행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천태종 재무부장 도재스님

종정사서실장 문덕스님





천태종은 9월 10일 총무원 재무부장에 종정사서실장 도재스님(왼쪽)을 임명했다. 종정사서실장에는 재무부장 문덕스님(오른쪽)을 임명했다.

새 재무부장 도재스님은 1984년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총무원 사회부장, 서울 관문사 주지, 종정사서실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85년~96년과 98년~2002년 재무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문덕스님은 총무원 교무국장, 종정사서실장, 총무원 사회부장, 재무부장, 대구 대성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일정종사 대종사에 품수

진각종 인의회서 결의



진각종은 9월 16일 서울 총인원 회의실에서 제7회 인의회(의장 혜일)를 열고 일정 종사(서울능인심인당 주교 · 사진)를 대종사에 품수하기로 결의했다. 또 혜정 대정사(교육원장)와 휴명 대정사(사감원장)는 종사 행계(법계)에 품수하기로 했다.

행계 품수식은 10월 21일 서울 총인원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종단소식

대충대종사 10돌 열반대재

천태종은 제2대 종정을 지낸 대충대종사의 열반 10주기를 맞아 9월 28일 오전 11시 총본산 구인사에서 열반대재를 봉행한다. 대충대종사는 구인사를 비롯해 70여 사찰을 중창했으며, 74년부터 93년까지 종정을 지냈다. 스님은 평소 "불법을 닦는데 있어서 실천 수행이 주된 핵심이 되어야 한다. 경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경전을 보고 불도의 길을 알게 되었으니, 실제로 자기 노력으로 수행 실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강조했다.

대구교구 남성합창단 창단

진각종 대구교구청은 8월 31일 남성합창단을 창단했다. 여성합창단인 금강합창단의 정기발표회를 앞두고 창단된 남성합창단은 혼성합창을 할 수 있도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남성합창단은 9월 21일 대구 진각문화회관에서 첫 연습모임을 열고, 매주 한차례씩 연습하기로 했다.

창종 36주년 기념법회

일승종(총무원장 혜정)은 창종 35주년 및 본산 이전 7주년을 맞아 9월 17일 구리 총무원에서 기념법회 및 종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혜정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혜인스님, 교육원장 청감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16일에는 삼봉사 대법당에서 종도 수계법회가 열렸다.

게 시 판

행사 ▲서울시립 은평노인복지관은 매주 화요일 10~12시 복지관 상담실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정, 주택, 이혼, 형사고소고발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전문법률상담가에 의해 진행되는 무료법률상담은 내방 및 전화상담이 모두 가능하다. (02)385-1351

▲터사랑은 9월 28일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 탈춤공연을 관람하는 순례를 한다. 병산서원도 방문하는 이번 답사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오전 7시, 양재역 오전 7시30분에 각각 출발한다. (02)725-1284

▲조계종 자원봉사단은 10월 1~2일 강원도 양양 낙산유스호스텔에서 조계종자원봉사단 봉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특강을 비롯해 삼보일배 정진, 캠프파이어 등의 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02)723-5101

모집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전통 사찰음식을 배우는 '푸른요리'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9~30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12시에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02)571-2988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정신지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신지체 아동 통합지원 프로그램 '맑은 소리터'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개별치료와 그룹활동으로 진행된다. 구비서류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수첩. (051)264-9033

구인 ▲예산 수덕사는 종무소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남자는 전문대졸 이상이며 여자는 고졸이상. 준비서류는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모집인원은 남 · 여 각 1명이며 마감은 채용시까지. (041)337-6565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다. 직종 및 인원은 독거노인 식생활개선 도우미 3명, 독거노인 안심지원 도우미 5명, 경로당 점심지원 도우미 5명, 입욕치료 도우미 2명.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6개월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면허증 사본 각 1부. 마감은 충원시까지. (02)929-7950

부고 ▲불교신문 편집국 김선두 부장의 부친 김낙중 옹이 19일 별세했다. 건대충주병원 영안실 1호, 발인 21일, 장지는 충주 동양면 선영. (043)840-8491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全國禪院首座會 聲明書

오늘 우리는 전국제방(全國諸方)의 선원(禪院)에서 참선정진(參禪精進)하고 있는 이천(二千)의 수좌(首座)들의 뜻을 묶어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 훼손하는 고속도로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선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선원의 수좌들은 평소 산(山) 속에 머물러 살고 있으며, 산(山)을 의지하여 수행정진하고 있으니 산은 바로 우리의 도량(道場)이요 부처님의 청정법신(淸淨法身)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모든 사찰과 선원에서는 산감(山監) 직책을 두어 벌목이나 산불로부터 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사찰림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울창하고 수려한 산림을 보존하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 불교인의 자긍이요 보람인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 소재한 북한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풍광과 소중한 자연생태가 보존되어있는 곳이며,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크고 작은 사찰과 암자가 100여 곳이 넘고 한수이북(漢水以北)의 대표적인 선원(禪院)이 있는 망월사, 회룡사가 있어 우리 수좌들의 애정과 관심은 각별하다.

이러한 명산인 북한산국립공원을 8차선 고속도로로 관통하는 노선의 변경문제를 이 달 9월 중에 결정한다고 하니, 우리 수좌들은 위로는 종정예하의 각별한 뜻과 원로회의의 유시를 받들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기를 대통령과 정부당국에 거듭 촉구한다.

이제 북한산을 관통하는 노선에 대한 반대는 비단 불교계의 입장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거의 대다수 시민환경단체들이 한결같이 반대하고 있으며, 서울시 의회와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의 반대결의안도 채택되었다. 대통령의 지시로 전문가로 구성된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도 4 : 6으로 반대가 우세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지난 년말 관통노선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았던가?

우리 선원의 수좌들은 최근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 반대와 관련한 불교계의 순수한 뜻과 결연한 의지를 왜곡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일련의 행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으로 북한산을 수호하는 사부대중과 함께 일어설 것이다. 이천만 불자들도 '산을 지키는 일에 호법신장(護法神將)이 되라'는 원로회의 노스님들의 유시(諭示)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북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총무원장스님께서도 북한산을 수호하고자 하는 원로회의, 중앙종회, 교구본사주지회의의 결의와 전 종도들의 열화와 같은 염원을 수렴하여 북한산 수호문제를 종단의 중요한 당면과제로 삼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서 대정부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아무쪼록 정부당국은 훗날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는 일이 되지 않게 명분과 전문적 검토결과와 다수 민의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하기를 바란다.

불기 2547(2003)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BBS 대구불교방송 www.dgbbs.co.kr FM 94.5 MHz
포항·안동 중계소 오는 11월 개국
중계소 설립 후원전화 060-701-0408 (한 통화당 2,000원)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매미’ 보다 강한 佛心

태풍피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





◇정토회는 17일 거제도 정신지체 생활시설 애광원에 구호품을 전달했으며(사진 위), 해인사 대중스님 60여명도 19일 합천군 용두면 일대 과수원과 하우스촌 일대에서 복구작업을 벌였다(사진아래).

폭격맞은 듯한 건물에 주민들 망연자실
‘아픔 같이 하겠다’ 복구 손길 이어져
‘루사’ 때 참여 했던 봉사자들 다수
어려움 같이 하는 마음에 주민들 감사
종단·사찰마다 수재민 돕기 운동 전개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 200여명의 봉사자들이 16일부터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초속 60.0m라는 기록적인 강풍으로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는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겨놓은 채 사라졌다. 자취를 감춘 ‘매미’ 뒤에는 127명의 인명피해와 4조 1687억이라는 재산피해가 고스란히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았다. 천재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만이 희망이다. 태풍 ‘매미’가 남긴 상처를 씻어내는데 불자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아름다운 해안선과 탁 트인 전망으로 인기를 누렸던 부산 송도 해수욕장 인근의 음식점과 숙박업소들. 태풍 매미가 지나간 후 이곳은 완전히 달라졌다. 코를 찌르는 악취, 여기 저기 나뒹구는 오물 더미들, 폭격을 맞은 듯 부서져버린 건물들로 영업불능 상태에 있으며 옛 정취라곤 찾아 볼 길이 없다. 해변로를 따라 거닐던 연인들의 다정함과 관광객들의 모습대신 쌓여있는 쓰레기들과 부서져 나온 나무와 시멘트를 운반하는 대형 트럭들의 굉음, 질퍽질퍽하게 흘러내리는 물, 복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인들과 봉사자들의 움직임들이 분주할 뿐이다. 가을 햇볕을 받으며 반짝이는 고요한 바다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야속할 정도다.

16일, 17일 이곳을 찾은 조계종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지부장 이기표) 봉사자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뉴스로 볼 때보다 직접 와서 더욱 처참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피해 주민의 손을 잡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나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망연자실해 있던 주민들도 봉사자들이 찾아오자 힘을 얻어 복구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16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계종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는 17일에는 보현의 집 노숙인, 통도사부산포교원, 염불공양모임, 불교자비원, 대한적십사불교봉사회, 부산불교운전기사회, 관음사 등 16개 신행단체에서 200명에 가까운 불자들이 봉사에 나섰다. 봉사자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인근 피해 업소로 배치됐다.

“더이상 절망은 없다. 이웃이 있기에…”

송도해수욕장 인근 60여 곳의 업소들은 완전 침수되었고, 해일로 상가 1층 건물은 대부분 부서져 형태가 남아있지 않은데다 위층까지 바닷물이 밀어닥쳐 모든 가재도구, 전자제품들이 바닷물에 젖어 무용지물이 됐다. 콘테이너 박스가 파도에 떠밀려와 1층 정면에 부딪혀 1층이 부서진 업소도 있고, 완파된 건물도 5동이나 된다. 어디서부터랄 것도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건물 안의 모든 물건들은 곧바로 쓰레기 더미로 향했다. 봉사자들에 의해 옮겨진 침대, 이불, 가재도구들이 쌓여 갔다. 버려지는 물건들 위로 업주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머물기도 잠시, 곳곳에서 주인의 지시를 기다리는 봉사자들이 있어 시름을 떨친다.

“절망 속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렇게 봉사자들이 오니 힘이 나고 웃음도 나오네요. 남의 도움 받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시니 너무 고마워요.” 불경기에다 태풍 피해로 영업마저 불가능해졌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는 마음이 있어 그나마 힘이 된다고 업주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봉사자들의 바람도 한결같았다. 자원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는 오도심(47) 보살은 “현장에 와 보니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내 작은 도움이 어려운 분들에겐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됐다”며 흐르는 땀을 닦았다.

지난해 발족한 조계종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에는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복구 현장에도 참여했던 봉사자들이 많아 복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됐다. 부산보현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들 중 기술자들은 타일을 붙이고 시멘트로 내벽을 수리하는 봉사를 맡았다. 공사현장에 나가 돈을 벌고 있는 이들은 일당을 마다하고 봉사활동을 나섰다. 또한 부산불교운전기사회 회원들 역시 비번이 아님에도 개인택시 영업을 중단하고 봉사현장으로 달려왔다. 백가지 이론보다 한가지 행이 귀중하다는 신념으로 달려온 이들의 정진은 봉사현장 곳곳에서 빛을 발했다. 노란 조끼를 입은 봉사자들이 긴 해변로를 수놓았다. 바닷물과 함께 휩쓸려와 1층을 가득 매운 모래를 퍼내고, 사용이 가능한 물건들을 씻고 정리하는 등 사람의 손으로 가능한 일들을 얼추 마무리해 가고 있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던 봉사활동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조계종 총무원장인 법장스님이 방문했다. 마산, 창원의 태풍 피해현장을 돌아보고 피해주민을 위로한 후 부산을 방문한 법장스님은 “우리 민족은 힘들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헤쳐나가는 지혜와 용기를 가졌다”며 ”여러 불자님들의 공덕으로 피해를 받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조계종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는 송도해수욕장의 피해 복구가 마무리되면 피해가 극심한 부산 강서구 녹산동과 마산 창원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이밖에도 전국 태풍 피해 복구 현장에 불자들의 봉사활동이 줄을 잇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17일과 19일 ~ 20일 2차에 걸쳐 강릉, 삼척 지역에 자원봉사단을 파견했으며 (사)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옥)도 각 지구별 피해규모와 수해를 당한 회원들을 조사하고 봉사단을 모집 봉사를 펼치고 있다. 대구 경북에서는 불국사가 경주 일대에서,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이 20,21일 양일간 봉화와 청도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벌였다. 부산에서도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가 언양, 강서구, 송도 등의 피해현장에서 분주하다. 또한 천태종의 경우, 14일 전국 말사에 공문을 보내 전국적인 수재민 돕기 운동과 봉사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은 17일 울산 중구 재해지역인 학성공원 일대에 니르바나봉사단 50여명을 파견 중구청의 복구장비를 지원 받아 긴급 봉사활동을 벌였다. 진각종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수재의연금 모금운동과 함께 부산, 대구, 경주 등 6개 교구청과 일선 심인당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태풍 ‘매미’의 상처가 깊다. 그러나 태풍의 상처와 고통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둘 아닌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는 불자들의 보현행이 부처님의 천수천안을 대신해 그 상처를 감싸고 있다.

글=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 (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동·서 지성들 美서 '마음탐구' 학술회의

불교와 과학의 조화 모색

'마음 · 생명 연구소'(Mind & Life Institute, 명예위원장 달라이 라마)는 9월 13~14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 시 MIT 공대내 크레스기 강당에서 '마음 탐구(Investigating the mind)'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동 · 서양에서 모인 26명의 지성인들과 전문가들은 1200여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음과 연관된 현대과학인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제반 문제에 대한 최고 수준의 토론을 나눴다.

13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1987년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공개 진행된 제 11차 '마음 탐구' 학술회의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을 통해 과학과 불교의 협력과 조화가 증진되기를 바란다"며 "과학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걱정스러워 하는 어린아이와 같기에, 불교는 이제 그 아이에게 '괜찮아, 잘 할 수 있어'라는 용기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찹스 MIT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두뇌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질 때 인류의 정신적 행복도 증진될 수 있다"고 화답했다. 학술회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9월 13일 美 캠브리지시 MIT공대 강당에서 열린 제 11차 '마음 탐구' 학술회의는 달라이 라마와 26명의 석학들이 펼친 지성의 대토론 마당이었다.


◇9월 13~14일 MIT공대에서 열린 '마음 탐구' 학술회의의 휴식시간중 책과 논문을 살펴보는 참석자들.

수행하면 시각적 기억력 향상

제2부 심리 이미지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스테판 코슬린 교수는 심리 테스트를 위한 그림을 보여주며 이미지의 기억 과정을 발표했다.

매튜 리차즈 스님은 "불교는 이미지를 탐 · 진 · 치의 삼독심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본다"며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는 편견을 버리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기억하는 훈련을 오랫동안 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달라이 라마는 "스님들은 수행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를 경험한다. 예를 들어 불이 눈앞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는 수행자도 있다"며 "수행을 통해 인간은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개념적 이미지도 강하게 체험한다"고 설명했다.

MIT 공대 '두뇌 및 인지과학과' 낸시 캔위셔 교수는 외부에서 들어온 시각적 자극과 상상 속의 이미지가 뇌 속에서 전달되는 과정을 MRI 사진을 통해 비교했다. 그는 "불교 수행을 하면 시각적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리드 대학 심리학과 다니엘 리즈버그 교수가 "이번 토론을 통해 과학적 분석 방법이 지엽적인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자, 아잔 아마로 스님은 "과학이 축적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현대인들이 윤리적인 삶의 혜택을 확신하고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화는 자신의 편견서 비롯

제3부 감정

위스콘신 대학 심리학과 리차드 데이빗슨 교수는 티베트 스님 150명의 뇌를 MRI 촬영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명상 상태와 정상 활동 중인 스님의 뇌 상태 비교를 통해, "명상 중에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현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평상시에는 반응이 크게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매튜 스님은 화, 공포 등 인간의 감정에 대해 언급하며 "화는 외부 대상 때문이 아니라 나의 편견에서 나오며, 화를 낸다는 것은 외부의 자극 때문에 내가 감정을 다스릴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자유는 오랜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달라이 라마는 "인간마다 집착에 따라 감정이 다르다. 불교는 동물도 감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개인마다 신체 및 주변 환경이 다르다고 해도 분노, 파괴, 질투 등 나쁜 감정을 줄여나가고 좋은 감정을 키우는 수행에는 다 같이 '자비심'이란 철학적 바탕이 깔려 있다"고 강조했다.

인간은 마음궁전의 힘없는 왕

제4부 정리와 반성

하버드대학 심리학과 제롬 카간 교수는 "서구 사회는 오랜 세월 자유를 외쳤지만 지금처럼 한계에 부딪힌 것은 그 동안 저질러온 악업 때문이다. 윤리 규범을 어기는 순간 그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윤리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그 자체가 복잡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고통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윤리다"고 강조했다.

조나단 코헨 교수는 "현재까지 서구과학은 인간이 '두뇌의 CEO'인 줄 알았다. 오늘 토론을 통해 인간은 '아주 불안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마음 궁전 안의 힘없는 왕'임을 알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MIT 공대 분자생물학과 에릭 랜더 교수는 "지금 미국인들은 체육관에 가서 매일 운동을 하는데, 50년 후 미국인들은 매일 명상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모르 아잔 스님은 "불교는 불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신을 훈련하고 지혜를 밝히는 수행에도 과학자들과의 협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달라이 라마는 폐막사를 통해 "과학이 인간 내면세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기술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며 "과학자와 불자들이 모두 다 같은 인간임을 기억하고 선한 감정을 키우고 악한 감정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자"고 요청했다. 그는 또 "멀리 있는 천국이나 열반을 찾을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반응

마음훈련의 가능성 확신했다

불교와 과학이 마주보는 현장

"이번 대회에서 수행을 통한 마음 훈련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다"는 리드 대학 심리학과 다니엘 리즈버그 교수는 "이제 우리는 참선의 혜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북 캘리포니아 아바야기리 사원 아잔 아마로 스님은 "'마음 탐구'는 동서양의 가장 강력한 전통인 불교와 과학이 만나서 상응하는 현장이었다"고 평가했다.

MIT 공대 두뇌 및 인지과학과 낸시 캔위셔 교수는 "심리학자와 불교학자들의 마음 탐구 방식의 유사함에 놀랐다"며 "불교와 과학처럼 동떨어진 분야가 서로 만나 성과를 거뒀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치료에 불교 활용해야"

제1부 주의집중과 인지의 조절

프린스턴 대학 심리학과 조나단 코헨 교수는 첫 발제에 나서, '주의 집중과 인지 제어(Attention and Cognitive control)'의 구체적 예를 들며 심리학적 실험 방법의 한계점을 제시했다. 그는 "티베트 불교에서는 인지, 주의 집중, 내성 등 심리적 훈련을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해 온 듯 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알랜 윌러스 산타바바라 연구소장은 티베트 불교의 주의 집중 훈련과 그 목표, 훈련 방법과 평가 방법 등을 소개하며 "사고와 행동의 인지, 조절 능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열쇠가 불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마음에 대한 심리학과 불교의 연구는 서로 닮은 점이 많다"고 전제하고 사물을 인식, 평가하는 인간의 다단계 심리를 불경을 통해 과학자들에게 설명했다.

네팔의 매튜 리차드 스님은 "현대인들은 복잡한 사회에서 다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안,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며 "반면에 수행자들은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그런 역할을 무리없이 수행한다"고 말했다. 또 코헨 교수는 "주의력 결핍 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에 불교 수행법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영남불교대학 유치원 불사 모연문

전국 유치원 8,292곳 가운데 불교 유치원은 123곳 뿐.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어린 불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최첨단 최대의 유치원을 짓고자 대구 도심에
부지를 마련하고 설계까지 마쳤습니다만,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12월에 착공할 예정인 "참좋은 유치원" 불사에
사부대중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동참방법
① 성의껏
대구은행 :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015-05-003474-2
② 백옥부처님 만(萬)분 모시기 (3년 동안 108만원 넣기)
1인 1불 모시며, 천일간 축원 기도해 드립니다.
유치원 5층 법당에 모셔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영남불교대학 우학 合掌
TEL. 053)473-5802 www.TVbuddha.co.kr

제 15회 포교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

조계종 포교원에서는 포교를 통하여 불교와 종단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그 공로를 치하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15회 포교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시상일시 : 불기 2547(2003)년 12월 13일(토)
2. 접수기간 : 불기 2547(2003)년 9월 22일(월) ~ 10월 17일(금) 17시까지
3. 추천분야 : 가. 계층포교분야 :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등
나. 직능포교분야 : 군, 경찰, 직장직능 등
다. 문화체육포교분야 : 미술, 성보, 건축, 음악, 문학, 학술, 연예, 스포츠 등
라. 사회포교분야 : 환경, 통일, 국제, 인권, 장애인, 복지, 여성, 노동 등
마. 매체포교분야 : 방송 · 언론, 신문, 잡지, 출판, 인터넷 등
4. 구분 및 부상 : 상패 및 상금
•포교대상 : 종정상 0명 •공로상 : 총무원장상 0명 •원력상 : 포교원장상 0명
5. 구비서류 :
가. 교구본사 주지스님 또는 종단등록 신도단체 대표자, 종단소속 포교단체 대표자, 포교원 설립단체 대표자의 추천서
나. 포교활동 공적서 <소정양식>
다. 후보자 이력서(사진부착) <소정양식>
6. 추천대상 : 추천은 종단소속 모든 기관 및 전 종도(출가, 재가)로서 5년이상 해당분야에 활동한 자이며 대상 후보자 추천은 20년 이상 해당분야에 활동한 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7. 자세한 문의사항은 조계종 포교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소정양식은 포교원 홈페이지(www.ibuddhism.org)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소: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2
◆ 전화: 02)720-7060~3 전송 02)720-7065 담당자: 총무주임 김한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도 영

선·악의 감정 충돌할 때가 마음닦기에 가장 좋은 기회

"여기에 온 미국인들은 모두 세 부류입니다. 나에 대한 호기심이나 특별한 정보를 구하거나 나의 특별한 영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Nothing).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나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인간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이 라마 설법

14일 미국 동부의 도시 보스턴의 플릿센터. 음악가 나왕 케촉의 티베트 독립과 평화를 기원하는 연주가 끝나고 스님이 노구를 이끌고 입장하자 야구장의 4만여 시민들은 일제히 기립 박수를 보냈다. 오늘 미국인들은 열두 차례나 미 프로농구 챔피언 시리즈를 제패한 보스턴 셀틱스의 선수들을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그 주인공은 달라이 라마였다.

달라이 라마는 "어떻게 자비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으로 법회를 시작했다.

"남을 속이고 이용하고 미워하는 것에 이끌리면 충동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감정과 악한 감정이 충돌하며 싸울 때가 마음 닦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꾸준히 실천하고 악한 감정이 고개를 드는 순간,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은 인간임을 기억하고 자비심을 되찾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은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유년 시절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는 "의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 과목을 미국 교과 과정에 신설하여 아주 어릴 때부터 자비롭게 갈등을 해결하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에 '대화' 과목 개설, 어릴때부터 갈등해소 훈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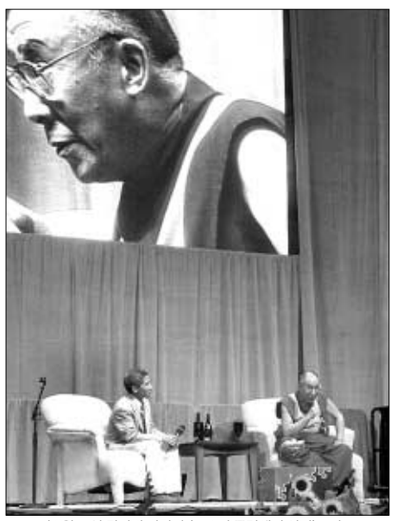
그는 또 미국인들의 소비적인 삶을 경고하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만족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물질보다 마음을 충만케 하라"고 당부했다.

달라이 라마는 즉석에서 청중들의 질문에도 답변했다.

"미국이 어떻게 자비심을 키울 수 있나요?"란 질문에 달라이 라마는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자비심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자비심은 남을 깔보거나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손해를 주거나 심지어 적이라도 나와 똑같은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티베트를 돕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가 원하는 것은 자치입니다. 티베트의 불교와 문화, 전통과 자연 환경은 많은 젊은이들과 세계를 이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실상을 알리고 중국 친구들에게 화합과 자비를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말로 대신했다.


◇9월 14일 달라이 라마의 '보스턴 플릿센터 설법' 모습.


◇아담 잉글, 마음 · 생명연구소 공동설립자.

마음 · 생명연구소는

불교와 과학의 대화증진 위한 단체
87년부터 10여차례 국제 토론회

'마음 · 생명 연구소'(Mind & Life Institute, www.mindandlife.org)는 불교와 과학의 대화를 증진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 70년대 이후 계속된 달라이 라마와 서양 과학자의 대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신경과학자인 프란시스코 바렐라(Francisco Varela)와 공동 설립자 아담 잉글이 87년 처음 '과학과 불교의 만남'이란 주제의 토론을 요청했고 달라이 라마가 이를 수용하면서 첫 토론회가 인도 다람살라에서 열렸다. 연구소는 이 토론회 직후 탄생하게 됐다.

'마음 · 생명 연구소'는 87년부터 '불교와 인지과학', '불교와 신경과학', '감정과 건강', '수면 및 꿈과 죽음', '새로운 물리학과 우주론' 등을 주제로 10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다가 올해 첫 번째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코네티컷 주 루이스빌에 위치한 연구소는 토론 내용을 모아 <파괴적 감정(Destructive Emotions)>, <인연(Entanglements)>, <자비의 통찰력(Visions of Compassion)> 등 7권의 책을 간행했다. 연구소 공동설립자인 아담 잉글 씨는 "이번 대회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내년에 '마음과 삶 여름 연구회'를 개설, 젊은 학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14일 美 보스턴 셀틱스 홈구장에 참석한 4만여 시민을 상대로 법문하는 달라이 라마.

달라이라마 방미 이모 저모

美 지도자들에 티베트 문제 협조 호소
4만명 운집 … 하바드대학 학생과 대화

70년대 이후 달라이 라마는 꾸준히 미국 등 서방세계를 방문하고 있다. 9월 4~24일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블루밍턴, 워싱턴, 보스톤, 뉴욕을 순회하며 진행된 달라이 라마의 이번 방미 활동은 대체로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첫번째는 티베트 독립 운동과 관련한 정치적인 활동이다. 달라이 라마는 8~11일 워싱턴을 방문해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콜린 파월 국무부장관, 미 의회 지도자 등과 연속적으로 만나 티베트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또 11일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9 · 11 테러 2주년 기념행사에서 강연도 했다.

두번째는 '마음 탐구'와 같은 학술 행사다. 신경과학, 심리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이 참석한 이번 학술회의에는 카네기 멜론 대학 마릴느 베르만, 프린스턴 대학 조나단 코헨, 위스컨신 대학 리차드 데이비슨 , 하버드 대학 하버드 길버트, 스테판 코슬린, 버클리 대학 대쳐 켈트너 등 심리학과 교수와 MIT 공대 낸시 캔위셔 '두뇌 및 인지과학' 교수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또 15일에는 하바드 대학을 방문, 학생들과 불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번째는 종교 행사다. 달라이 라마는 보스턴과 뉴욕 등지에서 대규모 대중법회를 개최했다. 14일 미 프로농구단 보스턴 셀틱스 홈구장 플릿센터의 법회에는 4만여 명의 미국인이 찾아와 그의 법문을 경청했다. 또한 브블루밍턴에서는 티베트 사찰 기념식에 참석, 재미 티베트인과 만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미국 보스턴= 강유신 특파원

알랜 월러스= 인도 · 스위스서 불교공부
툽텐 진파= 달라이라마 지근서 수행

회의를 빛낸 얼굴들

'마음 탐구' 학술회의에서 청중들의 주목을 받은 인물로는 알랜 월러스 산타바바라 연구소장과 툽텐 진파 씨가 꼽힌다.

알랜 소장은 학술회의의 모든 세션에 참석, 서구 과학자들에게 불교 사상 및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세 번째 세션 참가 학자들이 지겨울 만큼 용어 문제에 집착하자,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본다"는 말을 인용하며 과학적 탐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교는 말이 아니라 체험이다"는 의견을 피력해 청중의 갈채를 받았다. 알랜 소장은 인도와 스위스 등지에서 불교를 공부했고 오랫동안 티베트인과 함께 지냈다.

툽텐 진파 씨는 거의 모든 행사에서 달라이 라마를 그림자처럼 수행했다. 그는 서양 과학자들에게 달라이 라마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서양 과학자들의 견해를 달라이 라마에게 이해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보스턴 플릿센터에서 열린 법회에서도 달라이 라마를 보좌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 박사인 그는 달라이 라마의 글을 번역하는 총책임을 맡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로 꼽힌 <윤리학(Ethics)>를 번역하기도 했다.


◇알랜 월러스 산타바바라 연구소장(오른쪽)과 툽텐 진파 씨.

동국대학교 총 동창회와 동국학원 발전을 위한 우리의 입장

- 건학 100주년을 앞둔 동국대학교는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1906년 불교계의 선각자들에 의하여 명진학원으로 출범한 동국대학교는 우리 근현대사를 이어오면서 역사와 더불어 사회의 동량을 육성하고 민족사 발전에 커다란 자취를 남겨왔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무한경쟁의 대학교육환경 속에서 개혁과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명문 사학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모교의 발전과 중흥이 동문사회의 위상과 무관하지 않은 현실에서 동국대학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우리 동문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할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 작금의 총 동창회는 구태와 난맥상을 노정하면서 사유화, 이권화되고 있습니다.

100여년 전통을 통하여 형성된 우리 동문사회는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우리사회의 중요한 근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과 역량을 동원하여 한편으로는 동문사회의 단합과 단결을 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교의 발전과 중흥을 이룰 수 있도록 성원하는 것이 오늘 총 동창회에 부여된 부인할 수 없는 책무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총동창회는 이러한 엄숙한 자기명령에도 불구하고 구태와 난맥상을 노정하면서 특정인에 의한 사유화, 그리고 급속하게 이권화 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 총 동창회의 구태와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제22대 총 동창회장 선임과정입니다.

전체 18만의 동문사회를 이끄는 총 동창회장의 선임과정은 전체동문들의 힘과 역량을 모으는 축제이고, 합법적 절차가 존중되는 여법한 장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 5월 29일 제65회 이사회의 총동창회장을 선임하는 과정은 합법적인 절차가 여지없이 무시되는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당시 황명수 전임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체 이사회에서 회장후보로 유주형 동문과 이연택 동문이 복수로 추천되었음에도 사전의 각본에 의하여 다수결에 의한 선출절차가 무시된 채 유주형 동문을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불법적인 해프닝이 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가 무시된 이사회는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물론 여기서 선출된 유주형 동문 역시 총동창회장으로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불법적으로 선임된 유주형 동문은 총 동창회를 사유화, 이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총 동창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다만 그 절차상의 불법성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6월 13일 개최된 총회의 추대절차 과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의사진행발언이 묵살되었으며, 총 동창회장에 불법적인 추대이후 현재까지도 회장단 조차 출범이 되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주형 동문은 총동회장을 동국학원의 이사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으로 이용하고 있고, 학교의 각종 이권 문제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총 동창회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유화하고 이권화하고 있다는 다수 동문들이 우려에 겸허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 유주형 동문은 무리한 정치적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응당 그 자격이 없는 총 동창회장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체 동문사회에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은 흩어져있고, 개별화되어 있는 동문사회의 결속에 힘을 쏟아야 하고, 모교의 발전과 중흥을 위하여 동문 사회의 결속과 지혜를 모으는 일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총 동창회를 대표하여 동국학원재단 이사로써 학교의 관리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면 합리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하여 스스로를 엄하게 단속하여 모범을 보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문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로써의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정 정파와 결탁하여 조계종단의 권위와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추락시킬 목적으로 나 홀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행위는 실로 그 본분을 망각한 수치스러운 행위임을 깊이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 총 동창회와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유주형 동문은 이제 개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유주형 동문은 1999년 동국학원 이사에 연임 할 당시 총동창회 회장단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번만 하고 다시는 안하겠다고 공언 한 바도 있습니다.

일찍이 총 동창회 내에서도 전체 동문 사회를 이끌어갈 자질과 역량, 그리고 개인적 품성에서조차 그 자격이 의문시되는 유주형 동문을 총동창회장과 동국학원 이사로까지 만든 것은 동국대학의 모든 동문들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선임된 유주형 동문이 본분을 망각하고 총 동창회를 사유화하여 동국학원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무리한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사실은 실로 현 총 동창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총 동창회가 처하고 있는 실로 서글프고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전체 동문사회의 단합과 발전, 그리고 치열한 경쟁속에서 계속하여 도약하여야 하는 모교를 위하여 유주형 동문은 총 동창회장의 사임과 차기 동국학원 이사 선임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함을 다수의 동문을 대표하여 결의하고 이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국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청렴하고 신망 있는 재가인사를 이사후보로 추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 합니다.

2003년 9월 19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와 동국학원 발전을 바라는 뜻을 같이 하는
동국대학교 총 동창회 전임 부회장 · 동문 일동

한국 선문화학회 발족

10월 4일 창립총회 … 첫 학술대회도

선(禪)문화와 생활의 접목을 통해 시대사상을 정립하고 현대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한국선문화학회(가칭)'가 창립된다. 142명이 발기위원으로 참여한 한국선문화학회는 10월 4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창립총회 및 제1차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선문화학회는 월례 · 정기 학술발표회, 하 · 동계 워크숍, 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등 선학과 선 문화 발전을 위한 활동을 통해 선학 이론 정리 및 재조명, 선을 통한 현대적 제 문제의 극복방안 제시, 현대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선문화의 연구와 발표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철학 · 사학 · 물리학 · 의학 등 참여영역 광범

선과 생활접목 · 학제간 연구 활발히 추진

이날 개최될 제1차 학술발표회에서는 '한국 선학연구의 현황과 과제'(이덕진 창원대 교수), '한국 수행문화 현황과 전망'(문을식 동국대 강사)이 발표돼, 선과 수행문화에 대한 현황 연구를 시작으로 학회 활동의 첫발을 내디딘다.

11월 1일 2차 학술대회는 '선과 정신치료', 12월 6일 있을 3차 학술대회는 '선과 예술'을 주제로 해, 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들에 대한 선적인 접근을 시도 한다.

한국선문화학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상임고문으로, 종호스님(동국대 교수), 정기문(강원대), 양형진(고려대), 김방룡(원광대), 박영록(충주대), 박영재(서강대), 이덕진(창원전문대), 이종철(정신문화연구원), 임병권(대전대), 차차석(현대불교신문 상임논설위원) 씨 등이 주축을 이뤄 창립 준비를 해왔다.

한국선문화학회의 특이점은 참가학자들의 전공이 선학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철학, 사학, 중문학, 국문학, 신문방송학, 물리학, 의학 등 전공이 다양하다. 이에 관해 이덕진 교수는 "전공은 다르지만 선에 대한 관심, 선 연구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그 만큼 많다는 의미이며 선학의 영역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선문화학회는 학문적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학회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한국선문화학회는 '선'을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학회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종호 스님은 "선학을 기본으로 선과 생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선 문화를 재정립하고 학제 간 연구를 활발히 해 각계각층의 모든 이에게 선적인 삶의 형태와 정신문화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향후에는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해 국내외 선학 교류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봉정사 극락전 보수후 측배면 전경.

봉정사 극락전 보수불사 회향

2년여 공사, 문제된 기둥 국산 육송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이 최근 해체보수 불사를 완료함에 따라 다시 법당에 목탁소리가 울리고 불자들의 참배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봉정사 극락전은 건물이 기울고 금이 가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생겨 지난 2001년 10월부터 보수에 들어가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9월 9일 회향했다. 극락전은 또,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문화재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기술위원단의 자문을 구하는 등 매 공정마다 완벽을 기했다.

특히 봉정사 극락전은 지난 72년 보수 때 기둥에 외국산 낙엽송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기둥을 국내산 육송으로 전면 교체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태고 보우 스님의 원융사상의 핵심인 신 · 비 · 시 · 지가 전쟁을 막고 세계평화를 구현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22일 태고학회가 개최한 태고사상연구 제6차 학술발표회에서 김영덕(위덕대) 교수는 태고의 원융사상에서 신(信), 비(悲), 시(施), 지(智)가 세계평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인류가 존엄하며 모든 국가는 평화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믿음을 갖고 상호 평화구현을 위해 노력 △동류상친이므로 동체대비하다는 연기에 바탕 한 무한한 자비행을 전개 △고통받는 국가에 대해 전 세계적인 안목에서 도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세계, 베푸는 삶에 좀더 높은 가치를 두는 윤리를 바탕으로 그 방편을 지혜롭게 전개하는 것이 태고 사상의 신 · 비 · 시 · 지 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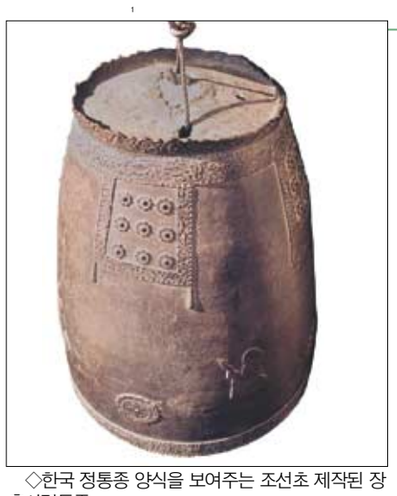
원융사상의 신 · 비 · 시 · 지 세계평화 구현에 큰 도움

김영덕 위덕대 교수 논문발표

김 교수는 논문에서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탐진치에 의해 전쟁은 발발하는 것이다"며 "더욱 구하고자 하는 탐심과 전쟁의 과보를 알지 못하는 치심이 어우러져 일으키는 거대한 고의 향연이 전쟁이다"라고 불교적 관점에서 전쟁을 정의한다. 김 교수는 <범망경>과 <우바색계경>을 예로 들며 "석존의 기본입장은 전쟁을 피하고, 참여하지 말 것이며 부득이하게 정법을 수호하는 전쟁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태고의 원융사상은 이라크 전쟁이나 긴장 속의 남북 상황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지극히 근본적인 논의를 통해 세계평화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며 태고사상의 가치를 평가했다.

오유진 기자



◇한국 정통종 양식을 보여주는 조선초 제작된 장흥사명동종.

고려후기 범종에 중국양식 혼합 조선초 새로운 형태로 자리매김

최응천 춘천박물관장, 전환기 미술 조명

흔히 역사가들은 역사연구의 종착역은 '시대구분'에 있다고 말한다. 시대구분이 종착역이라면 시대와 시대를 이어주는 역사의 전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22일 한국불교미술사학회(회장 문명대)가 주최한 제8회 학술대회 '고려후기 전환기의 미술'은 고려의 귀족문화와 조선의 서민문화를 잇는 전환기 미술의 의미를 살펴보는 자리였다. 당시의 미술을 도자, 금속공예, 석탑, 건축, 조각, 회화, 불화 등으로 구분해 삼국~통일신라, 통일신라~고려로의 전환기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고려~조선으로의 전환기 미술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발표 가운데 최응천(국립춘천박물관) 관장은 '고려후기 금속공예'을 통해 "범종, 사리구, 금강저, 금강령 등이 원의 지배, 장인사회의 피폐, 전통의 단절이라는 불안정한 시기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외래적 자극에 힘입어 분야별로 나름대로의 중흥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최 관장은 "특히 범종은 원나라 장인에 의해 제작된 연복사종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범종 양식은 큰 변화를 맞는다"며 "이는 이후 제작되는 조선 초기 종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고려 후기의 종은 중국종의 영향에서 한국 전통양식이 혼합되어 새로운 조선시대 종으로 정착을 이루어 나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전통종 양식이 조선초기까지 계승된 점은 조선 중기 이후 중국종과의 혼합을 이룬 혼합형종과 전통형종을 고수한 두 가지 범종양식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려 후기 전환기 범종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했다.

오유진 기자

※기사 넘쳐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미술의 美'는 쉽니다.

새해 부처님의 세상, 불국토 달력은 가야기획에서 만듭니다.

- 가야기획 두손모음 -



※본 카렌다는 9월말까지 300이상 주문하시는 모든 사찰에 무료증정합니다. (차량용 미널러는 제외)


201호 (大 · 小)


202호 (大 · 小)



203호 (大 · 小)



205호 (大 · 小)



206호 (大 · 小)


209호 (大 · 小)


211호 (大 · 小)



212호 (大 · 小)


217호 (大 · 小)


219호 (大 · 小)

가야기획 카렌다 주문은 아래 불교용품점으로...

서울지역 전화번호
견지불교사 02-739-3032
관음손불교사 02-720-1147
금덕만물사 02-354-7954
구파발불교만물 02-965-2820
금정불교사 02-495-8184
김상원 02-722-4435
대성불교사 02-965-9118
대조불교사 02-353-0956
동일불교사 02-722-9195
불교서적사 02-732-8086
불서보급사 02-732-2829
상륜사 02-394-9990
상계만물 02-936-00639
상계일월만물 02-937-7687
상계중앙만물 02-934-1170
성불사 02-732-3543
승광불교사 02-491-5336
신양불교사 02-734-6331
신재불교사 02-442-2862
연화사 02-733-7689
우리스님용품전시관 02-336-2165
생아불교사 02-725-0045
정오불교사 02-383-4399
종합불교사 02-856-7500
중화만물 02-433-5657
진성불교사 02-382-8216
천호불교용품만원점 02-483-9368
태극만물 02-2208-5059
태성불교사 02-732-7375
태조불교만물 02-375-8881
화진불교사 02-382-3408

부산지역 전화번호
고려불교전시 관 051-807-6842
대광불교사 051-205-1785
범어원 051-632-1470
부산백광기획 051-868-8518
부산영도불교 051-412-3423
태림불교예술원 051-515-5834
한결불교 051-412-8147
해동불교사 051-337-6366

대구지역 전화번호
보현 053-252-7005
삼정불교사 053-427-8551
적선사 053-255-8875
칠성불교사 053-427-7359
해정불교서점 053-425-0108
함물 053-623-1430

인천지역 전화번호
강화불교사 032-933-0647
극동만물 032-765-0413
대성불교전시관 032-877-1960
부평만물 032-527-8594
세종만물사 032-521-8256
옹현고려만물 032-884-5055
인천불교서적 032-773-9036
제일불교만물사 032-505-3861
종로만물사 032-516-8434
태극만물 032-883-1339
창암만물 032-583-0057
한양만물사 032-504-0373
현대만물 032-762-9381
황해만물 032-761-6980

광주지역 전화번호
금주영대불교 062-269-2534
김천유기 062-389-4848
대산만물사 062-225-1211
한연유기 062-226-7786
선우 062-226-3056
춘향불교만물 062-226-6033
화동불교 062-224-6696

대전지역 전화번호
계룡민속만물사 042-271-2325
고려불교사 042-221-0885
대구승복사 042-254-8776
백제불교사 042-253-9907
보문불교 042-257-0161
보승종합불교사 042-282-3019
보현불교사 042-257-8762
유성반야불교사 042-822-2356
유성불교사 042-822-3133
중앙불교 042-222-7840
천지불교사 042-623-3358
해조불교사 042-253-2225
황금불교사 042-285-5959

울산지역 전화번호
인광불교전시 관 052-264-2632
울산중앙불교사 052-211-1770

강원지역 전화번호
관음불교사 033-642-8680
관음불교사 033-532-3754
광명불교만물 033-631-7907
대성만물사 033-243-8070
동해불교 033-643-4058
마하불교사 033-434-8446
보성만물 033-552-5323
복룡불교사 033-521-3070
삼척천상불교 033-574-0606
성심불교사 033-742-3745
소양만물 033-253-9119
양고래불교용품전시관 033-671-7111
여래불교사 033-632-9004
염불불교사 033-373-3374
원주불교사 033-761-2790
횡성불교사 033-344-0937

경기지역 전화번호
경안불교사 031-761-6156
고려불교사 031-652-1978
광명영흥불교 02-2060-5665
구리관음불교 031-552-4640
구리불교용품 031-563-7554
대원만물 031-641-5641
대진불교 031-865-8520
동방불교사 031-844-9652
동두천불교사 031-865-6284
동두천시장만물 031-863-1504
하석대유당 031-594-3580
명호불교사 031-883-2756
모란불교사 031-722-3834
부천만물 032-656-0355
삼보불교 031-856-1020
삼불불교용품백화점 031-765-9655
성원만물 031-336-0337
성호만물 031-747-7523
성남불교만물 031-756-0737
수정불교사 031-754-3256
안산만물사 031-401-0900
안성불교사 031-675-6063
양평불교 031-771-4747
연화불교사 031-233-1581
원미불교 032-656-8552
의정부불교 031-842-8671
이천고려만물 031-633-6023
일산불교사 031-976-0888
자선불교 031-846-3990
중앙고려만물 031-751-0811
하남신장만물 031-793-6139

충북지역 전화번호
무심천불교사 043-274-0880
백호만물 043-843-6724
불교만물사 043-253-4728
영남유기 043-851-5124
옥거리불교사 043-250-2525
장호원대원 031-641-5641
장수만물 043-276-3347
제일불교전시관 043-845-9696
제천불교사 043-645-7517
청풍불교사 043-250-9090

충남지역 전화번호
고려만물 041-562-5952
공주현대불교 041-856-1135
광천만물사 041-641-2073
금강불교사 041-551-1235
금산불교사 041-754-8892
대주불교만물사 041-753-9996
대천불교백화점 041-931-1491
백제불교사 041-855-5621
서산만물사 041-665-5136
연희불교 041-736-4163
일오불교백화점 041-865-1539
충남불교사 041-557-3360
현무불교사 041-865-0549
홍주불교만물 041-634-7727
예산불교만물사 041-631-6441

전라지역 전화번호
군산고려불교사 063-445-0650
군산장수불교사 063-443-1466
금성만물 061-242-9323
김제불교사 063-544-8000
남원불교사 063-625-0234
대원불교사 061-743-6755
삼례만상 061-333-8488
여수이화불교사 061-643-7533
이리유기 063-855-3883
전주관음불교사 063-282-4070
현대불교사 063-255-2274

경북지역 전화번호
경동불교전시관 054-772-6548
경주불교서점 054-749-1580
구미대중 054-455-1058
구미불교사 054-453-3077
서라벌불교 054-741-1765
신라유기 054-771-2657
안동만물사 054-854-1974
안동현화불교사 054-853-6269
영주불교삼화 054-631-2248
예천불교사 054-654-1798
오복불교사 054-433-4051
자비사 054-455-6656
점촌불교만물 054-553-0820
화목불교사 054-458-4485

경남지역 전화번호
김해금강불교 055-337-5170
덕성불교사 055-746-8980
대원불교전시관 052-244-4224
대흥불교사 055-835-4056
마산불교사 055-242-2485
마산불교전시관 055-255-6878
마산여래불교사 055-245-1245
밀양다래원 055-356-4441
밀양불교사 055-355-5742
밀양에덴불교사 055-352-8891
보광불교사 055-835-1516
부용불교 055-352-3753
불교세상 055-741-8423
연합불교사 055-943-2731
우정불교총판 052-243-7721
제일불교 055-741-5832
창녕불교사 055-533-9093
창원경남불교사 055-295-8911
하동불교사 055-884-3790
해동불교사 055-221-1290
혜성불교사 055-288-7998
홍익불교사 055-533-7873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증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49재, 천도재, 생전 예수재, 바라춤, 나비춤 등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하신 곳은 연락주십시오
011-9209-5691
051-265-5692
범음범패, 제의식, 염불, 바라춤, 나비춤 배우실 스님 연락주십시오

부전 스님 모십니다
▷ 창 원
011-735-8887

부전 스님 구 함
▷ 조계종 비구니 스님
055-552-5111

비구니 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 의상봉 북한산성 입구
02-387-3216

함께 기도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울 산
052-251-0410
011-845-8673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부전 스님 모십니다
(비 구)
055-385-4111

남은 여생 즐겁게 같이 살분 찾음
생활에 여유가 있고
마음이 너그러운 분 원함
같은 불자면서 이끌어줄 분
고향이 이북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본인 만58세인 여자입니다
011-1714-7817

여 50세
배우자 원함
같은 불자를 원합니다
02)468-9468

천년관음기도도량
▷ 포항 자장암
공양주 보살님모십니다
011)584-0888

전통 의식 행사에 스님 필요하신 곳
- 전통의식 각종 행사
- 천도재, 시식, 다비의식
- 기타 불공 등
02-939-3327
범음,범패, 제의식, 바라춤, 나비춤, 염불 배우실 학인모집中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역착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천도재, 점안식,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탈종(사찰등록) 공고

· 사찰명 : 혜능암 · 주지 : 원각
· 주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28번지
본인의 건강악화 사유로 위 암자가 매각되었기에
사찰 등록 탈종을 공고합니다
불기 2547년9월 2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위장약을 불자님들께 원가에 드립니다

소화,복만,위장, 설사, 하복통, 구역질,
소화 계통 일절,오래된 위장병 자신 있음
1개월분 5만원 대도한의원
011-392-4984

비구니 스님만 보세요

1. 사정상 병원을 못 가시는 스님
2. 병원에서도 병이 잘 낫지 않는 스님
3. 자유 정진 하실 스님
4. 걸망을 풀고 편히 쉴 곳이 없는 스님
5. 매월 보시 지급합니다

서울 불광동 북한산하 심우선원
02-357-8090 / 011-9870-5060

무 료 강 좌 안 내

■ 장애인 협회 협찬으로 다음과 같이 무료강좌를 실시합니다 ■

▶ 과목
(1)침술학-매주 토요일 13:00~17:00
(2)명리학-매주 토요일 10:00~12:00
▶ 개강일정 : 2003.10. 4 (토요일 부터)
▶ 대상 : 3-6급 장애인(성별,연령제한없음)
※ 수강당일 장애인 증명서 지참할 것
▶ 교재 : 개별 구입
▶ 수강신청 : 선착순 15명 (전화신청 불가)

사암침술학회 011-307-2975. 02)355-8312

- 난치병 치료 -
몸도 마음도 너무 아프다
디스크,관절염,당뇨,간질환,두통,
우울증,화병,불면증,신(神)병,
원인모를병 기타 불치병
사업실패, 가정불화등으로
마음의 병을 얻으신 분
상담합니다
천지사포교원 02)2051-5549

계룡산 정통좌경 법사 수강생 모집

◆ 지도 과목 ◆
① 청 ⑤ 선거리장단
② 고장(장단) ⑥ 대금(피리)
③ 문서(경문) ⑦ 아쟁
④ 설경 ⑧ 판소리 및 북장단

◆ 정통 국악인 선생 직접 지도 ◆
· 판소리 전국대회 입상(부산)
· 판소리 전국대회 금상(서울)
· 국악 지도자상 수상
· (사)한국 국악협회 공로상 수상
· 국악신문 감사패 수상

◆ 수련장:경남창원시 청병산(경남도청 뒤)
지산국악예술학당 055)264-8269. 011-864-8269

오산 선생의 사주학 비결 강좌



♠ 핵심강의내용:
-용신을 확실하게 잡을수있는 비결
-사주구조의 좋고나쁨 판별 비결
-육친분석 및 대.세운 해석 통변술
♠ 3개월 완성 수강료: W820,000원
(오산선생의 명리학 비결 교재대 포함)
♠ 매주 2회 수강/오전, 오후, 저녁반
♠ 수강신청:수시접수
오산팔자심리학 연구소
(2호선 대림역에서 도보 10분거리)
(02) 831-0055/011-208-0051
www.sazoopalza.com

눈

안구 건조, 눈물, 충혈, 피로, 눈곱, 눈부심, 희미함
이물감, 시력 저하, 시신경 개선,활성산소 제거
다른 질병으로 눈이 나빠진 분, 눈 수술전후 회복
불자, 학생, 직장인, 윤등선수등 눈을 많이 쓰는 분

일본특허 : 2790212 식약청 HSK : 2106909099
미국특허 : 5382714 상표출원 : 2002-5278069-80
주문상담:눈밝은세상(02)2237-8004
인터넷주소 : 눈밝은세상(한글로 5자만 치세요)
제조원 : 日本(주)MERCURY-MK(완제품 수입)



전국지사 대리점모집

지장왕보살 조성불사

귀 삼보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항상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장보살님 광명이 비치는 곳에는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지장보살님 그림자가 미치는 곳에는 천마와 애로가 자취를 감추고 모든 재앙이 즉시 소멸되며 만복이 운집합니다. 물질문명이 최고도 발달한 대신 정신문명이 침체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지장보살님 자비광명을 받아 정신문화를 개발하고 사회안녕과 세계평화를 구축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에 한사람이 한분의 지장보살님을 모셔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도록 하는 조성불사를 봉행코저 하오니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두루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일생은 잠시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금심에 사는 것에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지리산 해발 700m 법성사(구 관용사) 기원불사에 참여하시어 금생에 행복한 생활은 물론 내생에 극락가실 인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대원본정 지장왕보살마살
아래구좌로 입금 7만원 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전화로 알려주세요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산 286-13
법성사(구 관용사) 종무소 주지실 017)855-7327
매일 기도 10시 시작합니다
약도와 시간표 : 진주 4번코스 (덕산-내대) 09: 20, 오후 1:30
덕산에서 택시비 1만5천원. 최기사 011)880-9380
농협)835013-51-020780 (예금주 관용사)

다 슬 기

지방간 · 간경화 · 눈의출혈 · 신장



● 특 징
강원도 동강인근의 맑은 물에서 채취한 다슬기만 선별하였습니다.
전통적 항아리 제조법으로 다슬기 자체의 냄새를 최소화하여 다슬기 자체의 성분을 유지

<항아리에서 직접내린 다슬기>

※ 직접 방문 환영합니다.
033)747-4830 치악산 유정암

화상방지용 전통 氣항아리 부황

■ 실용실안출원등록 (03-21028) ■



⊙ 화상방지 부황단면도 ⊙



⊙ 부황관자 SET ⊙

⊙ 제품 특징 ⊙
▶ 본제품은 전통항아리 부항의 단점 인화상의 문제점을 보완. 화상방지용 특수관자로 제작 되어 부항시술시 화상을 입지 않고 안전함
▶ 氣 제품으로 특수 제작되어 수맥 및 전자파를 차단하고 몸 안에 독소를 흡착시키는 효과가 뛰어나 혈액순환과 내장기능 운동을 활성화 시켜 진정 이완 · 반사 · 교정 · 효과를 극대화 시킴
▶ 현재 전국 유명 찜질방과 사우나 등에서 성황리 판매 영업중 으로 소자본 으로 창업하여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 유망직종으로 전문샵을 운영할 분 에게는 통증완화 알콜 숙성 방법등 부항요법 무료교육

키히로힐링아카데미 cdhk0514@hanmail.net
031)792-8444. 011-9954-9534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 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인근(섬)
● 대지 : 100평
● 법당 : 30평(한옥기와)
● 요사채 : 17평
● 가액 : 1억8천만원
※ 불심 깊은 곳(운영 잘됨)
011)9677-2724

사찰 안내

● 위치 : 중구 신당동 대로변 역 1분
● 중앙시장 입구 요지
● 3층중 3층. 2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700만원
※ 포교에 따른 비법 전수
02)2235-2219
011)9150-228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읍 7분거리
● 대지 150평, 요사채 25평
● 법당(목조토기와) 11평
● 교통 편리. 도로 접
● 가액 ; 1억 5천만원
016)652-7547

포교당 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 암사전철역부근 대로변
● 법당 33평, 방1, 넓은 옥상에 방3, 공양간
● 삼존불 모셔져 있슴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매매
● 보증금 5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1600만원
02)481-3635
011)714-3635

토굴 별장 펜션 안내

● 위치 : 남 덕유산 자락
● 부지 : 1,631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가액 : 5억3천만원(대출 가능)
● 특징 : 맑은 개울과 집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주인 직접 살고 관리해 옴
016)367-211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논산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713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대구
● 법당 : 13평
● 요사 : 40평
● 부지 : 513평
● 가액 : 1억8천

● 위치 : 경북포항
● 법당 : 17평
● 요사 : 90평
● 부지 : 1,100평
● 가액 : 6억5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포교당 안내

● 위치 : 동서울터미널 부근 아파트단지 강쪽
● 최고시설, 포교원사용하실분 찾음
● 보증금 2천5백만원(절충 가능)
● 법당, 방, 주방, 욕실, 화장실
02)2291-0796
019)9108-090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대로변
● 사정상 급매
●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 권리금 1천만원
053)566-8203
011)9850-820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시 최고 요지
● 4층 건물 중 3층. 80평
● 법당 30평, 방4, 공양방1, 목욕탕, 실내화장실
● 보증금포함 5천만원, 월 80만원
● 스님 직접 통화함
※ 스님사정으로 인계함
011)9642-1202
032)546-4121

포교원 안내

● 일산신도시, 주엽전철역 150m
● 25평. 방1. 3층건물에 3층
● 시설 A급.
삼존불,후불,신중,산신탱화
● 바닥은 전기온돌판넬
● 철학관으로 적합
● 2천, 7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31)907-0603

사찰부지 안내

● 서울 근교(강남 45분거리)
● 부지 : 1500평(1,000평 종교부지 허가)
● 산세수려, 수목울창
● 양쪽에 계곡을 끼고 있음
● 교통편리, 도로 인접
● 서울 근교중 최고의 명당터
● 가액 : 5억5천만원
017)438-3377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 가평
● 대 지 : 1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46평
● 가 액 : 1억8천

● 위 치 : 서울
● 대 지 : 25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5평
● 가 액 : 1억매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 선산읍 부근
●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 부지 : 350평(국유지 100평) 총합계 450평
● 가액 : 8천만원
011)540-3313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시설 일체
● 가액 : 3억 5천만원
011)226-2880

사찰 안내

● 노원구 수락산 부근
● 당고개역 3분거리
● 부지 : 약 340평
● 건물 : 40평
● 법당 따로
● 가액 : 3억 2천만원
016)274-3338

사찰 · 수련원 안내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서울에서 1시간 10분 소요)
● 전 3351평→통나무 청기와 주택 25평 1채
● 가용면적 2천평 추가(총 5500평)
● 배산임수(국유림과 밤나무숲 그리고 개울)
● 4차선 계곡물 따라 5km (아스팔트 포장도로)
● 가액 : 4억 5천만원(급매)
031)771-7110/011)531-556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 법당 20평. 산신각, 용왕각
● 요사 20평. 승방1, 약수물 풍부. 백년고찰
● 가액 : 1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8)555-5733

주5일 근무제

일터신행 '코드'가 바뀐다



그림 · 심민섭

일터 불심이 '주5일 근무제'에 신행 코드를 맞추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는 주5일 근무제가 직장불자회 신행 패턴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고 있다. '가족 • 소모임' 단위의 신행활동 보편화, 사회봉사활동 정례화 등 변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본격적인 '5일 근무, 2일 휴무'의 시대. 직장불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정기법회 주단위 봉행
'가족 · 소모임' 신행 전환
사회봉사활동 정례화
성지순례 선택폭 넓혀

▼신행활동 내실화

주5일 근무제를 처음 시행하고 있는 금융계.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는 시간적 여유가 늘어나면서 신행활동 내실다지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간 간헐적으로 벌여온 자원봉사 활동을 정례화 하는 한편, 정기법회의 주기도 주 단위로 좁힐 계획이다. 또 지리적 · 시간적 제약으로 선택의 폭이 쉽지 않았던 성지순례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직장불자회의 신행활동 강화 현상으로,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은행 불자회는 부정기적으로 전개해온 자원봉사활동을 매달 한 차례씩 한다. 지난 99년부터 강원 소쩍새마을 및 파주 노인요양원 진인선원 방문, 소년 · 소녀가장 자매결연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온 우리은행 불자회는 주5일 근무제 시행이후, 올 8월부터 서울 장애아 복지시설 상락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도 오는 2005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주5일 근무제에 발맞춰 올 10월 하순에 '사회봉사의 날'을 제정한다. 방식은 전국 205개 단위 기관불자회의 봉사활동을 일정기간에 집중하면서 대사회적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족 • 소모임 단위' 신행활동, 보편화

주5일 근무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찰 · 소방 · 교정 등의 외근 직종과 철도 · 체신 등의 직장불자회는 신행활동을 가족 및 소모임 단위로 전환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이들 기관의 불자회가 교대제 근무 형태로 주5일 근무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업무 특성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직장불자회 내 소모임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 단위 신행을 이끌고 있는 불자회는 철도청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월성원자력본부 반야회, 울진원자력본부 문수회 등이 있다. 특히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가족들로 구성된 승만부인회는 지난 2000년 결성 이후 소년소녀가장 후원, 철도안전운행 캠페인, 환경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등 모범적인 가족신행을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소모임 활동도 눈에 띈다. 서울 도봉경찰서 불교회는 지난 2000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신, 신체, 물질, 시간 등을 5% 나누자는 취지로 '좋은 사람들'이란 봉사 모임을 조직, 매달 점심시간을 쪼개 인근 복지시설에서 'Give-5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대전 대덕연구단지 불자연합회는 올해부터 경전연구회를 결성, 회원들의 연구 분야와 연계한 신행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인천중부署불자회 내달 출범

28일 창립법회 … 준비위장 이판열 과장

인천중부경찰서 불자회가 창립된다.

불자회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립준비위)는 최근 경찰서 내 경승실에서 창립발기인 모임을 갖고, 오는 10월 28일 총회를 겸한 창립법회를 경찰서 대강당에서 봉행하기로 결의했다. 5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이날 모임에서는 창립준비위원장에 이판열 수사과장을, 실무위원에 형사과 김긍배, 경무과 조창배 씨를 각각 선임했다.

창립준비위는 올 9월부터 경찰서 내 불자현황파악을 착수, 20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또 경승실장에는 인천 구양사 주지 능화 스님을 위촉하고, 불교회 정관을 마련하는 등 창립을 위한 본격적인 체계를 갖췄다.

창립준비위는 곧바로 매달 두 차례의 정기법회는 물론 불교기초교리강좌 개설, 관내 10여 곳의 전통사찰 순례법회 봉행 등의 신행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사찰의 신도합창단을 초청, 찬불가 배우기 등의 문화강좌도 마련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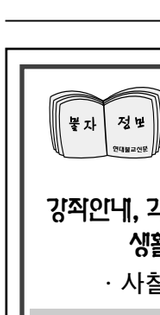
김철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창립 3주년 기념법회 봉행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 사진)는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창립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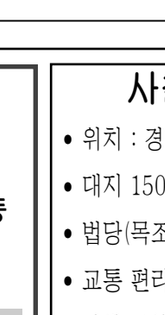
한산사서 합동법회 가져

경남 마산시청 공무원불자회(회장 박일준 • 사진)는 9월 21일 통영 한산사에서 경남도청불자회와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신임회장에 임창홍 씨 추대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서울 · 경기지부는 8월 28일 임원회의에서 신임 회장에 임창홍(사진) 분당 아탑고등학교 교사를 추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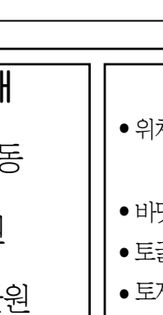
소보원 법우회 수계법회 열어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회장 노영화 • 사진)는 10월 5일 오후 2시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송담 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무원 스님을 경승으로 위촉

인천국제공항 경찰대 불교회(회장 전인배 • 사진)는 26일 공항 내 경승실에서 인천 황룡사 주지 무원 스님의 경승 위촉식을 봉행한다.



21일 가을 합동법회

한국언론인불자연합회(회장 김진평 • 사진)는 21일 서울 여의도포교원에서 가을 합동법회를 열고 여의도포교원 주지 현진스님에게 법문을 들었다.

우리불자회는요

원주경찰서불자회

우리 강원 원주경찰서 불자회는 국민의 지팡이이자 부처님 제자들이 모인 신행 단체입니다. 흔히들 '경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경계의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불자회를 접하게 되면, 단번에 경직된 분위기와 거리감은 단번에 사라질 겁니다.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우리 불자회는 경찰관, 전 · 의경, 고용 기능직 등 원주경찰서에서 함께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참다운 보살행을 실천하는 경찰보살들이기 때문입니다.

창립은 지난 2001년 5월에 했습니다. 22명의 회원들이 뭉쳐 첫 법회를 서내 경승실에서 봉행했습니다. 그때의 환희심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 왕성한 신행활동을 해왔습니다.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경승실에서 지역 경승위원 스님들을 모시고, 정기법회를 꾸준히 열어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불자회는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적멸보궁을 비롯해 대구 동화사, 갓바위, 예산 수덕사, 부산 범어사, 양산 통도사, 경주 불국사 등 전국의 명산대찰을 찾아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대한민국경찰불교회 활동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민국경찰불교회 창립법회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2002년 7월 강원지방경찰청 불자회와 함께 오대산 월정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자랑거리는 또 있습니다. 불자들이 불교교리를 체계적으로 우기 위해 치악산 구룡사 원주대학에 진학해 신심을 키워가고 습니다. 벌써 졸업한 회원들만 여 명이 넘습니다. 이것도 모자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 응시에 사 품수를 받은 회원들도 있습니

사실 그간 불자회가 걸어온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2001년 10월 경승실에 부처님을 안했던 것을 원주 지역 개신교 와 신도 3천여 명이 불상 철거를 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어 적지 몸싸움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금은 원만히 해결돼 우리 불자 55명의 회원들이 중심이 돼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

앞으로 우리 불자회는 부처님 지혜를 등불삼아 일상생활과 에서도 항상 정진하는 자세로 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별 성지 순례법회를 격주로 봉행하는 것은 물론, 소쩍새마을 등을 문,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찰불자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전 · 의경포교에도 서 미래 불교의 주인공인 청년 자를 키워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매월 전 · 의경 생일자를 해 조그마한 선물이라고 전해주고 합니다.

■전승호 기

법회 · 성지순례 · 불교대학진학 등 신행
미래불교주역될 청년불자 육성에 주력



◇원주경찰서 불자회원들이 지난 2003년 4월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 대한민국경찰불교회 춘계 수련회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대한민국경찰불교회장 김중겸 경찰청 수사국장(왼쪽에서 네 번 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읍 7분거리
• 대지 150평, 요사채 25평
• 법당(목조토기와) 11평
• 교통 편리. 도로 접
• 가액 : 1억 5천만원(절충가능)
016)652-754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전세 : 1천만원
• 물품비 : 1천만원
011)839-4165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고흥군 배서면 안남리 752-1 약천사
• 바닷가 전망 좋음
• 토굴 30평. 부처님 조성
• 토지 700평, 전세 2천만원
051)754-1055
016)614-873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건천
• 부지 : 2천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 산세좋은 암자임
011)530-1975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김천, 상주에서 20분 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천3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1)462-5275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노원구 (지하철역 200m)
• 대지 : 70평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5억8천(융자가능)
※ 역사 오래된 도심 포교사찰임
• 위치 : 인천 부평 소재
• 부지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양도가 : 3억
※ 뒤는 산이며 역사 80년된 고찰로써 교통의 요지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포항 월포, 칠포해수욕장중간
• 대지 : 약 80평. 1층 22평, 2층 32평
• 별장형 법당, 조립식 15평,
• 샤워장, 화장실 4개
• 심야전기, 주차무한대
• 특징 : 스님 노후나 휴양처로 최고. 조용한 바닷가
• 가액 : 2억
011)9372-5977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400평
• 임야 : 2000평
• 가액 : 9억원
※ 소개업자 일체 사절
011)9338-2993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 대지 : 150평, 밭 250평
• 임법당 1채, 요사채 2채
• 가액 : 1억 2천만원
055)585-2392

암자 안내
• 위치 : 칠곡군 구미시 중간지점
• 임법당 20평. 연꽃연못
• 100평정원 밭 200평. 합 320평
• 옆산 사용가능 2천평
• 가액 : 9천 500만원
017)813-9126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부지 : 사용평수 2백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방3개, 주방1개, 5층석탑
• 바위불상, 다수 민속품으로 경내조성
• 환산의 지기가 집중된 명당터로 270여호마을소재. 옥천 톨게이트 및 대전 국도접 2~3분
• 가액 : 1억 3천만원
043)733-8186/011)9405-8186

사찰(토굴)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 부지 : 21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150평
• 가액 : 8억2천
• 위치 : 대구광역시
• 부지 : 20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4억3천
※ 사찰(토굴)양도 · 양수 상담 환영
서방불사 011)9851-5952

산사의 포교당
• 위치 : 서울 구로구 오류동
• 법당 : 20평.
• 삼존불,후불,신중,칠성,산신탱화, 산신 동불
• 요사채 30평 1동, 20평 1동
• 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등산로에 위치. 법회 즉시 가능
• 시유지 500평 점유
• 가액 : 2억5천만원(절충가능)
011)327-5863

인가된 교육기관 안내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40분 거리
• 평수 : 약 375평
• 건물 : 강의실2, 사무실 1
• 특징 : 인가된 3개학과 9개 전공설치
• 기타 :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인가. 92년도 불교대학원과정 교육기관
• 가액 : 매매 2억
011)412-8040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마을에 인접해 있는 사찰로써
• 자연녹지 임야 2천평
• 사찰년도 70년. 인지도, 지명도 확실
• 요사채,법당-기와골조 현대식 25평
• 산신각 10평, 독립 요사채 5평
• 종각 2평. 2차선도로 인접,주차장 40평
• 가액 : 3억 2천만원(절충가능)
011)565-121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김해에서 20분
• 임야 32,000평
• 종교 부지 1600평
• 법당, 요사, 산신각
• 가액 : 3억 8천만원
016)9422-800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천시 원미동 전철 10분거리
• 상가건물 5층. 2층 독채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권리금 9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32)612-6917
016)368-6917

목어

청계천 복원의 교훈



성태용
본지 논설위원
건국대 교수

청계천, 맑은 계류가 흐르는 냇물이라는 뜻의 이름일 것이다. 그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삭막한 콘크리트의 고가도로에 쉴 새 없는 차량의 행렬이 흐르는 그러한 거리로 우리 뇌리에 박혀있는 이름이 되었다. 청계천으로 보아선 너무도 억울한 일일 것이다. 이제 그러한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해원되는 것인가? 청계천 복원 계획이 발표되고, 정말 맑은 계류가 시내 한복판을 흐르는 그러한 서울을 그리는 이들의 꿈이 푸른 하늘처럼 펼쳐진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대한 비용과 공사 과정의 교통대란에 대한 염려의 구름이 그 한켠을 차지하고, 대책없는 철거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이 그림에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가리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그리는 청계천 복원의 그림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조심에 조심을 다해야 한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 이제는 정말 몇 사람의 뜻에 의해 후다닥 해치웠다가 두고 두고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면 요즈음도 우리는 앞날에 또 복원해야 하는 청계천 복개 공사 같은 것을 여기 저기서 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새만금이 그렇고, 대형 댐 공사 같은 것도 그런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과거에 지은 업을 단칼에 자르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더 나쁜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이기에, 조심해서 매듭을 잘 풀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큰 방향에 대한 헛갈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장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은 옳지만, 그것이 지나쳐 잘못된 방향을 옳은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에 이르면, 이를 일러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하는 것이리라.

네티즌, 고 정몽헌 회장 49재 추모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49재를 촛불 추모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정몽헌회장 추모카페(cafe.daum.net/monghun)'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기반을 마련한 정 회장의 넋을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위로할 예정"이라며 9월 21일 서울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49재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네티즌들이 불교의식인 49재를 촛불 추모식으로 진행하는 데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장군죽비

얌체 낚시꾼 "해도 너무한다"

'남이야 어찌 되든 나만 즐기면 된다?' 제14호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양식어장 주변에서 고기를 잡는 얌체 낚시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예 부서진 양식장 위에 올라가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다. 또 이들이 주차한 차 때문에 복구작업 마저 방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못한 해양경찰이 자제를 촉구하는 방송을 하고 있지만 낚시꾼들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불자 세상보기



김병관
아주대 교수, 사회학

합리적인 권위

권력은 타인이나 타집단의 의지에 반하여 제약이나 강제를 행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 권위는 사람들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권력을 지칭하며, 따라서 사람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수반한다.

근자에 우리사회의 위기감은 위험수위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 현대사에서 사회적 위기감이 높지 않았던 때가 얼마나 있었으랴만은, 최근의 위기감은 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의 재현에 대한 우려와 겹치면서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관론적 전망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번 망가져봐야 해.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을거야"라는 자조적 농담이 많은 이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만큼 사회 시스템에 대한 우리 자신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현실은 어렵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희망도 불가능한 상황이니 갑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전부 자기 주장만 나올 수 밖에.

사태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선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하나의 파동을 그린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늘 좋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안 좋을 때에 이를 잘 관리하고 빨리 되살아날 수 있는 끈기와 탄력을 발휘하는 사회여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없는 것이다. "내 방식대로 하든지, 내 배를 불려주든지, 아니면 다 죽고 말지, 뭐"라는 식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사회 지도층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말은 늘 정답으로 등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인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공직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만 좀 빨리 푸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해법의 일단은 우리 사회의 권위구조를 하루빨리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근본적 원인은 권력 소재의 불분명함도 아니고, 또 정치권의 소모적 내분도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 모두가 서로 타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현 위기상황이 구조적으로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이는 것이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말을 빌면, 권위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조소와 경멸이다. 오늘날 조소와 경멸의 대상이 아닌 권위가 우리 사회에 몇이나 남아 있을까? 정치인, 지식인, 종교인, 언론….

그러나 확고하고 안정된 권위구조의 양적, 질적 존재는 한 사회의 무게중심을 낮고 안정되게 유지하는데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조건이다. 권위의 실종에 의해 무게중심이 붕 떠있어 조그만 충격에도 출렁대는 사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정치권, 언론, 모두 책임이 있지만, 궁극적 해법은 역시 우리 국민의 몫이다. 공동체의식에 기초한 장기적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 국민들에 의해 창출되는 합리적 권위를 세워야 한다.

이처럼 동의에 기반한 합리적 권위구조를 당장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도 권위를 위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닭과 달걀의 딜레마에서 헤맬 수는 없지 않은가. 어디에서부터인가 풀어나가야 한다면, 시기를 놓치기 전에 하루빨리 합리적 권위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우리국민 모두의 합의에 의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 위기의 근원은 권위의 부정과 부재에 있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사찰과 지역공동체'

변화·발전의 중심에 있어야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9월 19일 조계사 불교대학 4강의실에서 '사찰과 지역공동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와 이향천 한생명 운영위원장은 '사찰의 지역사회 활동'과 '실상사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각각 주제 발표했다.
정리=남동우 기자

사찰의 지역사회 활동

전통과 관행 바꾸고 기복신앙 극복 과제



유승무 교수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사찰과 지역사회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세계화 및 지방화가 진행될수록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 될 수록 그리고 시민사회가 성숙할수록, 지역사회의 정치경제적 · 사회문화적 자율성은 확대되고 따라서 지역사회가 사찰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만큼 사찰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도 많아진다.

만약 사찰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회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지역사회활동을 전개해 나가지 못한다면, 그 사찰의 사회적 정당성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며, 이는 포교의 실패와 해당 사찰의 피폐 및 불교의 저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전 세계인을 동일한 사고와 생각으로 몰아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의 압력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불교의 미래는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

사찰의 지역사회활동은 백화점형과 전문점형, 상부상조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백화점형은 2개 이상의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전문점형은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지역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징을 보인다. 상부상조형은 신도 상호간의 친목도모나 상호부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각 사찰은 이론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지역사회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근현대 한국불교의 불안정한 역사와 구성원들의 의식구조 및 신행관행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사찰의 지역사회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전통과 관행이 바뀌어야 하고-종단의 안정과 기복신앙의 극복은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또한 불교인의 의식구조-불교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별개로 사고하는-가 달라져야 한다.

문제는 그러한 전통과 관행, 그리고 의식구조가 저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라도 사찰의 지역사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각 사찰에서 지역사회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활동의 이념과 목표 설정 △객관적 조건 이해 △내부적 조건 정비 등을 유념해야 한다.

실상사의 지역공동체 운동

환경, 생명의식 확산 및 경제활성화 기대



이향천
한생명 운영위원장

남원 실상사 인근(남원시 산내면)에 불교의 현대화와 사찰의 지역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지역공동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단법인 한생명(이사장 도법)과 남원 지역 주민 및 사회단체들이 주체로 진행 중인 지역공동체 운동은 생명과 지역 살리기를 기본 원칙으로, 귀농전문학교가 개교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2013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사업은 크게 △교육 △문화 △복지 △경제 네 부분으로 이뤄졌다. 교육 사업은 현재 실시 중인 한생명 부설 평생교육시설 사회문화교육원과 불교계 최초의 대안중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 지역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학교 외 2004년 1월 1일과 3월 1일 개교 예정인 대안고등학교, 생태유아원 등 유아원부터 성인까지 교육시스템의 일원화를 지향하고 있다. 지리산 생명문화교육단지로 명명된 이 사업을 위해 이미 4만5천여평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문화 사업으로는 봉축행사를 지역문화행사로 연계하는 등 불교문화와 지역문화를 결합하는 사업과 지역발전협의회 조직,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의원 정책토론회, 지역 생태공원 사업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 ·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지역문화센터 건립, 정보화마을 조성 등을 준비중이다.

복지 사업으로는 개설중인 여성농업인 센터와 주민 건강사랑방 외 건강타운 · 실버타운 · 생태마을 · 녹색체험마을 조성 등을 계획중이다.

경제 사업으로는 실상사 유기재배 농장, 환경농업작목반,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지역 특산품 개발 등을 시행중이며 산야초를 활용한 발효효소생산사업과 지역특산물 및 유기농산물 판매단지 · 지역생태관광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정부 지원금을 비롯해 재정사업을 위한 기금 조성, 출향인사 · 한생명 등의 지역발전후원금, 생협의 생산지원금, 종단차원의 자역사업지원금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사업이 마무리 되면 환경과 생명의식 확산을 비롯해 귀농자 유입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자치의식 함양, 불교 및 수행자의 위상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찰 안내
- 위치 : 아산과 공주 경계
- 부지 : 총 3500평. 대지 200평
- 법당 : 정통으로 13평.
- 요사채 : 30평. 산신각 2평
- 삼존불, 미륵불 봉안
- 야산 산세수려. 전망 좋음
- 가액 : 3억 5천

041)841-0751

사찰 안내
- 위치 : 원주시한라대옆
- 평수 : 210평
- 법당2개, 석탑3개, 산신각
- 가액 : 2억 3천만원 (시설비 포함)

011)471-1996
033)766-0058

사찰터 안내
- 위치 : 충북보은에서 10분거리
- 산좋고 약수물이 좋으며 금강상류가 앞에 보이는 사찰터로 적당한 곳
- 전 1,834평, 평당가 35,000원
- 답사후 절충가능. 주인 직접

011)792-8969
016)401-3767
야간 043)542-7944

사찰(인법당) 안내
- 위치 : 노원구 불암산 자락에 자리잡음 도심포교 또는 어린이집, 전세 투자 전망 좋음
- 부지 : 약300평 기량 활용(개인평 임야임)
- 건물1 : 평수 45평중 법당 15평, 스님방 1, 공양방1, 목욕, 실내화장실, 실외 화장실
- 건물2 : 요사채 40평, 방6개, 목욕, 실내화장실, 실외 화장실
- 무허가 40년된 건물로써 건물 등기 구청에 등기되어 있음(평은 타 개인평임)
- 가액: 건물1 – 1억7천만원(1년안된건물임) 건물2 – 1억3천만원(1년6개월된건물)
- 각각 매매도 됨. 가격 절충가. 전세도 됨

011)709-7659 / 02)932-7659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청평
- 평수 : 1,860평. 임법당10평. 산신각
- 가액 : 3억 5천만원
- 외곽순환도로 4차선 공사중.
- 서울-춘천간 지하철 공사중.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산세수려. 경관 좋음

031)585-7687

사찰(토굴) 안내

● 위치 : 도봉산	● 위치 : 공주	● 위치 : 충남서부
● 부지 : 2000평사용	● 부지 : 1만8천평	● 부지 : 1800평(종교부지)
● 법당 : 20평(목조단청)	● 법당 : 20평(입)	● 법당 : 13평(입)
● 요사 : 60평	● 요사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6억원	● 가액 : 2억원	● 가액 : 2억8천만원
※ 서울의 명산	※진입로 노송 울창	※마애불 문화재 지정

◆전국소재 사찰 · 암자 ·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참 인연됩시다 –
정인불사
전 화 ☎ 02)722-8968
휴대폰 011-707-8204
–(조계사앞 도장전각전문점 02)735-0750 정인사)–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개진면
- 법당, 목조 기와집
- 대지 : 72평
- 요사채 ㄱ자 방4개, 수세식화장실
- 삼존불, 후불 탱화 모셔져 있음
- 가액 : 5천만원

011)488-1303
055)963-9884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 인구밀집지역. 포교 적합
- 평수 : 50평. 오존불 봉안
- 법당, 종무소, 방3, 주방, 욕실
- 불구 및 주방 용품 일체 제공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3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6천만원

011)9484-6333

토굴 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
- 건물 18평, 6평 등기 필
- 주변 경관 . 산세 수려
- 가액 : 3천만원

019)9192-9999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황등면
- 법당 25평(주지실), 요사 50평
- 약사여래입불(조선시대 조성)
- 등기필 300여평, 시유지 1천평
- 시내 인접
- 가액 : 1억 3천만원
- 장난 전화 사절합니다

011)677-852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덕천로타리 에서 약 5분거리. 구포시장내
- 평수 60평, 방4개. 주방시설 완비
- 삼존불, 신중 탱화, 지장불, 지장 탱화 모셔져 있고 산신탱화. 시설 A급
- 보증금 : 1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천500만원

055)386-7463 / 016)355-4264

사찰(급) 안내
- 위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산 국립공원문화재보호구역내 소재 웅장한 미륵바위와 빼어난 산세,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매
- 평수 : 총면적 3천평(허가필,등기필), 종교용지 1600평, 임야 1400평, 법당 30여평, 요사채 40평, 기타 10여평
- 교구본사,사찰,연수원,수련원,기도터,기타종교시설.
- 주차장완비. 시내와 5분거리 ● 사리 33과
- 가액 : 4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1)613-1775/016)838-9394

암자별장 및 토굴안내
- 위치 : 충남 예산 예당저수지 부근
- 부지 : 280평, 임법당 22평
- 몸만 오시면 됨
-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이나 일반인
- 가액 : 1억 2천만원

016)293-4341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 대지 430평. 실평수 1천평
- 임법당 30평, 목조 황토 기와
- 2002년 11월 완공
- 특징 : 계곡 산세 좋고 청정지역 아산 15분거리.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나들목 4㎞지점. 2006년 완공예정
- 가액 : 1억 8천만원(절충 가능)

017)479-7879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치악산 자락 계곡이 흐르고 산세가 수려합니다
- 대웅전 36평, 산신각 10평, 요사채 30평
- 대(大)방을 겸비한 욕실 , 주방
-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전세 4천만원

033)345-5597
011)771-559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파계사부근
- 대지 : 306평(법당 20평, 요사채 방 5칸) 하우스 공양간 20평임
- 산신각 5평
- 특징 : 산세가 수려함
- 가액 : 2억8천만원(답사후 절충가능)

053)985-9824
017)522-5544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 평수 : 40평. 최고시설 A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 도심속 최고 포교적지
- 즉시 법회 가능

016)9633-0302



◇ '생태계의 보고' 천성산을 살기 위한 지율 스님의 3천배 정진은 계속되고 있다.

"천성산 끝까지 지키겠다"

경부고속철 관통노선 강행결정 소식에도 지율 스님, 3천배 기도 조금도 흔들림없어

노대통령에 편지 · 영상CD 보내

"언제가는 결정이 날 일이다. 기다리던 소식은 아니지만 3천배 기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기도와 함께 이제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시점이라고 여긴다."

천성산의 생명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3천배 기도를 시작한지 38일째. 지율스님은 반갑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

19일 고 건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금정산과 천성산을 관통하는 기존 노선안대로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 그러나 지율스님의 3천배 기도는 조금의 흔들림없이 이어졌다. 오래전부터 부어오른 무릎보다, 절을 할 때마다 다시 찾아오는 고통보다 '기존 노선 강행' 소식이 더욱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괜찮다'는 짧은 말로 일축하고 다시 절을 할 뿐이었다.

추석연휴동안 지율스님은 삼천배 기도 틈틈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낼 편지와 동영상 시디(CD)를 준비했고 15일 발송후 노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기다려왔다. 그 시디에는 천성산의 아름다움과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지율스님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았다. "아픈 국토에 대한 사랑과 생명에 대한 서원으로 시작된 이 기도의 응답을 훗날 우리 후손들은 역사라고 이야기 할 것"이라며 노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던 스님의 최후통첩에 정부는 기존 노선 강행이라는 대답을 보내온 셈이다. 그러나 스님은 "아직은 희망을 놓을 수 없다. 천성산이 환경과 생명 문제에서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도와 정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스님은 천성산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부당성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공사정지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스님은 기존 노선 강행 발표가 난 19일 이후 더욱 바빠졌다. 19일 재판을 담당할 변호사를 만나고 20일과 21일에는 천성산 안적암에서 전국의 50여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생명에 대안은 없다'는 2차 토론회를 열고 중, 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미희 기자

캄보디아에 컴퓨터 · 생필품 지원

실천승가회, 고아원 · 직업훈련원 건립도

실천불교전국승가회(직무대행 일문, 이하 실천승가회)가 불교국가 캄보디아에 컴퓨터 및 생필품을 지원한다. 또 고아원, 직업훈련원, 초등학교 등 종합 복지시설 건립과 유학 및 근로자 기술 지원 사업 등 인적 교류 사업도 추진한다.

실천승가회는 9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정보화 인프라 시설 지원을 위해 펜티엄Ⅲ 컴퓨터 75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30대, 종교부 20대, 국가관광위원회 25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캄보디아 불교 종단 및 복지시설, NGO 등에 세면도구, 수건, 내의 500세트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실천승가회는 이를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현지를 방문한다. 지선(실천승가회 상임고문) · 성관(전 의장) · 효림(지도위원) 스님 등이 참석하는 이번 방문에서는 프놈펜 소재 고아원 등 복지시설 방문, 종정 텝퐁 스님 친견, 시엠립 주정부 방문 및 주지사 면담 등이 계획돼 있다.

실천승가회는 캄보디아 시엠립 인근 지역 10,000여평 부지에 50~100여명 규모 고아원과 IT 및 영어 교육을 실시할 직업훈련원, 40명 기준 2개반이 운영될 초등학교 건립도 추진중이다. 올해 11월까지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2004년 상반기 고아원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 하반기부터 캄보디아 불교청년회 소속 회원이나 NGO 활동 지원자(1년 2명 내외)들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 지원 사업을 펼친다. 또 캄보디아 정부를 통해 선발된 불교청년 근로자(1년 10명 내외)들을 대상으로 한국내 불자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근로자 기술 지원 사업도 전개한다.

직무대행 일문 스님은 "이후 법인을 설립해 여러 불교국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9월 8일 캄보디아에 지원할 컴퓨터와 생필품 선적실을 가졌다.



◇미얀마 유학생 · 근로자를 초청해 열린 영남불교대의 추석맞이 법회.

미얀마 유학생 · 근로자 위로법회

영남불교대,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

추석을 타향에서 외롭게 보내는 미얀마 유학생 및 노동자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법회가 영남불교대학에서 열렸다.

영남불교대학은 9월 10일 대구 · 서울지역 미얀마 유학생 및 노동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층 대법당에서 추석맞이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올해 초 경북대 농경제학과에 유학중인 틴틴씨가 한국사찰을 순례하던 중 영남불교대학과 인연이 되면서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미얀마 출신 외국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영남불교대학은 지난 8일 미얀마에서 이운해 온 부처님을 영남불교대학 7층 법당에 봉안 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미얀마 유학생 및 노동자들의 정기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얀마 유학생 및 노동자들은 영남불교대학 측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어려운 생활환경 가운데서도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50여 만원을 영남불교대에서 운영하는 무의탁 무료급식소에 보시했다. 박원구 기자

동국대의료원 파업 타결

임금 4.9% 인상 등 합의

한달 여 이상 이어졌던 동국대의료원 노조의 파업이 9월 18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동국대의료원과 노조는 17일부터 이어진 밤샘 협상 결과 주요쟁점 사항인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 총액기준 4.9%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부족한 인력의 충원부분에 대해서는 12명을 신규채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TO가 있는 33명은 정규직 전환을, 이외에는 정규직의 70~80%에 준하는 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작성해 상호 교환했다.

지난달 13일부터 46일간 파업이 지속되면서 파행운영이 불가피 했던 경주와 포항 동국대병원, 경주한방병원은 이날 노사협상이 타결되면서 노조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해 운영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박원구 기자bak09@buddhapia.com

사명대사 활약상 연극으로 만난다

한일 양국 전통공연양식 공존 서사극

한일의 화해와 수교의 역할을 수행했던 조선의 밀사 사명대사의 활약상을 역사적 고증을 통해 재조명하는 서사극 <조선밀사 사명>이 무대에 오른다.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단장 이윤택)가 1592년~1600년대를 배경으로 조선통신사의 기틀을 다진 사명대사 유정의 일대기<조선밀사 사명>(강석현 작, 이윤택 연출)를 9월 23일 밀양시문화체육관과 9월 26일 부산 용두산공원에서 선보인다. 이번 연극은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사명대사 열반일과제 1회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축제를 기념하고자 제안, 후원해 만들어졌다. 특히 <조선밀사 사명>은 호국불교의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범패음악, 불교사물, 선무도 등을 공연양식으로 재창조하고 가부키, 분라쿠, 노오 등 일본 전통양식과 마쯔리 축제양식을 대비시켜 한일 양국의 전통 공연 양식이 공존하는 독특한 서사극으로 꾸며진다.

연희단거리패 배우장이자 <시골선비 조남명>으로 2001년도 서울국제연극제 연기상을 수상한 조영진 씨가 사명대사로 분하고 연희단거리패 앙상블, 김금희 무용단, 타악그룹 온누리, 밀양대학교 하데스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055)355-2308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용문사 윤장대 보수불사 회향

10월 4일 윤전법회 … 일반에 공개하기로

고려시대 조성된 회전식 장경각인 예천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가 3년여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다시 일반에 공개된다.

용문사는 10월 4일 용문사 윤장대 보수공사 회향을 기념하는 윤장대 윤전법회 및 만등불사를 봉행한다.

용문사 윤장대는 지난 1980년 보물로 지정되면서 매년 한차례만 일반인들이 직접 윤장대를 돌리는 윤전법회를 봉행해 왔다. 지난 2000년부터 보수공사를 벌여 최근 회향한 용문사는 앞으로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윤전법회를 봉행해 불자와 일반인들이 윤장대를 직접 돌려볼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1177년(고려 명종 7년)에 조성, 일원주(一圓柱)를 중심으로 한 팔각정 모양의 용문사 윤장대는 8각으로 된 상량가구에 다포(多包)집의 공포(뱀包)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고, 윤장 맨 밑 부분은 차차 좁아져 마루를 뚫고 회전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져 있다. 박원구 기자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신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한번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는 다릅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신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농장견학회 및 재배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일간스포츠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한국일보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경향신문 2003 경향히트상품 선정
★ 서울경제신문 2003 서경벤처히트상품 선정
★ 스포츠 굿데이 2003 굿브랜드 대상 선정

※주의 : 저희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해지자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해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토종오가피원료는 전량 수신토종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 히트상품선정기념. 선착순 고객사은대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54-3733

장흥대원정사

봉 영가 천도재 행

삼보에 귀의하옵고
오는 10월4일(음력 9월9일)은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동참 영가 천도재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실 분들은 미리 연락 바랍니다.



〔주지 해련스님〕

우리 조상님들은 영계에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번영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계에 계신 조상님들에게 진리의 경을 독송, 공양드려 진리를 자각하시도록 해드리고 자손들의 안녕을 빌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천도재에 동참하시어 선망조상님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시고, 그 인연공덕으로 다겁생의 업장을 모두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영가, 낙태자, 유산자, 망자 천도재를 위해 영가 옷, 다라니는 일체 제공합니다 ■

▶ 천도재 일시 : 2003년 10월 4일(음, 9월 9일) 오전 11시
▶ 천도재 장소 : 대원정사 대법당
▶ 천도재 동참비 : 영가 1인 10만원
※ 자세한 내용 문의와 동참 접수는 종무실로 연락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대 원 정 사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석현리 산 126번지
031)855-5501, 3

대원정사 지장대불 및 각 산신님 3존불 시주 동참 바랍니다

탄허스님 열반 20주기 추모행사 다채



◇탄허대종사 영정사진.

한국 근대 선지식이며 석학이었던 탄허(1913-1983) 대종사 열반 20주기를 맞아 학술회의, 법어집 발간기념법회 등 추모행사가 열린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현해)와 탄허문화재단(이사장 전창렬)은 9월 30일 오후 5시 세종홀에서 탄허 대종사 법어집 <방산굴 법어> 발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에는 탄허 대종사 법어집 <방산굴 법어> 발간 기념대법회에는 석주(칠보사 조실), 지관(원로의원) 월주(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조계종 총무원장) 현해(월정사 주지) 혜거(금강선원 주지) 스님과 동국대 홍기삼 총장, 김진선 강원도지사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탄허 대종사 법어집 <방산굴 법어>에는 '천상천하' 등 상당법어 10편, '절하는 나도 절 받는 부처도 없다' 등 대중법어 19편, '해제송' 등 게송 14편, 경봉스님 청우스님 각성스님과 왕래한 서간문 14편, '부처님이 살아계시다면' 등 책 서문 17편, '사자산 법흥사 법당중건문' 등 상량문 11편, 비문 사적문 공덕비문 14편, 부록으로 대담, 연보, 문보 등이 실려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컨벤션센터에서 탄허 대종사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탄허대종사 열반 20주기 학술회의'가 열린다.

탄허 대종사 열반 20주기 학술회의는 각성스님(화엄사 회주)이 '탄허사상의 종합적 고찰'을 주제로 기조강연하며, 김광식 부천대 교수가 '탄허스님의 생애와 교화활동', 무관스님이 '탄허스님의 선사상', 동국대 교수 해주스님이 '탄허스님의 화엄론', 윤창화(민족사) 대표가 '탄허의 불교역경과 그 의의'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태원스님, 김문환(국민대)) 김상현(동국대) 교수, 박경훈 역경원 나선다.

30일 법어집 발간 및 학술세미나 개최

선사상·화엄론 등 집중조명

월정사 주지 현해스님은 "탄허 대종사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신 분"이라며 "한암-탄허스님으로 이어졌던 근대 선불교의 정신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학술회의와 법어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77권(원고지 20여만장)의 방대한 한문 원전을 현토·역경하여 동양사상과 대승불교의 이해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탄허 대종사는 1913년 전북 김제에서 출생했다.

14~15세에 보령에서 면암 이지암의 제자 이극종으로부터 사서삼경 등 유학의 전 과정과 노장철학을 공부한 스님은 34(22세)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 선사 문하에 출가했다.

스님은 50년 근대교육의 시초인 오대산수도원을 열어 지도자교육을 실시했으며, 53년 월정사 조실, 55년 강원도 종무원장을 역임했다. 66년 동국대 대학선원장, 67년 초대 중앙역경원연수원장, 동국역경원증의위원, 72년 화엄학연구소장, 75년 동국대학교 이사 등을 역임했다.

불교 유교 도교 사상과 참선으로 닦여진 뛰어난 예지로 이 시대 민중의 진로를 제시하고자 노력한 위대한 선지식이요, 대종사였던 탄허 대종사는 미리 예언했던 입적날인 83년 6월 5일 '일체무언(一切無言)' 이라는 열반송 을 남기고 월정사 방산굴에서 원적에 들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사 창건 93주년 '청년문화제' 개최

시민과 함께 열린 공간으로

시낭송, 찬불가 경연 등 행사 다채

조계사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난다.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는 조계사 창건 93주년 기념 '청년 문화제'를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개최한다.

청년 문화제는 시낭송법회와 영상으로 본 조계사, 찬불가경연대회, 대동한마당, 시화전 등의 행사들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27일 열리는 시낭송법회와 영상으로 본 조계사는 아름다운 불교 시와 계송을 지난 93년간의 조계사의 모습과 함께 운치 있게 담아낸다. 또 3일부터 열리는 시화전은 불교문학예술의 멋을 조계사를 찾는 이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게 된다. 4일 일반 불자들을 대상으로 열릴 찬불가경연대회는 찬불가의 중요성 인식확대와 함께 찬불가 붐을 일으킬 계획이다. 마지막 행사인 대동한마당은 길상풍물놀이패의 주도로 모든 신행단체들과 불자들의 하나가 되는 신명나는 놀이마당으로 꾸며진다.

정우식 회장은 "조계사가 지난 93년간 한국불교의 대표 도량으로서 불교역사의 중심에 위치해 온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문화행사를 준비했다"며 "조계사 일주문과 대웅전 보수불사가 원만하게 이뤄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대흥사 새벽숲길 10월3일 재개

해남 대흥사(주지 몽산)가 산사체험 프로그램인 '새벽숲길'을 10월 3일부터 재개한다.

대흥사는 특정한 내용이나 수련법을 강요하지 않는 등 여유로운 일정과 내용으로 올해 총 6차례를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시민들의 여가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벽숲길' 프로그램은 올해 총 6차례에 걸쳐 매월 첫째, 셋째주 토~일요일(1박2일) 또는 금~일요일(2박3일) 개최되며, 매회 35명 내외의 인원으로 운영된다.

올해 '새벽숲길' 개최 일정은 다음과 같다.

△14차 10월 3~5일 △15차 10월 17~19일 △16차 10월 31일~11월 2일 △17차 11월 14~16일 △18차 12월 5~7일 △19차 12월 19~21일. 문의 (061)535-5775.

박봉영 기자

청원사암련 '직지강연 및 연등제'



청주·청원 사암연합회(회장 설곡)는 9월 6일 청주 흥덕사지에서 '직지 대강연회 및 연등축제'(사진)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지관 스님(전 동국대 총장)과 남창우 충북 정무지사, 한대수 청주시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1천5백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청주 무심천에서는 조국 평화통일과 국운융성을 기원하며 3천여 개의 연등을 띄워 보내는 유등제가 열렸다.

이상우 청주지사장

우리 절 우리 신도

"기도 자주하면 이타행 저절로"

대구 능인선원 하은숙 보살



◇대구 능인선원 하은숙 보살은 매일아침 법당청소를 한다.

"기도를 자꾸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남을 위한 기도로 변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도심포교당 능인선원에서 궂은일도 마다않고 한결같이 보시행 실천을 생활화하고 있는 하은숙보살(46, 법명 무심행)은 신도들 사이에 '밀행보살'로 통한다.

하 보살은 사찰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은 신도지만 능인선원이 개원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법회나 행사가 없는 날이라도 매일 같이 사찰에 나와 봉사에 여념이 없다. 아침 10시면 어김없이 절에 들어선다는 하 보살은 가장 먼저 법당에 들어가 삼배를 올린 뒤 법당청소부터 공양간 봉사, 화장실 청소까지 사찰 곳곳에 하 보살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 특히 천도재가 있는 날이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공양간에 들어가 그날 행사에 필요한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친다.

"저희 주지스님은 항상 생활 속의 신행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문득 제가 있는 모든 자리가 바로 기도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부터 우리 도반들을 위해 제가 할 일이 없나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 보살은 매일 3천배 기도를 생활화 하고 있다. 10여 년 전 인연이 된 능인선원 주지 혜장스님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시작한 백일기도는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이른다.

현재 능인선원에는 하 보살의 권유로 현재 법당에서 백일기도를 올리는 신도들이 20여 명에 이른다. 또 하 보살의 이타행을 보고 발심을 한 신도도 여럿 있어 평소 1백여명 이상이 드나드는 사찰과 법당이 지금은 작은 휴지조각 하나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해졌다.

하 보살의 봉사는 사찰 내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하 보살은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노인들의 목욕봉사는 물론 말벗도 되어주는 등 사회봉사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대구= 박원구기자

직책 없어도 할일 묵묵히 찾아 보시행

노인 목욕봉사등 사회활동도 활발히



추천의 말

혜장스님 능인선원 주지

무심행보살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신행은 다른 신도님들의 모범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통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게 보통인데 무심행 보살은 백일기도 중에도 공양간 봉사에서부터 법당 청소까지 거의 도맡다시피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보살과 젊은 보살들 사이에 가교역할을 하는 말 그대로 진정 '보살'이라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삶 속 묻어나오는 신행 실천

저 효사는 「육임(六壬)」 지방 강의를 재개(再開)합니다

저는 금번 전국 여러 어른들의 요청에 따라 아래 지역에 육임학당을 직접 개설하고 매주 직강(直講)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현인·기사·이인 각위(各位)께서는 이번 기회에 저와 육임 공부의 인연을 지어 활인천역(活人天役)에 큰 활용되시기를 권하옵고, 저는 신명를 바쳐 실기(實技) 위주의 육임을 알려 드리므로써 단기간에 좋다는 육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육임은 모든 술법에 앞서는 정확 기민한 오행술 입니다. 우리 활인천역자가 인연만 주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습득해 둘 필요가 있는 고등술법인 것입니다. 이번 저의 지방강의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오니 등록하십시오. 후회없는 3개월이 될 것입니다.

■ 강의 일시 및 장소

- 육임학당 「광주숙」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 2003년 9월 15일 시작 (종전의 「광주숙」은 장소·지회장·강주가 폐지 교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육임학당 「진주숙」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 2003년 9월 23일 시작
- 육임학당 「부산숙」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 2003년 9월 24일 시작
- 육임학당 「대구숙」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 2003년 9월 25일 시작 (종전의 「대구숙」은 장소·지회장·강주가 폐지 교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육임학당 「효사숙」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현재 제 6기 진행중(10월 14일 금 - 제 7기 시작)
- 육임학당 「전주숙」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 2003년 9월 27일 시작
- 육임학회회원 지도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무료) — 현재 정기 지도 강의중

본 강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실히 공부해서 활용하게됩니다.

사주를 뽑아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화)시간만 보아
- 무엇때문(일)에 왔는지
- 그 일이 될지 안될지, 좋은지 나쁜지, 할지 말지
- 옛일인지 근래사인지 반복되는 일인지
-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이지
- 자기가 이길지 질지 유리한지 불리한지
- 집안에 무슨 사정이 벌어져 있는지
- 지금 집이 좋은지 나쁜지, 언제 어디로 이사해야 언제 좋게 될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범을 받아 일이 안되는지, 어떻게 해소시켜줄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범으로 병이 생겼는지, 고칠수 있는지 없는지
- 지금 누구의 산소에서 탈이 났는지, 그 산소의 탈을 어떻게 해소시킬지
- 무엇 때문에 부정이 탔는지 어떻게 해소시킬지
- 상대가 선인인지 악인인지 보통인인지
- 상대·장소가 피해를 줄 것인지 이익을 줄 것인지 무능·무용 할것인지

- 이상은 먼저 말할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 입니다.

- 돈이 될지 안될지 언제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릴지
- 승진이 될지 안될지 직장이 안전한지
- 선거에 당선될지 안될지
- 시험에 합격될지 안될지
- 취직이 될지 안될지 언제 될지
- 소송에서 이길지 질지
- 임신이 될지 안될지 언제될지 여아인지 남아인지
- 결혼이 좋은지 나쁜지, 될지 안될지
- 병이 낫게 될지 안될지, 왜 병이 낫는지 무슨병인지 어떤 귀신빌미가 침범했는지
- 집나간 사람이 들어올지 안올지 언제 올지 어디서 무얼하고 있는지
- 투자를 해서 이익이 올지 손해를 볼지
- 이 가격이 비싼지 싼지 기다려야 할지
- 팔아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 묘지 이장이 좋은지 그대로가 좋은지
- 정해진 행사날에 비가 올지 안 올지

- 이상은 묻는것에 즉시 대답해 줄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신 간 안 내

「각일 각시 출생자 운명예언 비법」

- 태아(胎兒) 선택 분만 吉日 吉時 선정 -

우리가 선택 분만에 따른 길일 길시를 뽑게 될때 매우 지난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번 써 놓은 이 책을 사용하시면 60갑자 각 일과 각 시간에 따른 출산 길흉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한눈에 살펴 길일 길시를 선정 할수 있고, 또 여러 날과 여러 시간을 순서적으로 잡아 줄 수 있게 꼽 해 봤습니다.

이 외에도 「사주기둥세우는 기초」, 「격국 용신잡는 원칙」, 「여자성(性)능력 판단」 등이 실려있습니다. - 값 74,000원

「 효사가 권하는 도서 」

■ 활용서
-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 ····· ₩2,500,000
- 육임래정비법휴대용 ····· ₩ 310,000
- 출생일시 운명예언비법 (태아선택분만吉日吉時선정법) ····· ₩ 74,000
- 신수비결 ····· ₩ 300,000

■ 학습서
- 효사육임강의록 上·下 ····· ₩ 410,000
- 육임강의비디오·CD ····· ₩ 900,000

● 본 육임서들은 비싸지만 큰 효과를 볼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입금처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 수강료는 3개월 150만원(효사육임강의록 상·하권 - 값 410,000원 - 교재로 드림) 입니다. 본 강의록을 이미 구입하신 분은 수강료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 문의전화는 02-996-3335로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받겠습니다. 효 사

이무기 심술 다스린 절터



◇이무기의 행패를 막기위해 지었다는 용담사지전경.

폐사지를 찾아서

장지현의 잊혀진가람 탐험

남원 용담사지



높이 9.9m 7층석탑…질박한 멋

꾸밈없는 석등·마멸돼 표정없는 석불입상

본격 발굴조사 없이 전각공사 한창

웅덩이가 깊으면 이무기가 살기 마련이고, 세월이 깊으면 전설이 깃들기 마련이다. 이 땅에 싸움 잦고 천둥번개가 비를 자주 뿌리는 것은 천지, 백록담 방방곡곡 크고 작은 웅덩이가 많고, 웅덩이마다 세월이 깊기 때문이다. 웅덩이가 깊고 세월이 차면, 담(潭)과 소(沼)가 된다. 물은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을 순례하는 것이므로, 이 땅에 웅덩이가 많다는 것은 하늘의 뜻이 그만큼 고였다는 것이고, 그 속에 크고 작은 이무기들이 수시로 출몰하며 또아리를 틀었다는 것이다.



◇좁은마당에 껑충한 키로 찾아오는 이를 반갑게 맞아주는 7층석탑.

설화와 예술의 고향 남원에 옛 이야기 길어 올리던 그럴듯한 웅덩이가 없을 리 없다. 칼을 쓴 춘향이나, 만복사 양생을 유혹한 저승처녀가 이승의 인연을 끊고 머리를 푼 채 깊은 골짜기로 올라갔다면 아마도 그곳은 청솔 우거진 용담천 계곡일 것이고, 흥부네 초가집 처마 끝에 제비 둥지 노리는 텃구렁이가 기어 나왔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용담사(龍潭寺) 터 깊은 물가에서 허물을 벗은 이무기 중 하나일 것이다. 용담사지의 '용담(龍潭)'은 세월에 그 수심이 메워졌어도, 아직도 그 물소리만은 여전하여 소리치며 남원시내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안내책자에 '사지'로 표기

젖은 양말 허물 벗듯 잠시 벗어 풀 섶에 걸치려고 찾아간 용담사지는 빈 집 아닌 빈집, 사지(寺址) 아닌 사지여서 걸음을 되돌릴까 하다가 다시 찾았다. 폐사지 순례는 복원이든 방치이든 잊혀진 가람만을 찾는 여행인데, 잊혀진 가람으로 알려진 용담사지는 맞이하는 이가 있고, 비바람을 막는 요사채가 있으므로 절터 아닌 절터인 것이다. 폐사지 여행의 간이역쯤으로 물 한 대접 마시고 그냥 지나칠 용담사지에 아예 자동차 시동을 끄고 걸터앉는 것은 한 걸음씩 들여놓을수록 그 수심이 깊은 탓이다.

남원시 문화안내 책자나 답사 여행의 길잡이에도 용담사지는 분명 절 아닌 사지로 나와 있다. 그러나 용담사지는 아직 사적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사적지 지정도 안 됐고, 본격적인 발굴조사도 없었다. 용담사지를 잊혀진 가람의 범주에 들여놓는 것은 주인 없는 절터라 할지라도 그 관리가 이름 없는 사문에 의해 이렇게 소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과, 그렇더라도 종단 차원의 관리나 당국의 제대로된 복원이 아니라면 그것은 또한 그것대로 짚고 넘어 가야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지의 주인은 원칙적으로 불교요, 불자이다. 돌보지 못한 묵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못난 그 자손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인 그 사지의 소유자가 있다면 그 원칙이나 가설은 괜한 억지나 딴청일 것이다. 전통사찰보존법이 있더라도 그 사지에 현존하는 전통 사찰이 없다면 그 틈새에는 슬쩍 이무기들이 세 들어 또아리를 틀고 텃구렁이 노릇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행여 이 글이 7년 전에 이 절터에 들어 석불입상(보물 제42호)의 보호각을 세우고, 1평에 15만씩 주고 주변 사유지를 사들여 절터를 관리한다는 정암(靜庵) 스님에게 누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글은 그 누구의 공과나 허물을 들추기보다 총체적이고 합리적인 폐사지 관리의 대의성을 찾고 명분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기에, 누구든 저 이름 없는 불제자의 수고를 함부로 허물하지 말아야 한다.



◇기단이 묻힌 채 서있는 석등.

용담사는 신라말 도선국사가 창건한 절터이다. 절터를 휘돌아나가는 용담천 깊은 물에 이무기가 살면서 온갖 행패를 부리기에, 도선국사가 이를 제압하고자 절을 짓고 용담사라 하였는데, 이후 이무기의 행패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전설을 뒷받침하듯 지금 새롭게 남아있는 대웅전은 남원시내가 아닌 북향으로 용담천을 바라보고 있다. 마음이 미혹한 중생들의 눈으로 보면 수로 관리가

정암스님, 사유지 사들여 관리

안 되어 계곡을 넘친 물이 마을을 휩쓰는 현상이 이무기의 공포쯤으로 보였을 것이고, 자비로운 도선국사의 눈에는 그것이 한갓 용담천을 다스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洑)를 세우고 물길을 돌리면 방지될 토목공사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용담사지는 큰길인 730번 도로에는 사지의 이정표가 있으나, 정작 사지 경내에 당도해서는 어떠한 표식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일주문 대신 시멘트 기둥에 녹 쓴 철 대문이 매달려 있을 뿐, 당간지주 같은 늙은 벚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면 절터는 그냥 한가로운 민가쯤에 불과할 것이다. 용담사지 대문을 들어서면 앞마당에 높이 9.9m의 7층석탑이 우뚝 솟아 있다. 한 눈에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탑인데, 좁은 안마당에 장식처럼 서 있으니 이상할 따름이다. 탑은 너무 길쭉하고 홀쭉하여 안정감이 없는 상태이나 몸돌의 자욱한 이끼가 범상치 않음을 말해준다. 마치 운주사의 석탑들 중 어느 하나를 옮겨놓은 듯한 질박하고 소박한 솜씨가 고려인의 정성을 말해준다.

고려시대는 우리나라 전 시대를 걸쳐 석탑이 가장 많이 조성된 시기이다. 고려시대의 석탑은 신라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대체로 기단과 탑신은 신라 석탑에 비하여 폭이 좁아지고 탑신은 층수가 많아져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이 안정감을 특징으로 한다면 고려시대의 석탑은 늘씬한 자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석탑은 지방적인 색채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한 특징이다. 이는 고려가 불교를 국교로 장려한 탓에 탑의 조형에 국가, 왕실, 귀족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 참여하였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타원형의 자연석을 다듬은 석불입상(보물 제42호).

강릉 신복사지 3층석탑 앞에 무릎을 꿇은 보살상이 공양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용담사지 7층석탑 앞에는 별다른 꾸밈없는 작은 석등이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오똑한 채 불 꺼진 법등의 심지를 돋우고 있다. 마당 한 끝에서 일직선으로 석탑을 바라보고 있는 석불입상은 타원형의 자연석을 다듬은 대좌 위에 광배를 갖추고 있는 높이 6m의 거대한 불상이다. 석불입상은 긴 얼굴에 높은 육계를 얹고 있으나 마멸이 심하여 얼굴표정을 알아보기가 힘들다. 목에

신라말 도선국사가 창건

형식적인 삼도가 희미하게나마 보이며, 두 손을 아랫배에 모으고 있으나 수인(手印)의 형태도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등에 짊어진 듯한 육중한 광배는 불상과 하나인 통돌로 불상의 지대석 양쪽에 원형과 사각형의 구멍이 뚫린 것으로 불상을 보호하는 목조전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용담사지는 현재 요사채 뒤쪽, 용담천 쪽으로 다시 전각공사가 한창이다. 인근 농협창고에서부터 주변 전체가 사지인 듯한데, 발굴조사 없이 전각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남원시 당국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사인지 궁금증이 남는다. 용담천 깊은 물은 이무기가 아닌 용이 사는 곳이기에 함부로 구정물을 일으키면 하늘의 섭리를 그르치는 것이 될 수 있다.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저토록 쉬지 않고 '너희들 이 이치를 아느냐' 고 외쳐대도 아무도 그 법문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시인,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사진=고영배 기자

다음은 전남 화순 운주사지 편

용담사지 가는길

용담사지는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에 있다. 남원시내에서 남원대교를 건너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오른쪽은 남원국민관광단지로 가는 길이고, 왼쪽길이 주천면을 지나 지리산 정령치로 가는 730번 지방도로이다. 용담사는 이 길을 따라 1.7㎞ 정도쯤 가면 된다. 좁은 시멘트 산길이다.

부처님께로 더 가까이...

성불 천수화



천수 천안 관자재보살님의 현신을 믿습니다

선물에도 최고! 맵맹에도 최고!



최저의 단가로, 최고의 품질을 개선하여, 전국의 비구니스님과 보살수행신도님의 용맹정진을 위하여, 새롭게 탄생한 성불 천수화 입니다.

* 최초의 모델이므로 사이즈가 230 ~ 250까지(10mm단위)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 가격 : 30,000원

온라인 계좌번호 : 우리은행 211-284306-13-101 예금주 : SW 상사

2000만 불자님의 필수품 성불 천수화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보면 "일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그 음성을 듣고, 찾아와 즉시 괴로움을 없애 주고 모두를 해탈케 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고 했습니다. 또한 관음경에 이르길, 중생이 괴로움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을 한마음으로 외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들을시고 모두 해탈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SW상사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성불 천수화는 수행하는 보살님을 위해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명작입니다. 가죽이 아닌 신소재 피혁으로 제작되었기에 부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성불 천수화 입니다.

천수화는 신는 순간부터 소원을 성취하고 우주만물의 복을 부르는 옴자를 앞축에, 깨우침을 상징하는 卍자를 자크에, 신발 안쪽 뒷면에 "성불합시다"의 문구를 넣어 만행 하기전에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신행화 입니다. 천수화는 만행하실때에 신는 순간부터 자신감과 영험을 느끼게 하는 케주얼 풍 최고급 신발입니다. 특히 타사 제품과는 달리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세련되게 디자인된 불자님들의 필수 만행화 입니다.

(주)SW상사 080-331-1818 총판 및 불교용품 딜러 모집

만다라 문화원
진품 만다라 친견 · 감상
매일 오전 10시~오후 9시
02)3673-3881



한국 재즈계를 이끄는 두 여성
웅산과 정말로

JAZZ 깨닫는 과정이죠!

불교와 인연 깊은 두 여성이 재즈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한국 재즈계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선두주자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재즈 뮤지션 정말로 씨와 웅산 씨는 특이한 이름과 경력이라는 공통점과 더불어 각자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펼쳐가고 있다. 도대체 재즈와 불교는 무엇이 통하는 것일까?

"자유…해탈에 이르는 선율"

국내 재즈 뮤지션 중 가장 많은 매니아 팬 층을 확보하고 있는 여성 재즈뮤지션 정말로(31, 본명 정수월 · 사진 아래). 9월 1일, 압구정 연습실에서 만난 그에게 왜 재즈를 시작하게 됐느냐고 묻자, 그는 "자유스럽고 재밌잖아요"라고 짧게 한마디로 답한 채 털털한 웃음을 흘린다.

어릴 적부터 노래하는 것에는 자신감이 넘쳤던 그는 중 · 고등학교 중창단 활동부터 대학시절 통기타 가수 아르바이트, 93년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은상 수상 등의 경력을 쌓아갔다. 통기타 가수와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하며 주로 포크음악을 듣고, 부르던 그는 대학 2학년이 돼서야 재즈를 처음으로 접하게 됐다.

"존 콜트레인(John Coltrane)의 색소폰 연주를 들었는데 한마디로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음악도 있구나, 내가 몰랐던 세계를 알고 싶다는 실험정신으로 재즈에 덤벼들었죠."

그는 재즈를 배우고 싶다는 일념으로 이태원의 재즈 라이브 클럽 올 댓 재즈(All that Jazz)에 찾아갔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국내에서는 재즈를 마땅히 배울 곳이 없었기에 그곳의 뮤지션들은 그에게 유학을 권했다. 그래서 97년 미국으로 건너가 버클리 음대에서 스캣과 편곡 등 재즈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며 1년여의 유학생활을 했다.

그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무렵이다. 본래 천주교 신자였던 부모님은 딸 셋을 낳고 천일동안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드려 지금의 막내 남동생을 보게 됐다. 이 계기로 불교에 입문한 그의 어머니는 기복신앙이 아닌 수행으로서의 불교에 더욱 심취했다. 귀국 직후, 신심이 돈독한 어머니의 '효도 한번 하라'는 권유로 그는 고향인 부산의 한 사찰을 찾았다. 그곳의 법사님이 '지금 니 팔을 만지는 그 손이 누구의 손이냐?'라고 던진 한마디를 화두로 앉고 꼬박 한 달간을 면벽수행 했다. 그는 그 때의 수행을 '정신적인 오물들을 걷어내는 작업'이었다고 회상한다.

"참선을 하며 그 전까지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자만과 고집에 가득 차 있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하심'을 배운 거죠. 선 수행을 하면서 화두의 답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로 씨는 지난 3월, 프로젝트 형식의 앨범인 3집 '벚꽃지다'를 발표했다. 한국적 재즈를 시도했다는 평을 들은 이번 앨범은 듣는 이로 하여금 명상을 하듯 그의 음색에 빠져드는 느낌을 준다. 요즘 그는 앨범활동과 더불어 오는 12월, 2004년도 다이어리와 함께 선보일 새로운 시도의 앨범 작업에도 한창이다.

"제게 있어 음악과 생활은 둘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던지 간에 음악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음악 역시 제 삶의 일부니까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철학이나 불법을 깨달아 가듯이 재즈도 내가 아는 만큼 느끼고 깨달은 만큼 나오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더 깊이와 아픔이 더해지는 음악이죠. 한국최고라는 수식어가 붙는 뮤지션 보다는 그런 깊이를 전달하는 뮤지션으로 남고 싶습니다." 라는 그의 포부 속에서 재즈의 자유정신과 불교의 해탈이 다르지 않음을 엿볼 수 있었다.

"여백과 꽃"

4일 저녁, 청담동 재즈클럽 야누스에서 웅산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팔목에 휘휘 두른 염주였다. 샤워할 때도, 방송을 위해 드레스를 입을 때도 늘 염주를 몸에 지닌다는 재즈 뮤지션 웅산(29, 본명 김은영 · 사진 위). 18살 때 출가했다 환속한 특이한 이력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왜 출가했었느냐'를 가장 먼저 질문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제가 '출가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이 마치 청소년기의 일탈처럼 그려지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너무도 자연스럽게 절로 향했다는 것에 대해 타인의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만은 않겠지요."

당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향한 곳은 단양의 구인사. 그의 말대로 '마음 따라' 간 구인사 선방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3일정도만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시작이었다. 결국 3일 기도는 2년 가까운 출가생활이 되 버렸다. 여기에는 7살 때 <반야심경>을 암송하게 하고, 저녁시간에 온 가족과 함께 참선과 관음정근을 할 정도로 신행심이 깊었던 아버지의 영향도 컸다.

어느 날 참선 중에 깜빡 졸음이 몰려와 죽비에 맞고 합장을 하며 내뱉은 말은 '관세음보살'이 아닌 한영애의 '조용'이라는 노래였다. 그제서야 그는 속세, 공부, 음악에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걸 깨닫게 됐다. "미련이 남았다면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하고 싶은 일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부딪치려 했었죠."

그 뒤 검정고시를 거쳐, 원주 상지대 중국어통역과에 입학해 헤비메탈 밴드 '돌핀스'의 최초 여성보컬로 대학가요제를 나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이렇다할 활동 없이 슬럼프에 빠졌고, 그 무렵 듣게 된 빌리 홀리데이(Billie Holiday)의 'I'm a fool to want you'는 그를 재즈의 길로 이끌었다.

출가했을 당시 구인사 무안스님이 지어주신 '웅산(雄山)'을 예명으로 그는 9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즈뮤지션으로서 음악활동을 시작했다. 98년부터 일본의 재즈클럽에서도 공연을 하게 됐고, 얼마 전부터는 예술대학과 재즈아카데미 등 강단에 섰다. 그리고 올해 11월발 쯤, 총 12곡의 스탠다드 재즈곡이 담긴 그의 첫 앨범이 일본에서 발매된다. 한국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선보일 예정이다.

"재즈는 구속하지도, 옭아매지도 않은 여백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불교의 공(空)과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만의 느낌과 함께 한국인 특유의 감성인 '한(恨)'을 담은 한국적인 재즈를 해보고 싶어요."

글=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곤지암 우리절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오후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 번 멋지게 걸어 보십시오
주[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Ⅲ-1030]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우리모두 원없이 기도합시다

고암대종사 15주기 추모제
---------- 104주년 탄신제
○ 추모제 : 2003년 10월 10일(9. 15) 10시 ○ 탄신제 : 2003년 10월 29일(10. 5) 10시

제8주년 우리절 개산대재
2003년 10월 7일(화)10시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릴레이 수행일기 〈下〉



이계복

'마하넷' 대표(송사모 회장)

군 입대를 하기 전 떠난 만행길에 백양사를 거쳐 송광사에서 1박을 하게 되었다.

고향이 순천인 관계로 지근거리에 있었지만, 그 때 처음으로 송광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가까운 곳일 수록 안 가게 된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다.

불교전문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마하넷'을 운영하면서 송광사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되면서 홀수 달은 송광사, 짝수 달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한 지역을 선정해 법회를 본다. 그러나 법회 준비, 사찰 섭외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올 해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면서 두 달에 거쳐 법회때마다 '3배 1알'을 하면서 합장주를 2,000 개 만들었다. 이렇게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합장주는 부처님오신날 송광사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절을 찾는 분들에게 나눠드렸다. 그 분들이 합장주를 통해 잠깐 이나마 선한 마음을 내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볼 때 기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지난 8 월말 어느 날 밤, 한통을 전화를 받았다.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송사모 활동을 통해 신심을 키워 출가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세울 수 있었고, 드디어 출가를 하게 되었다"고….

신행의 끈 놓지않으려 소임 열심히
송사모 모임의 활성은 곧 나의 수행

어, 송광사와의 인연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시절 인연으로 인해 지금은 '송광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송사모)'을 이끌고 있다. 송사모는 송광사 수련회에 참가했던 수련생과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수련회 이후를 고민하면서 2001년 9월 만든 모임이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현재 여러 사찰에서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모(사찰을 사랑하는 모임)'의 원조격인 송사모의 소임을 맞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대불련 활동을 열성적으로 하던 선배나 후배들이 졸업 후 청년회와 신도회에서 자연스럽게 활동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일 텐데, 여러 이유로 신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나또한 그렇게 되지 말자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잡은 것이 소임을 맞게 된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다.

매월 1회 정기적인 법회를 보면서 "참으로 고생 많은 것을 알지만, 나 처럼 송사모 활동을 통해 힘을 얻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해달라"고 말하는 그 법우님의 말 속에 어쩜 내 수행이 들어있지 않나 싶다.

대중 소임을 맞은 스님들이 선방에서 정진하시는 스님들의 외호를 담당하는 것처럼, 송사모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접하고 신심을 가꿀 수 있도록 모임을 활성화 하는 게 지금 나의 수행이 아닐까 싶다.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행하고 있는 요즘, 내가 누군가에서 받았던 법보시처럼 회향하고 싶다.

아무리 좋은 원력도 여러 시절 인연이 맞아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송사모가 2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송광사 주지 현봉 스님을 포함한 송광사 대중 여러분들의 후원과 회원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행문답 사이버선방에 '자리' 잡는다

"마음이 시비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추어내듯이, 다가오는 상황을 담담히 간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추기만 하면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일 텐데, 의식이란 놈이 자꾸 지금 이 순간 다른 뭔가를 추구하게 합니다. 마음은 왜 제 주장이 없이 인연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드러납니까?"(현정선원 ID '나무')

"보되 봄이 없고, 듣되 들음이 없고, 하되 함이 없어서 여래(如來)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본래 일체만법이 다만 인연으로 말미암을 뿐이요, '짓는 자'도 '받는 자'도 없는데, '누가' 있어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하겠어요? 이 모두가 허망한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허망한 법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 것이 또한 불법임을 알아서, 모름지기 집착하지도 말고 여의지도 말아야 합니다."(대우 법사)

선어록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러한 문답은 더 이상 소수 선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선지식으로 믿어지는 스님이나 재가법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질문을 던지면 된다. 늦어도 하루 안에 선리(禪理)에 어긋나지 않는 법문을 들을 수 있다.

인터넷 질문 하루안에 응답
스님, 법사 등 전문가 직접 점검
친절한 답변 수행자들에 큰 도움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문득 깨닫는다는 '언하변오(言下便悟)'를 가능케 하는 선문답과 점검. 그동안 간화선 수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선지식 및 지도점검 시스템의 부재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문답식 수행점검이 사이버 선방을 통해 정착되고 있다.

현재 자체 사이트를 가진 불교 사이트는 200여 곳. 하지만 일반적인 신행상담을 넘어선 전문적인 수행문답이 이뤄지는 사이트는 20여 곳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정통 조사선의 선문답 형식에 따라 수행문답을 하고 있는 사이트는 '현정선원', '무심선원', '선림도량', '마하수련원' 등이 대표적. 특히 현정선원과 무심선원의 선원장인 대우 법사와 김태완 법사는 실제로 선문답식 법회를 통해 조사선의 공부를 지도하고 있어 온-오프라인 상에서 가장 활발한 문답이 이뤄지고 있다.

선 계열의 사이트에 못지 않게 위빠사나 사이트들의 수행문답도 활발하다. 위빠사나 수행센터의 통합 사이트인 '위빠사나'를 비롯해 '보리수선원', '호두마을', '여래선원', '초기불전연구원', '연방죽선원' 등이 수행 과정상의 의문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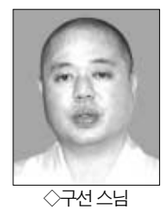
이 중 '위빠사나'에서는 각 수행센터 및 행법별로 스님과 재가법사가 직접 질의에 응하고 있다. 붓다피야 스님이 '붓다피아 월드 게시판'을, 각묵 스님이 '불교 교학의 장'을, 일중 스님이 '고엔카 수행의 장'을, 묘원 법사가 '사념처 수행의 장'을, 정원 법사가 '마하시 수행의 장'을 맡고 있다.

또한 불교명상 관련 사이트들의 문답 코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교 명상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풀어주고 있다. '관수련회'의 구선 스님, '명상아카데미'의 혜봉 법사, '바라보기명상'의 박석 교수(상명대), '참나찾기교육원'의 박민수 원장이 직접 답변한다.

이밖에 염불수행과 관련, 정목 스님은 이론과 수행을 겸비한 답변으로 염불행자들의 환희심을 얻고 있는 '아미타파'를 운영중이다. '호흡에 맞춰 절하기' 수행으로 유명한 청견 스님은 '소리산 참선캠프'에 사이버 수행상담 코너를 마련해 신도 대하듯 자상하게 수행과정을 점검해 주고 있다. 안국선원, 축서사 등 참선도량에서도 신행상담 코너를 통해 수행문답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 바쁜 현대인들의 수행 점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같이 사이버 수행문답은 청법자로서의 예의가 없거나 장난기 있는 불청객, 또는 타종교인 등에 의해 다소 물의를 빚는 경우도 있지만 점차 건전한 수행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는게 사이트 운영자들의 평가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구선 스님


◇붓다피야 스님


◇청견 스님


◇대우 법사


◇박석 교수


◇박민수 법사

◈ 수행문답하는 사이트

단 체	인터넷 주소	대표자
현정선원	www.fuoyee.or.kr	대우 법사
무심선원	www.mindfree.net	김태완 법사
아미타파	cafe.daum.net/amitapa	정목 스님
위빠사나	vipassana.buddhism.org	묘원 법사 등
소리산참선캠프	cafe.daum.net/sorisan	청견 스님
관수련회	www.kwan.or.kr	구선 스님
마하수련원	www.mahazen.org	벽공 스님
선림도량	www.daedosun.org	운거 스님
여래선원	www.buddhapia.cc	붓다피야 스님
호두마을	www.vmcwv.org	혜연 스님 등
안국선원	www.ahnkookzen.org	수불 스님
축서사	www.chooksersa.org	무여 스님
참나찾기교육원	www.minsoozen.pe.kr	박민수 법사
초기불전연구원	www.chobul.com	대림 스님
바라보기명상	www.paraboki.net	박석 법사
명상아카데미	www.bodhitao.com	혜봉 법사

성법스님, 법기회 수행법 비판 연재



극락정사 회주 청봉스님에 이어 '세존(www.sejon.or.kr)' 사이트 운영자인 성법 스님(사진)이 법기회 강정진 법사의 수행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성법 스님이 자신의 사이트 내의 '성법 스님 무설설당(無說說堂)' 코너에 법기회 강정진 법사가 펴낸 <영원한 대자유인>(궁리)을 비판하는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법기거사의 <영원한 대자유인>을 비판한다'는 제목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매일 한 차례씩 글을 올린 성법 스님은 원문에 해당하는 구절을 제시하고 그 밑에 비판 내용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연재하고 있다. 스님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비판하고 오류를 잡을 계획이라고 한다.

성법 스님이 이 글을 연재하게 된 계기는 "최근 나온, <영원한 대자유인>을 비판하는 책 <'영원한 대자유인'을 읽고 허구성을 지적함>(경서원)의 내용이 너무 급조되다 보니 감정까지 실린 듯한 내용 때문에 <영원한 대자유인>을 오히려 도와주는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것.

또한 스님이 생각하기에 "<영원한 대자유인>의 내용에 오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교계에서 제대로 된 비판이 나오지 않고 있고, 큰스님들 역시 별다른 언급을 안 하다보니 책의 내용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 역시 비판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스님, 진짜 그 내용이 맞습니까?"하고 물어오는 불자들이 꽤 많다고 한다.

성법 스님은 이번 비판의 목적에 대해 "상(相)과 명색(名色)에 집착하는 이들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또한 세간과 출세간의 자잘한 시비를 떠나 오직 선사다운 게송과 침묵으로 답하시는 큰스님들의 품위를 지켜드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보리수선원, 미얀마 스님 초청 법회

서울 보리수선원(원장 붓다락키타)는 오는 9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미얀마 우 또다나(U Sothana) 스님과 우 만달라 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연다. 두 스님은 빨리삼장에 능통한 마하시수행센터의 법사들로, <대념처경> 등을 설법한다. 모두 7 회에 걸쳐 열리는 이 법회는 <위숫디 막가>(전 2권 화은각), <아난존자의 일기(전 4권 운주사), <초전법륜경, 무아경>(화은각)의 저자인 범라 스님 통역으로 진행된다. (02)517-2841

김재경 기자

만일염불결사회 철야염불정진

만일염불결사회는 10월 5일(매월 첫째 일) 오전 10시 성남 정토사에서 보광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을 초청, '극락세계 발원문'을 주제로 법회를 갖는다. 이어 10월 18일(셋째 토) 오후 8시부터 철야 염불정진법회를 연다. (031)723-9797

법왕정사, 지도자 과정 수행

양평 법왕정사(주지 청견)가 9월 21일 서울 군자법당 개원식 및 부처님 점안 봉불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도심 수행공간으로 거듭난다. 주말 수련을 중심으로 출가 예정자, 포교사 희망자, 수행지도자를 위한 교육도량으로 자리잡은 법왕정사는 이날부터 군자법당에 4개월 과정의 '불교지도자 수행 과정'을 개설했다. 낮반은 매주 목요일 오후 1~3시, 저녁반은 오후 7시30분~9시30분 수행을 지도하며 예불(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봉독, 108배, 축원 등),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와선 수행 및 도인 체조, 카운슬러 상담 등의 자율수행 과정도 마련했다. (02)456-4994



법구경 강의 80송

불교방송에서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테이프로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 현대인들의 마음에 한구절의 시처럼 쉽게 다가오는 법구경을,

법산스님은 알기쉬운 생활방편을 곁들여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잔잔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 길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 법구경 우암품



구입문의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전 화 (02)706-3502~5
가 격 70,000원(C70×20EA)

BBS 불교방송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

바라밀현장

‘맑고 향기롭게’

시립요양원 음악치료 봉사



◇서울시립요양원 어르신들이 음악치료 프로그램에서 소고를 곁들인 돌림노래 합창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음악치료 전문강사 이순화(54)씨.

노래삼매 푹 빠지면 몸과 마음 ‘거뜬’

매주 전문강사 도우미 자청
가슴으로 이해하려 노력
어르신들 밝아진 모습에 보람

“아~리라앙~ 아리라앙~ 고~추먹고 매앰맴~♬”

김성화 할머니 아리랑 장단이 커지자 이에 뒤질세라 고영환 할아버지의 맴맴 가락이 힘차게 따라붙는다. 자기도 모르게 맴맴 가락을 좇고 있던 김정인 할머니, 옆에 앉은 김정자(57) 교사의 눈길에 정신이 버쩍 들어 아리랑 멜로디로 돌아온다.

9월 4일 서울시립요양원 음악치료 현장. 20여명의 어르신들이 돌림노래 삼매에 빠졌다. 어르신들은 행여나 상대팀 가락을 따르게 될까 싶어 지도 교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멜로디에 집중한다. 그들 사이사이에 끼어 앉은 교사들 역시 어르신들과 눈을 맞추며 노래부르기에 열심이다. 어르신과 마주잡은 손에 땀이 흠뻑 배어도, 몸살 기운 때문에 목에 힘이 없어도 늘 맑고 밝은 모습의 교사들. 바로 ‘맑고 향기롭게(회주 법정스님)’의 음악치료 봉사 도우미들이다.

이들이 시립요양원에서 음악치료 도우미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 요양원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함께한 것이 계기가 돼, 매주 목요일마다 이곳을 찾고 있다. 음악을 통해 어르신들의 재활과 치유를 이끄는 ‘음악치료’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음악치료 전문강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치료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들. 그래서 봉사팀(간사 연혜숙)은 ‘노래하는 약사보살’로 통한다.

“처음만 해도 입 한번 떼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요즈음에는 저희들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랍니다.”

방명희(48) 씨의 말대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한 어르신들은 예전과 확실히 달라졌다고 한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의 닫힌 마음을 증명해 보이듯 낯가림에 적대적인 모습까지 드러내던 어르신들. 봉사팀은 그들에게 딸처럼 다가가 일상을 묻고 얘기를 나누며 벽을 허물어 갔다. 그래서인지 이제 몇몇 분들은 화장까지 곱게 하고 음악치료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헤어질 시간이면 꼭 잡은 손에 따뜻한 정을 오롯이 실어보내기도 할 정도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지난주보다 더 커지셨네요.”

“나? 커지긴 뭘… 도라지 한번 불러볼까?”

경계의 눈초리로 봉사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고영환 할아버지는 이제 시키지 않아도 도라지 타령으로 한 목소리 멋드러지게 뽑아낸다. 70대에 질 수 없다고 일어선 80대 대표이이남 할머니는 ‘산 너머에 두둥실 흘러가는 저 구름’을 노래한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트로트 가락에 20여명 어르신들 손에 쥐어 있던 소고들이 신나게 춤을 추고 봉사 선생님들 어깨도 어느덧 들썩이기 시작한다.

“불과 1주일 전에 손잡고 함께 입을 맞추던 어르신이 일주일 만에 세상을 뜨신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재밌는 프로그램도 아직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데…”

말끝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오은주(43)씨.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도 즐겁게 노래하시던 그 어르신의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냐는 도반들의 말을 위로 삼는다. 그리고 다짐한다. 매순간 그 같은 절실함으로 어르신들을 대하기를. (02)939-6176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민속촌, 짱이예요”



◇상락원 장애아동들과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봉사자들이 민속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상락원 장애아동 20명과 나들이

민속촌의 볼거리가 아이들에게 깨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은 비도 그치고 선선한 가을바람까지 불어 나들이 식구들에게는 안성맞춤. 일행은 정자에 앉아 도시락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차 속에서 신나는 게임을 즐기기도 했다. 민속촌에 도착해서는 세계 민속관과 한국 민속관을 꼼꼼이 훑어보면서 세계 곳곳의 생활상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다.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데려오는 건데….”

9월 8일 상락원 장애 아동 20명과 한국민속촌 나들이에 나선 20여명의 불교자원봉사연합회 회원들. 그들은 “상락원의 아이들을 3년 넘게 봐왔지만 오늘처럼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며 “명절의 흥이 한껏 살아난

아이들은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생활상이 눈앞에 재현된 것을 신기해하며 시종일관 흥미로워하는 분위기였다. 풍물패 공연을 보면서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신명나는 흥을 돋우기도 했다. 봉사자들은 늘 그랬듯이 자기가 맡게 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졌다. 3년 넘게 상락원을 찾아 갖은 봉사들을 도맡아왔기에 눈빛만 봐도 아이들의 마음을 알 것 같다는 봉사자들이다.

40여 장애우와 봉사자들을 이끈 김옥자(53)씨는 “아이들에게 좋은 구경을 많이 시켜주며 밝고 맑은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상락원=(02)921-6410

강신재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칸드로 린포체 (上)

마음과 대상의 불가분성 강조

“행복과 사랑을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이 동체대비심 그리고 지혜, 관용의 정토를 창조하기를…. 우리의 수행이 어떤 편견도 없는 올바른 실천적 동기와 결합되기를 발원합니다.”

인도 삼텐체(Samten Tse)수행센터 원장인 칸드로 린포체(Khandro Rinpoche)는 티베트 불교 닝마(Ningma) 파의 수장인 민드롤링 티첸(Mindrolling Tichen) 스님의 딸로서, 1967년 인도 칼림퐁(Kalimpong)에서 태어났다. 두 살 때, 그는 제 16대 카르마파(Karmapa)에 의해 유명한 비구니 고승이었던 칸드로 우곈 쏘모(Khandro Ugyen Tsomo)의 환생으로 공인받았다.



◇칸드로 린포체.

16대 카르마파 고승의 환생으로 공인
실천없는 깨달음에만 매달리는 삶 우려

이에 따라 칸드로 린포체는 티베트 불교의 카규(Kagyu)파와 닝마파로부터 모두 인정받는 스승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영어, 티베트어, 힌두어에 능통한 그는 인도의 ‘성 요셉 수도원’과 ‘성 매리 수도원’ 등에서 현대 교육을 받았다.

칸드로 린포체는 1987년부터 유럽과 미국, 남아시아의 카규 및 닝마파 사원에서 활발하게 출·재가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가 설립한 삼텐체수행센터에서는 사미니와 서구 여성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명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 곳에서 그는 교학과 수행에 대한 비전과 이상을 쏟아부으며, 출가 및 재가 수행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젊고 개방된 생각 때문인지, 칸드로 린포체의 수행 지도는 쉽고도 유머있는 법문으로 현대인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장점이 있다. 이를 테면 칸드로 린포체는 ‘명상’을 전혀 신비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최상의 명상은 대체 명상이란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으로서 태어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남으로써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감각과 지혜를 지니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이 바른 것인지 여부를 인식하고 자각합니다. 이것이 명상입니다.”(1995년 ‘카규 라이프 인터내셔날’ 중에서)

이처럼 그는 ‘영적인 명상’이란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지나친 ‘깨달음 지상주의’도 또다른 욕망임을 경계한다. ‘깨달음을 향한 엄청난 경주’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성이란 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 명상이란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깨달음에만 매달려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을 소홀히 하게 된다”고 우려한다. 때문에 그는 마음과 대상의 불가분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의 가르침에 있어서 명상의 참된 의미는 진리, 모든 것의 실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승(Vajrayana)의 가르침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체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투사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상, 느끼는 대상, 생각하는 대상은 이 마음이 그것을 투사하고 느끼고 이해하는 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연스런 전개는 현재의 나, 내가 투사한 것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이 둘의 불가분성은 우리가 항상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계속)

김재경 기자

현정 스님의 우리말 염불참선

그리움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 3,692글자 + 선근인연연가 824글자 + 부모은중가 996글자 + 불전참회가 623글자 + 회향산회가 752글자를 모두 합해 6,887글자로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분당 125글자를 염불했습니다. 55분 동안 장엄하고 아름다운 염불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한권의 책 6,887글자는 모두 염불테이프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움의 노래는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법문! 이와 같이 신명나는 염불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이 법을 전하세요 /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

● 앞면 : 그리움의 노래 -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처의 세계가 어떤곳인가를 알게하고 염불참선의 진미를 들려줍니다.

● 뒷면 : (1)선근인연가 - 민족과 국가의 인연에서부터 고향. 이웃 가족의 인연이 맺어지기까지 인연의 고리를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2)부모은중가 - 부모! 오늘의 우리들은 그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식이면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절절한 은혜의 노래

(3)불전참회가 - 참회.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노래합니다.

(4)회향산회가 - 참아라! 참아라! 그리고 또 참아라! 부처님은 왜 우리들에게 그토록 인욕을 당부하셨을까요? 들어보면 알게됩니다.

● 책+테이프 = 5천원 / 입금은라인 : 우체국 501023-01-000379(금산정사)

※ 단체주문환영. 법보시 하실 분은 주소 알려주시면 직접 우송

신청전화 (061)843-8822 금 산 정 사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제15기)

● 지도방법 : ① 출강 …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후 6시~8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학습내용

① 송주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 · 중단되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현재 접수중)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개강일시 : 10월 8일 (수) 오후 6시, 본 대학 강의실(목탁, 필기구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의 특징 -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지도와 편의 제공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위지 : 서울 조계사 근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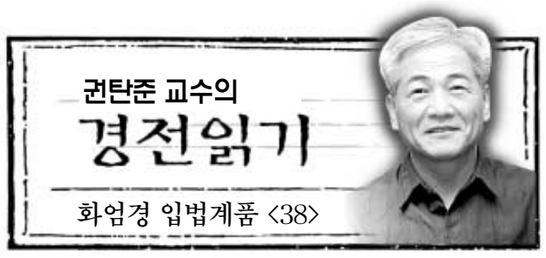
한국불교법사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

바라작법반 모집

49재 천도재 등 법회시 필요한 바라 작법 및 북 · 태징 · 사물 다루는 법을 자세하게 지도함.

- 수련기간 : 6개월과정(제6기)
- 교육시간
매주 월요일 5시~7시(2시간)
화요일 3시~5시(2시간)
- 개강일시
10월 6일 (월) 오후 5시
본 대학 강의실
- 학습내용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점안의식 등 (법주 · 바라지 교육전문)
작법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복청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사물 : 북, 태징 등 사물 교육
- ※접수방법 : 불교의식반과 동일



부동 우바이의 법문

모든 법 구하되 싫음이 없는 광명 성취
한결같고 굳센 보살의 수행자세 일깨워

선재동자는 대광왕으로부터 남쪽의 안주(安住)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부동(不動) 우바이를 찾아가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서울에 이르러 부동 우바이가 있는 곳을 물어보니, 그녀는 집에 있으면서 한량없는 친족들에게 묘법(妙法)을 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집을 찾아가 집안으로 들어서니 금빛 광명이 두루 비치는데, 이 광명에 닿은 사람은 몸과 마음이 청량해졌다. 그녀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고결하여 잠깐 보기만 하여도 모든 번뇌가 저절로 소멸될 정도였다. 이러한 용모 외에도 몸에서는 한없는 광명이 나와서 중생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몸의 털구멍에서는 항상 묘한 향기가 나왔다. 거기에다가 권속은 셀 수도 없이 많고 궁전도 지극히 화려하였다. 선재동자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환희심을 내어 찬탄하면서 그녀에게 가르침을 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동 우바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꺽을 수 없는 지혜장(智慧藏)해탈문 · 견고하게 받아지니는 수행문 · 모든 법을 평등하게 모두 지니는 문 · 모든 법을 밝히는 변재문 · 모든 법을 구하는 데에 고달파하지 않는 삼매문을 얻었다."

선재동자가 다시 그녀가 터득하고 있는 것들의 경계가 어떠한가를 묻자, 부동 우바이는 자신이 불도를 수행하게 된 인연과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지난 세상에 수비(修臂)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을 때에 나는 국왕의 딸이었다. 밤중에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누각 위에서 별을 보고 있다가 허공에 계시는 그 부처님을 뵈었다.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예배드리면서, 나는 '부처님 세존께서는 어떠한 업을 지었기에 이렇게 훌륭한 몸을 얻었으며, 거룩한 모습이 원만하고 광명이 구족하며, 권속을 많이 두고 궁전을 장엄하며, 신통이 자재하시고 변재가 걸림이 없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 때 여래께서 나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번뇌를 없애라. 이길 이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집착을 깨뜨리라.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내어 깊은 법문에 들어가라. 참고 견디는 마음을 내어 나쁜 중생을 구호하라. 의혹이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길에 태어나라. 싫어함이 없는 마음을 내어 부처님 뵈오려는 생각을 쉬지 말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내어 모든 여래의 법비(法雨)를 받으라. 옳게 생각하는 마음을 내어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내라. 크게 머물러 지니는 마음을 내어 여러 부처님의 법륜을 굴리라. 널리 유통하려는 마음을 내어 중생의 욕망을 따라 법보를 널리 베풀라' 고 하셨다.

선남자여, 나는 그 부처님 계신 데서 이러한 법을 듣고, 온갖 지혜 · 부처님의 열 가지 힘 · 부처님의 변재 · 부처님의 광명 · 부처님의 육신을 구하였다. 선남자여, 내가 이 마음을 낸 후부터는 탐욕을 생각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고 다른 중생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한 겁 동안에 받아 지닌 여러 부처님의 바른 법을 한 글자 한 구절도 잊지 않았다. 그 동안에 여러 보살들이 묘한 행을 닦는 것을 보고 한 가지 행도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또 내가 본 중생들 중에서 한 중생에게도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도록 권하지 않은 적이 없다. 선남자여, 나는 그때부터 항상 모든 중생의 번뇌를 없애고, 그들의 좋아함을 따라 몸을 나타내며 훌륭한 말로 모든 중생을 깨우친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모든 법을 구하여 싫음이 없는 삼매의 광명을 얻고, 모든 중생에게 미묘한 법을 말하여 기쁘게 할 뿐이다."

위의 내용은 부동 우바이의 의보(依報)인 거처하고 있는 곳과 정보(正報)인 신체의 용모가 훌륭한 것이 끊임없는 지계 · 인욕 · 정진 등의 보살행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갖추어졌다고 하는 것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부동 우바이는 다시 자신의 수행의 연기(緣起)로써 자세히 설하고 있다.

부동 우바이는 스스로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미진수의 겁을 지나는 동안 여러 부처님의 정법을 한 글자 한 구절도 잊지 않고 지니어 왔다. 그리고 그 동안 여러 보살들이 훌륭한 행을 닦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것을 모두 성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부동 우바이는 싫음이 없는 삼매의 광명을 얻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중생에게 미묘한 법을 말하여 그들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녀가 머무르고 있는 곳의 이름이 안주(安住)인 것은 항상 진실한 법에 의지하여, 외부의 경계에 의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이고, 그녀의 명칭이 부동(不動)인 것은 발심한 이래로 무량겁을 지내오면서 세속의 욕심과 성냄과 원한 등에 의해 흔들리는 일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부동 우바이의 법문을 통해 한결같고 굳센 보살의 수행 자세를 배우게 된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선의 세계 ⑪

직지인심-10

십이연기설에 관해서는 편의상 조계종 포교원에서 편찬한 <불교교리>(조계종출판사, 1998)에 제시된 설명(183~184쪽)을 사용하기로 하자. 여기에서는 무명을 "존재의 자연스런 흐름에 대한 역전(逆轉)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말이 좀 까다로운데, '존재의 진상을 모르고 이에 거스르는 어리석음' 이라고 바꾸어도 좋겠다.

행(行)은 "그 역전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결합 작용," 식(識)은 "결합 작용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식별하는 것"이라고 해설하였다. 그 다음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이 공존하는 상태"(명색, 名色),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바탕으로 개체의 주관성이 확립되는 단계"(육처, 六處), "이미 발생한 다양한 존재들의 부딪침"(촉, 觸), "자신의 존재에 대한 총체적인 느낌을 통한 확인"(수, 受), "즐거운 느낌에 대한 갈애"(애, 愛), "갈애의 대상을 자기화하는 행위"(취, 取), "취하여진 대상이 자기가 되어 버린 것"(유, 有)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오온(五蘊)과 육근(六根)의 나타남"인 생(生)과 "오온과 육근의 붕괴"인 사(死)로 귀결된다.

이해가 될 듯 말듯하다고 조바심 내고 낙심하지 마시라. 어쩌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만큼 까다로운 이야기이다. 여기에서도 다시 욕먹을 각오를 하고 단순한 이해를 구해보자.

무명, 즉 어리석음과 함께 개체로서의 주관이 일어나고 따라서 자기 자신과 객체의 구별이 일어난다. 그렇게 주와 객이 별개의 존재로서 서로 접촉하여 지각과 감각, 즉 인식이 일어난다. 객체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주체로서의 자기의 개체성을 확인하면서, 객체에 대한 온갖 판단 그 자체를 자기 자신의 자아로 삼는다.

연기의 세상에서 보면 '생사' 따로 없어

그러니 우리가 생일이 있고 죽는 날이 있을 나 자신이라고 여기는 존재, 의심할 바 없이 엄연한 개별자이며 주체로 여기는 나의 존재가 실상은 지각, 감각, 인식의 덩어리이랄까 흐름이랄까 뭐 그런 것이라는 얘기이다. 그 덩어리, 흐름은 흩어지게 마련이고, 그 필연적인 사태를 두고 우리는 죽음이라고 애통해 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이해해보자고 했지만 이것도 별로 쉬운 이야기는 되지 못하였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 자신, 그리고 그 밖의 현상 및 사물을 구별하기만 하는 사고방식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의 개체로 자신을 설정해 놓고 보니, 그 또한 모든 개체와 마찬가지로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운명으로만 여길 수밖에 없다. 개체의 생겨나고 없어짐은 개체를 단위로 보면 엄연하고 절실한 일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세상 전체를 단위로 해서 본다면 그것은 아예 있지도 않은 일이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아(我), 즉 독립된 개별자로만 보면 모든 것이 생멸(生滅)하는 존재로만 보인다. 그러나 연기(緣起)의 세계 속에서 모두가 서로 얽혀 있는 존재, 즉 연기적 존재라고 보면 생사라는 것이 애초에 없다.

그러니까 무명이 생사의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십이연기설을 단순화시키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 우리가 생사라고 여기는 현상은 모든 것을 개별자로만 보는 어리석은 버릇 때문에 절실한 사실로 여겨질 뿐이지, 연기의 세계에서 보자면 실상은 생사라는 것이 아예 없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연기라는 세상의 진상을 깨달음으로써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14>



생명과학이 가는 길

사람을 비롯해 모든 생명체들의 존재라는 것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생명체는 인연에 의해 뭉쳐져 육신을 지니게 되었고 그 인연이 다하였을 때 각자를 이루고 있던 것들은 흩어져 각각의 길로 떠나면서 개체를 이루고 있던 우리의 육신은 소멸되어 흩어진다.

이렇게 인연이 흩어지게 되는 과정 중에 소위 육신의 병이라는 것과 늙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미 개체를 이루어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우리는 당황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인연을 붙잡고자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소위 요즈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이 아닐까 한다. 생명체의 물질적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 유전자에 대한 조작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최근 생명과학의 발달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

생로병사 막는것 스스로에게 짓는 惡
탐착심 버리고 불자다운 삶 추구해야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우리 불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칠불통계(七佛通偈)를 다시 보면, 제악막작 중선봉행(諸惡莫作 衆善奉行; 착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지마라)이란 불자로서 깊이 명심해야 할 구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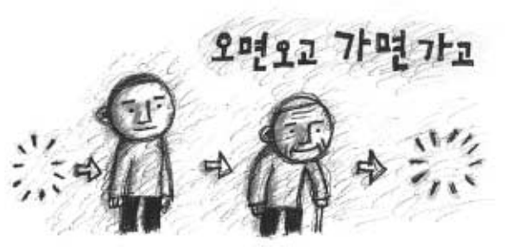
물론 대승의 불이적(不二的) 관점에서 선과 악이 둘이 아니며,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고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다 하지만, 이 게송을 보면 분명 불자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을 악이라 할 것인지 알아야 함을 말 해주고 있다. 물론 많은 기준이 이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나로서 굳이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을 말한다면 법(진리)에 수순(隨順)하여 여법(如法)하게 사는 것이 선이고, 법에 어긋나게 사는 것이 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상 만물이 이합집산(離合集散)과 성주괴공을 되풀이하기에 생로병사는 제행무상의 진리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의심하지도 않는 병들고 늙음을 두려워하고 이를 막으려고 애쓰는 마음이야 말로 그 자체로서 어쩌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짓는 악인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자기화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몸을 받아 생로병사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본디 그러함을 알아 오직 연기적 인과에 따라 가고 옴에 있어서도 두려움 없이 작은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야심경>에 있듯이 이렇게 우리를 이루고 있는 오온이란 단지 모였다가 흩어지는 공한 것임을 보아 애착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가?

불자로서 삶을 이렇게 본다면 작금의 눈부신 생명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또 어떻게 추구해야 할 것인지가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결코 허황된 탐착심을 위한 길이 아닌 경전 말씀처럼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줄 수 있도록 가야 될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대 불 광
이 전
조계사 새역사기념관 앞
중요무형문화재 108호 목조각장
허 길 량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1번지
02)738-1117~8 011)259-8523

불광불교대학 교직원 모집
불광불교대학은 …
1. 한국불교 '전법 1번지' 로서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명문(名門)의 축적된 역량
2. 불교 정수(精髓)인 반야바라밀 · 보현행원사상을 밝게 전법하는 '순수불교' 근본도량
3. 초발심과정에서부터 지도자과정까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눈 높이' 순차(順次)교육
4. 서로 도우며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불자 우애의 신행공동체인 '도반 · 동문' 조직
5. 금하광덕 큰스님의 높으신 유지를 이어받아,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는 그 누구도 부처님 법 공부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무차(無遮)' 교육
▣ 모집부문 및 내용
– 모집 : 교육담당 고졸 1명, 교육담당 대졸 1명
– 내용 : 학사관리 및 교무관리
▣ 응시자격
– 불교를 신행할 수 있는 자
▣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경력자는 경력 위주로 기술)
– 주민등록등본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 경력증명서 – 컴퓨터 관련 및 각종 자격증 사본
▣ 접수(온라인 입사 지원)
– 접수기간 : 9월 30일한(접수순 우선 심사)
– 이메일 : aloka-edu@hanmail.net
(등본, 증명서, 사본 등은 이미지로 첨부 또는 우편접수)
※ 기타문의 : 교무처장 02)414-4407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광불교대학
(138-844)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83 http://www.bulkwang.org
전화 : 02)417-2551(대표) 팩스 : 02)417-2552

氣찬 명당을 만들어 주는 명당 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 처방을 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신비의 황금보물 명당육氣방 051)865-9933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www.6kibang.co.kr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향기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향기운으로 변합니다.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38화)

"순수의식, 즉 공(空)으로의 여행"

〈출전 : 남전 상응부 경전 23.25.無常〉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 태풍 '매미'

버스 지난 뒤 손 흔들어봐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 하라' 고 할 정도로 추석은 우리 민족이 가장 즐거워하는 명절이다. 한 해의 성과를 얻고 조상님들께 그 결실을 맨 먼저 올리는 가장 풍요로운 때이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이번 추석은 즐겁기만 할 수 없어 안타깝다. 가을에 태풍이 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고 크고 작은 태풍 피해로 슬픈 일을 겪은 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온 가족이 모인 명절에 이토록 엄청난 태풍 피해는 처음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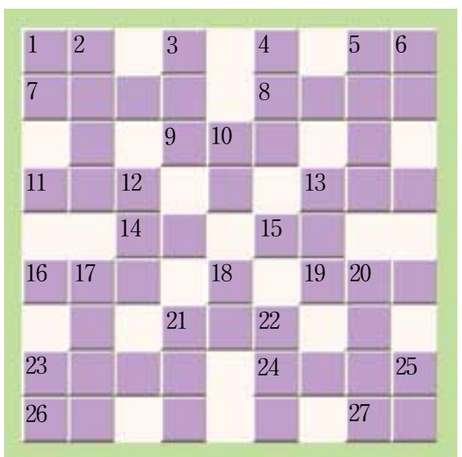
태풍이 처음 우리나라에 상륙한 날, TV의 보도를 보던 선재는 너무 답답하기만 했다. 이제 막 남쪽에 상륙하여 경상도를 통해서 울릉도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은 하면서도, 제주도를 강타한 바람이 사상 최고인 초속 60m라고 하면서도, 정작 한 시간에 42㎞를 움직이는 태풍이 어느 지역을 지나게 되니 어떻게 대비하라는 말은 없었다. 다급한 '뉴스특보'에는 그저 피해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스포츠 중계하듯 보여줄 뿐이었다.'

기본적으로 언론이 할 일은 37조도품의 '사정근(四正勤)'을 실천하는 일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을 끊는 노력, 이미 생긴 악을 끊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생기게 하는 노력, 그리고 이미 나타난 선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특보에서는 그 어느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을 끊으려는 노력 중에 제 일은 계율을 잘 지키는 일이다. <현우경>에서는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계율을 범하지 말라. 계율은 도에 들어가는 기초요, 번뇌를 없애는 길이며, 열반에 이르는 길이니라"고 한다. 계율이라고 해서 별 다를 것이 있겠는가.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늘 하면서 혹시 있을 앞으로의 나쁜 점을 미리 막고 사는 일이 바로 계율을 지키고 사는 일이다.

예로부터 계율이라는 그릇에 선정의 물이 담겨 있어야 지혜의 달이 비친다는 경구가 있다. 언론이 뒤늦게 모금방송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라는 계율의 그릇을 마련했어야 할 일이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가로

1. 잘못을 반성하여 깨달음 5. 하늘 위 7. 진리세계의 모든 것, 전 우주 8. 최초의 일념 9. 고려시대 사찰에 분급되었던 田地 11. 값이 알려져 있지 않은 수 13.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 14. 밥 따위를 먹는 일 15. 물을 정화 함 16. 고려 때 통역하는 일을 맡아 보던 관아 19. 원고를 작성할 때 쓰는 일정 규격의 종이 21. 남을 청하는 글이 담긴 문서 23. 달빛도 희고 눈도 희다 24. 108개의 구슬로 만든 염주 26. 동으로 만든 관 27. 불교에서 쓰는 紀元.

세로

1. 마음에 품은 뜻이 한결같이 참되고 곧음 2. 두 무릎과 팔꿈치 이마를 땅에 붙여 절하는 것 3. 포살할 때 계법을 읽는 사람 4. 기원의 이전(BC) 5. 천일 동안 기도하고 수행하는 일 6. 마음에 떠도는 생각 10. 물이 흐르는 근원 12. 나고 드는 숨을 세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관법 13. 과실나무를 재배하는 농장 17. 모든 문관과 무관들 18. 계를 받은 증명서 20. 높은 소리로 외우는 염불 21. 청렴한 관리 22. 백두산의 다른 이름 23. 겨우살이 25. 한 바퀴 도는 시기.

〈439호 「교리퍼즐」 정답〉

전	일		예		애		미	타
유	구	무	언		완	가	사	법
	원		자	타	견		여	
단	심	가		당		달	구	벌
		택	일		기	마		
유	일	신		마		도	자	기
	체		미	술	대		승	
중	중	무	진		자	화	자	찬
신	생		수		비		박	사

육 법 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납골당 설치 및 운영방법 안내

사회문제로 대두된 묘지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화장 장려 정책' 이 효과를 보게 되어 대부분 국민들이 화장 문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정함으로써 점차 화장을 하는 수요가 늘어나지만 아직 납골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탓에 납골 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납골문화발전과 사찰 납골당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장안낙원에서는 획기적인 **"사찰 납골 활성화 사업"**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여 범위]
- 납골(추모)당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찰
- 납골(추모)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찰
- 납골 시설 설치부지가 협소한 사찰

해결방안

[장안낙원 지원사항]
- 납골당 시설 및 관리 운영에 대한 노하우제공
- 각종 법률적인 인허가 문제 해결
- 최고 시설의 안치단 저가 보급
- 각종 제사 유치로 부대수입 기대

초기 기획에서부터 납골시설 허가, 설치공사, 신도확보, 납골당 운영까지 책임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 031)901-1954, 017-755-1954, 011-276-2135

■ 주 최 : 장안사 장안낙원 ■ 협 력 : 한국납골문화연구원

옛날책으로 보는 한글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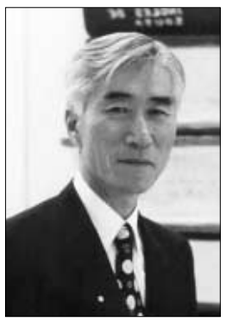
◇1648년 간행된 통도사판본 <불설대보 부모은중경언해>.

'고서(古書)'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혹시 한자가 빼곡히 들어찬 책들만 '고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국출판학회 명예회장이자 출판사 '범우사' 대표 윤형두(68 · 사진) 씨는 "한자만으로 인쇄된 옛 전적은 어딘지 중국책 같다는 생각이 들어" 40여 년 간 한글본을 수집해 왔다. 이번에 펴낸 <옛 책의 한글판본>은 윤 씨가 모은 옛 문헌들 중 한글본 36종만을 가려 담은 책이다.

고서를, 그것도 한글본을 수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한자본에 비해 한글이 들어있는 언해본은 숫적으로도 적을 뿐더러 몇 배 씩이나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었던 것이다. 왜일까?

훈민정음이 반포된 조선 초기에는 <용비어천가>나 <월인석보> 등 한글본이 간행되었고, 세조 때는 간경도감에서 <능엄경>, <원각경>, <화엄경> 등 불서를 한글로 펴냈다. 그러나 그 후 왕실이나 관(官)에서는 한글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다행히 언해본의 명맥을 이어온 것이 바로 사찰에서 간행한 포교용 불교서적이다. 이 책에 소개된 36종의 한글본 중 불경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옛책의 한글판본'

윤형두 지음

범우사 / 9천원



옛문헌 36종 사진과 함께 연대순 엮어

사찰 간행 불경 언해본 명맥 유지 한몫

임진왜란 등을 거치며 더욱 주춤해진 한글 보급은 1700년대 말인 정조 때에 이르러 활발해지기 시작해, 용주사판 <부모은중경 언해본>(1796년)과 <오륜행실도 언해본>(1797년) 등이 간행되기도 했다.

"한글은 세계 어느 나라 문자와도 닮지 않은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는 윤 씨는 "간편하면서도 정밀한 한글의 창제는 세계 문자역사에 있어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그는 "한글본을 수집하며 한글 사랑은 곧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일임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이 책에 대해 김두식 교수(혜전대학 출판미디어과)는 "그동안 한글의 생성과 변천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 흔치 않았는데 <옛 책의 한글판본>은 바로 그 간극을 메워줄 책이다"며 "책에 실린 문헌 사진들은 한글의 변천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평가한다.

책에서는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최초의 언해본인 <능엄경언해>(1462년)와 통도사 판본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1648년), 밀양 표충사에서 간행된 <불설아미타경언해>(1904년) 등 한글이 담긴 옛 문헌 36종을 사진과 함께 연대순으로 볼 수 있으며, 고딕체에서 해서체를 닮아가는 글자체와 '아래 아(·)'의 사용 변화 등 한글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단풍속 산사가 그리운 계절



'나는 오늘 사찰에 간다'

글/사진 정병삼

풀빛 / 2만5천원

곱게 단풍이 든 산자락에 포근히 안긴 산사가 그리운 계절, 가을이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린 초록의 싱그러운 봄날이나 맑은 물소리가 경쾌한 여름, 흰눈으로 뒤덮인 겨울 산사가 모두 '그리움'의 대상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사찰이라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

전국 사찰구조 등 소개

이러한 사실을 숙명여대 한국사학과 정병삼(49) 교수는 "우리 전통적인 절은 자연과 어울리는 따뜻한 품을 지녔다. 지세를 살펴 정기가 모인 곳에 건물을 지어 가람을 이루되 반드시 지형의 분위기를 거스르지 않는 조화를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보든지 주변 정황과 어울린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 교수가 최근 펴낸 <오늘 나는 사찰에 간다>는 그가 30여년 동안 전국 각지의 사찰을 구석구석 살핀 기록과 직접 찍은 사진을 담은 '사찰 안내서'다. 특히 절을 구성하는 구조물의 의미를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쓰려고 한 정 교수의 노력이 곳곳에 엿보인다.

책은 절에 들어서서 제일 처음 마주치는 일주문에서부터 천왕문, 범종각, 대웅전, 영산전, 팔상도의 의미는 물론 석탑과 석등, 탱화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다. 무심결에 밟던 길 하나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자 했던 선조들의 뜻을 알아나가는 것도 이 책을 읽는 즐거움 중 하나다.

"그저 산이 좋아 산에 오르다보면 대개 가장 알맞은 자리에 가장 적절한 모양새로 자리잡은 산사를 만나게 된다"는 정 교수는 "이 건물은 왜 여기에 있고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를 살피다보면 절 자체를 살아있는 문화 현장으로 여기게 된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약사여래부처님공덕 칭송



'약사 유리광여래 칠불본원공덕경'

'생전예수재 참회의 공덕'

만다 스님 지음 / 문예마당 / 각 1만3천, 1만원

통도사 대전포교원 용수사 주지 만다스님이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과 <생전예수재 참회의 공덕>을 펴냈다. <약사유리광…>은 당 나라 때 의정(義淨) 스님이 707년 번역한 것을 만다스님이 우리말로 옮기고 한문을 함께 실었다.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선근공덕을 쌓기 위한 생전예수재의 의미를 담은 <생전예수재…>에서는 예수재를 올리는 이유를 <지장보살 본원경>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마음챙김' 세 경전 우리말로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 5천원

부처님은 어떤 수행법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을까?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길이라고 알려져 있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出入息念)'이 언급된 세 경전을 초기불전연구원장 대림스님이 우리말로 옮겨 담은 책이다.

1장은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경>을, 2장은 부처님께서 라훌라 존자에게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를 하라고 설한 <긴 라훌라 교계경>을 옮긴 것이다. 3장은 <청정도론>에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의 명상주제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풀어 놓았다.

박해 딛고 일군 '이슬람' 소개





'무함마드' '꾸란'

나종근 엮음

시공사 / 각 1만원

<무함마드>에서는 온갖 고난 속에서도 알라의 가르침을 믿고 이슬람을 이끈 무함마드의 전기로, 메카가 생성된 당시부터 무함마드의 사후까지 이슬람의 기본적인 계보를 총체적으로 훑고 있다.

<꾸란>은 이슬람의 성전 '꾸란'을 이슬람을 이해하기 위한 '문명 가이드 북'으로 읽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 자	출 판 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 공 사
2	산중일지	현칙 스님	지 영 사
3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	비키 매킨지	김 영 사
4	더 오래된 과학, 마음	허버트 벤슨 외	여 시 아 문
5	파드마 삼바바	백 이 제	민 음 사
6	영원한 대 자유인	강 정 진	궁 리
7	시공불교사전	곽 철 환	시 공 사
8	영원한 대자유인을 읽고	청봉 스님	경 서 원
9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정 수 일	운 주 사
10	사람	서옹 스님	고 요 아 침

도서 안내 :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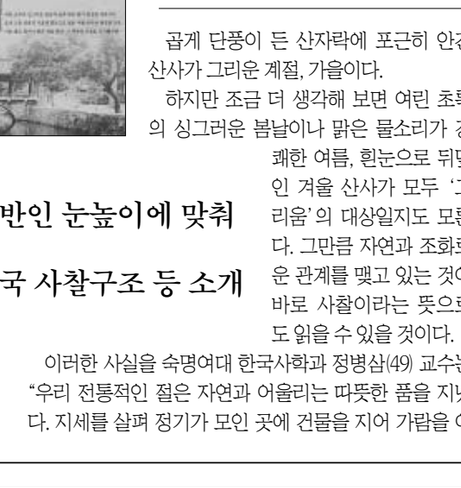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www.sigongsa.com 전화(02)588-0833 팩스(02)588-0835 시공사

한 권으로 된, 제대로 쓴 우리 불교사전

시공 불교사전

외국사전들의 짜깁기가 아닌, 한국인이 쓴 최초의 불교사전!!



『시공 불교사전』은 불교경전을 읽는 불자들뿐만이 아니라 역사, 철학,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항상 곁에 두고 참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불교사전의 첫 걸음으로 기록될 만하다. - 불교신문

『시공 불교사전』은 사전의 부피만 늘일 뿐 독자들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단어들은 배제하고 실제 필요한 단어들만으로 구성했으며, 설명을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하는 데 주력했다. - 현대불교

『시공 불교사전』은 불교학자 수준이 아닌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사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한 기존의 불교사전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했다. - 법보신문

『시공불교사전』은 한 권으로 보는 불교 개념어 사전을 지향하며, 모든 표제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 쓰고, 풀이에서는 가능한 한 불교 용어를 쓰지 않았다. 날말 풀이 성격의 사전이 아닌, 개념어 완전 이해식 서술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 사전이다.

곽철환 편저 | 신국판 양장, 케이스 | 768쪽 | 값 38,000원

가장 행복한 공부

우리 시대 큰스님,
청화스님의 맑고 깨끗한 법문

40년간 하루도 바닥에 등을 대고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의 수행,
하루 한 끼만의 식사, 그리고 철저한 계행(戒行)의 삶……
불교계의 큰 어른 청화 스님이 전하는 행복한 마음 공부

"참선을 잘하면 내가 없고 네가 없고 미운 사람,
좋은 사람도 없어집니다. 나날이 좋은 날이고 때때로 좋은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나다, 너다, 좋다, 궂다, 시비를 다 떠나서 천지우주의
순수 에너지, 순수 정기인 부처님만 생각하는 것이
참선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부는
바로 우리 마음이자 내 생명의 근본인 동시에
우주 만유의 근본자리인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화스님 말씀 | 신국판 | 269쪽(컬러 화보 포함) | 값 9,000원



‘내안의 화 다스리기’

베티 퍼킨스 지음 / 박윤정 옮김

휴먼 & 북스 / 9천5백원

화가 나거든 내면으로 눈 돌려라

삶은 ‘관계’의 연속이다. 우리는 누구나 관계속에서 자신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깨달으며 살아간다. 수많은 관계들 중에는 우리를 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가하면, 화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도 있다. 이 책의 초점은 후자에 맞춰져 있다.

화가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거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관계에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화가 났을 때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라고 충고한다. 저자는 우리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겨나 자신은 물론 타인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화(火), 질투, 시기의 감정들을 사자에 비유한다. 그래서 자기 안의 화를 다스리는 것은 사자 조련사가 야생 사자를 길들이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역설한다. 여기서 ‘사자를 길들인다’함은 곧 긍정적인 방식으로 타인들을 대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다시말해 그 갈등의 저변에 있는 두려움을 녹여 없애는 선택이다. 또한 통제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속에서도 위엄과 존경심을 잃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자는 또 대면하기 어려운 사람, 이유 없이 싫은 사람, 불쾌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즉각 중단하라고 충고한다. “그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 “가식적이야”, “너무 우울한 사람이야” 등의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은 다름 아닌 우리 내면의 투사, 즉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유없이 싫은 사람” “말이 너무 많아”
내면의 부정적 판단 즉시 중단 권고

저자는 마음속에 쌓여 있는 화, 분노, 불만 등의 감정적 잡동사니들을 청산하고 내면을 치유, 타인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삼켜두었던 울음의 표출, 전하지 못한 생각의 표현, 억눌렀던 부정적 감정의 표출, 자신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용서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저자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내면 치유 과정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은 곧 세상을 향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신의 행위는 내 삶과 관계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들의 삶과 관계있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확장시켜 보면 결국 내 행위는 평화와 이해에 기반을 둔 공동체의 창조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20여 년에 걸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토대로 저자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되돌려줄 실질적인 테크닉들을 이 한 권의 책속에 고스란히 담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은 물론 힘들게 하는 타인들을 대하는 법에 대해 확실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유머로 가득한 이 책은 삶에서 맞닥뜨리는 ‘사자(화, 질투, 갈등, 스트레스, 어려운 사람 등 다루기 힘든 유 · 무형의 존재)’들을 내면의 이해와 개인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변화시키도록 도와준다. 책을 읽는 동안 저자가 제시하는 트레이닝 포인트대로 실행해나가면, 마지막 책장을 덮을 때 자기 내면의 ‘사자’를 완벽하게 길들여 타인과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현대불교미술… 그 새로운 시도

도심 포교당의 모자이크 불상등
짧막한 글 · 사진으로 엮어 소개



‘예든던 풍경소리 이제 다시 보노니’

글/그림 이지누

길상사 / 1만3천원

이 책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길상사의 경내 풍경을 잠언 형식의 짧막한 글과 사진으로 엮은 것이다. 그래서 얼핏 책장을 넘기면 길상사 개인 사찰의 홍보 책자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꼼꼼히 읽어나가다보면 그런 기우가 이내 사라짐을 느끼게 된다. 책 속에 등장하는 사진들은 단순히 길상사라는 한 사찰의 전각들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는 길상사의 건축물들이 현대 불교미술의 가능성을 보여준 도심 포교당의 모델이라고 설명한다. 낙성대 인근의 산비탈에 자리 잡은 길상사는 겉으로만 보면 사찰인지 일반 주택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일주문도 불탑도 보이지 않는데다 건물의 외형조차 장방형의 다가구 주택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원스레 넓은 철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모자이크 벽화에 부처님과 불탑의 형상들이 들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사찰에 웬 서양의 모자이크? 다소 부조화적인 발상이지만 도자기 파편이나 돌, 석회석 조각들이 불교적인 주제로 잘 버무려져 하나의 퓨전 건축물들을 이루고 있다.

특히 도예가 변승훈씨가 제작한 이 벽화에는 몸을 약간 돌린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턱을 괸 손의 팔꿈치를 올려놓고 있어서 마치 석굴암 주실의 감실에 있는 미륵보살상을 연상케 한다. 깔끔하고 정돈된 법당 내부의 천장에 매달린 목어나 금시조는 강한 대조를 이루며 공간 활용을 조화롭게 해준다. 모자이크 만큼이나 파격적인 시도가 화려한 채색을 배제한 대신 선묘(線描)로만 이루어진 불화이다. 이 책을 통해 전통과 현대, 서양과 동양의 건축 양식이 뒤섞여 있는 길상사가 현대불교미술의 색다른 시도이자 출발점이라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해 준다.

김주일 기자

“뛰어난 덕은 덕에 마음을 두지 않으니 이 때문에 덕이 있고
하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하니 이 때문에 덕이 없다
(上德不德, 是以有德 下德不失德, 是以無德– 도덕경 38장)”

<노자>는 탁월한 엔터테이너적 역량을 끊임없이 과시하고 있는 한 학자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강의하면서 그야말로 열풍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그 강의를 조롱하는 듯한 반론을 담은 책들이 한 동안 장안의 종이 값을 올리기도 했다. <노자>는 동서고금의 수많은 석학들을 울린 경전으로, 그저 <노자> 라는 이름 외에 수식어가 불경스럽게 느껴질 정도다.

전문가 서평



‘노자–삶의 기술, 늙은이의 노래’

김홍경 지음

들녘 / 3만2천원

21세기의 한국적인 ‘노자’ 모습

이 책은 1972년 12월, 전한시대 무덤 마왕퇴(馬王堆)에서 출토된 또 다른 <노자> 인 <덕도경> 을 옮긴 역작이다. 마왕퇴는 기원전 168년 이전에 축조된 무덤으로 보고 됐다. 마왕퇴에서 출토됐으며 비단 위에 쓰인 이 책은 수많은 <노자> 가운데 문헌 가치가 뛰어난 자료이다. ‘진(秦) · 한(漢) · 초(楚)의 실물자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저자인 김홍경은 그 동안 <노자> 제작 시기에 대해 정설처럼 인정돼 온 한 · 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진의 제작설을 제기하고 있다.

김홍경은 의도적으로 ‘삶의 기술, 늙은이의 노래’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그저 도(道)에 관한 현묘(玄妙)한 도경(道經)으로,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깊은 사색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노자>의 진면목을 알리려는 의도에서이다. 그리고 그 의도는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김홍경은 880쪽에 달하는 방대한 <노자>를 옮기고 새기면서 <도덕경>으로 대하는 데 머물지 않았다. 비단 위에 적힌 백서(帛書)로 노자의 본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번역서에 매길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인 철저한 고증과 치밀한 해석에다 자신감 넘치는 새로운 주장, 겸손한 문장까지 고루 갖추고 있다. ‘다른 사람의 권위 있는 학설이나 스스로의 선입견으로 진실을 덮지 않고 오직 실사구시(實事求是)에만 정진하는 것이 올바른 학문의 길이라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충실하다. 무엇보다 ‘공부를 한다면 진정으로 이런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김홍경은 21세기 한국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노자>를 표방하고 있다.

“<노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는 50종, 영어 번역본만 250여종을 헤아린다. 하지만 실로 <노자> 는 작은 책이다. 또한 큰 책이다. 전해지는 350종 이상의 판본을 포함하여 <노자>에 대한 그 많은 연구와 해설이 계속된 이유는 그 적은 글에서 참된 의미를 읽어내야 하는 필요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번역본이 있음에도 내가 다시 <노자>를 만들게 된 이유도 또 다른 <노자>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홍경의 <노자>가 재미있는 이유는, 그동안 현묘한 도(道)나 무(無)가 세계를 이루는 원리라고 보던 형이상학적 관점을 넘어서 있다는데 있다. 김홍경은 <장자(壯者)>, <순자(荀子)>, <공자(孔子)>는 물론이고 <사기(史記)>, <회남자(淮南子)> 등 실로 풍부한 고전들에서 <노자>가 통치술을 기록한 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처세술을 논한 책이기 때문에 “<노자>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탐구가 헛수고는 아니지만 <노자>를 밝혀 주지 않는다. <노자>는 형이상학이 아니다”고 선언하고 있다.

철저 · 치밀한 고증 · 해석 … 자신있게 새주장

김홍경의 <노자>는 880쪽이나 되는 다소 부담스러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김홍경의 <노자>에서 끌어들이고 있는 어마어마한 고전들과 기존 <노자> 연구서들을 감안하면 그다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 방대한 고전들을 한꺼번에 읽으면서 880쪽으로 된 책 한 권으로 대할 수 있다면 오히려 고마운 일이다.

■김충현 / 춘천불교방송 PD

<노자–삶의 기술, 늙은이의 노래>는 880쪽에 달하는 방대한 <노자>를 철저한 고증과 치밀한 해석을 통해 옮긴 번역서이다.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 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9월 넷째주 (본원사정에 따라 변경 可)
◈ 수련과정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혜광스님(☎ 019-588-6448)은 파동명상학회 5기생으로 난치병(암, 심장병, 폐결핵, 기관지염, 천식, 신경성질환 등)을 파동명상요법으로 접근하여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아래의 글들은 스님의 허락을 얻어 연재형식으로 몇 주간 그 사례담을 옮겨 싣습니다.

◎ 올해 42세의 김모씨(男)는 평소 기관지염과 천식으로 고생이 심했는데 선근(善根)의 인연이 있어 스님을 만날 수 있게되어 기관지염과 천식의 발병과 그 원인에 대해 영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다. 파동명상상태에서 김씨는 1130년 전 백제시대 때 어느 세도가의 첩실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는데 그때 김씨는 애증愛憎의 한이 깊어 그 세도가의 집에 불을 지르게 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밤이라 불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온 장안에 번져나가고 그 불로 많은 사람들이 타죽게 되고 자신도 불길에 갇혀 죽게 되는데 그때 연기에 질식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놀랍게도 김씨의 가슴속에 들어와 심한 기침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스님이 김씨가 밤중에 심한 천식 발작으로 호흡이 곤란해져 구급차에 실려갈 때의 장면을 영적으로 투시해 보라고 하자 그때 죽은 많은 영혼들이 김씨의 목을 조르고 있다면서 놀라워했다. 스님이 그 영가들을 불러내어 타이르고 위로하자 처음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티다가 스님의 계속된 영가법문을 듣고는 합장하면서 떠나갔다. 그 후 김씨는 각혈과 기침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지금은 편한 잠자리에 들 수 있다고 한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드



십중대계(十重大戒)

십중대계란 열 가지의 무겁고 큰 계율이란 의미다. 다른 말로는 금계(禁戒)라고도 한다. <범망경>에서 강조하는 계율인데 <범망경>은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의 불교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 이 경전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 신라시대에는 많은 스님들이 이 경전에 대한 주석을 했다.

계율 조항은 열 가지이지만 전반부의 다섯 가지는 5계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고 뒤의 다섯 가지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점만 소개하자면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탐내고 욕설하지 마라. 성내지 말고 참회하라. 삼보를 비방하지 마라 등이다.

원래 5계에서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으며,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는 것 등의 네 가지는 근본 바탕이 되는 계율이라는 의미에서 성계(性戒)라 부른다. 성계라 지칭하는 것은 불교신도든 아니든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키는 것이 좋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차계(遮戒)라 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보편을 두고 있

열가지의 큰계율…일명 '금계'
생명존중과 청정한 생활 강조

문화와 직결되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대중 생활의 기본은 자신을 낮추는 하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우치고자 한다. 자신을 칭찬하기는 쉽지만 그것은 자신의 발전에는 독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남을 칭찬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단체의 화합과 원만한 사회생활의 지름길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탐내고 욕설하지 말라'는 몸과 입과 마음의 3업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지나친 욕망은 만 가지 재난이 들어오는 문이란 격언이 있다. 또한 욕설하지 말라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화가 나지 않으면 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교도가 조심해야 할 사항이다. 기실 알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행을 하라 강조하는 것이다.

'성내지 말고 참회하라'는 것은 남의 허물을 보기에 앞서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는 것이다. 일체의 사안에 대해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이라는 전제에서 참회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기도 하다. 참회란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즉 몸과 마음을 뜻한다. 즉 취하지 않을 정도라면 경우에 따라 마실 수도 있다. 원래 5계는 자이나교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와 자이나교가 다른 점은 전자의 경우 술을 마시지 말것을, 후자의 경우 무소유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불교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무소유 보다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십중대계에서 5계는 이미 말한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여섯 번째부터 살펴보자.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는 비구, 비구니, 남녀 신도들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여 승단의 화합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의 제자들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참회하는 사람은 천번 만번이라도 용서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타인에 대한 말은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잘못을 보고 모른 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면 그것도 계율을 어기는 것이 된다. 사찰 신도회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계가 이 조항이다.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계율이다. 부족한 것을 넘친 것으로,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은 척, 모르면서 아는 척 등 척의 이 지극하게 반성하고 자신을 되돌아보아 뼈에 새기는 것이 참회이다. 이러할 때 중생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자비심이 발생하며, 그들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질 수 있고, 부모형제에게 효순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청정한 마음과 생활을 통해 일체의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살 수 있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은 각자의 내면에 살아 있으며,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라 말한다. 그런 점에서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가르침을 의심하지 말 것이며, 그런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부처님이 각자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은 일체의 생명체에 대한 경외심을 지녀야 한다는 가르침과 상통한다.

이상에서 열 가지 무거운 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모두 생명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활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 무한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산다는 것은 바로 나의 작은 실천 속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늘 생각해야 한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성운스님이 9월15일 해인사에서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문하고 있다.



◇성운스님이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해인사 방장 · 왼쪽)에게 문화교류협의서와 <불광대장경>을 전달하고 있다.

생활의 순간순간 부처님은 우리와 함께

지상 백고좌

성 운 스님

(대만 불광산사 개산종장)

우리들은 각자 성씨와 성별도 다르며, 출신환경도 다르지만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삼보(三寶)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보의 해석과 다른 각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삼보의 불보(佛寶)가 무엇인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직접 만나뵙지는 못했지만 법당에 모셔진 불상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듯이 대지에 무한히 가득한 빛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빛이 널리 비춘다는 뜻의 불광보조(佛光普照)라는 말을 합니다. 빛이 없다면 인간세상은 암흑과 두려움으로 가득차게 되듯이, 우리 인생에서는 부처님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부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한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석가모니부처님은 상적광 정토에 계신다고도 하고 허공법계 아니계신 곳 없다고도 하지만 상적광 정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끝이 없는 광대무변한 부처님을 그려본다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또, 부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정말로 계신지 확신하십니까. 부처님이 당신의 마음과 어떻게 이어져 있고, 그 분의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佛=어두운 인간세상 두루비춰주는 빛

法=무명해갈 · 무한한 업장 씻어주는 물

僧=자비 · 지혜 계발하여 복짓는 밭

소승이 출가 65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차츰 느끼게 된 것은 바로, 부처님은 우리들의 느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느낌을 인식하는 매 순간 마다 부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순간순간 부처님과 함께 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부처님이 언제 어디서나 순간순간 자신의 느낌에서 항상 함께 하는가를 느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행주좌와의 모든 삶에서 순간순간 부처님이 나와 떨어지지 않고 함께 숨쉬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행하시는가 그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 평생의 수행생활에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부처님이 항상 함께 숨쉬고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들 마음의 빛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 힘이란 바로 집안에 전기가 들어와서 집안을 환히 비추어서 광명을 주고 우리들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하고, 우리들의 앞날을 밝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가를 알게 되고 어떤 것이 좋고 나쁨을 알게 되며, 이러한 마음의 빛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비추면 모든 장애가 저절로 밝혀져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보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삼보중 하나입니만, 그 법보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서 부처님은 바로 빛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법보의 법은 바로 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의 물 즉 법수(法水)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무명을 해갈시켜 주는,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법수는 우리의 무한한 업장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고 나약함을 굳세게 해 줍니다. 또 우리 인간들이 성장해서 더 성숙하도록 해주는 것이 법입니다.

일단 평상시에는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어느날 단수가 되면 물의 소중함은 이를 데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법도 평소에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일단 법을 가까이 하고 지니게 되면, 참회 발원과 수행을 통해 모든 이들의 삶에 윤택함을 더해주게 됩니다. 법이 없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 공허한 삶만 남기 마련입니다.

부처님을 빛에 비유하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물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면 불법승 삼보의 승은 무엇에다 비유할까요. 바로 밭에다 비유해 보겠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스님들은 복을 짓는 밭이라는 뜻의 복전승(福田僧)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에서 스님들이 출가하는 것은 바로 황폐한 황무지 땅을 개발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개발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짓게 되면 사람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

현대적 장엄 · 음성공양 · 삼보 융화

불가 도인술 전수 수행자 모집

가. 달마 침구술 정체술기 및 교체법 운기 도인술
불교전래 향공법 전수자 근기에 따라 다양한 술기전수
난치병 붙치질환에 특히 적용, 오래된 만성두통즉효
귀신병등 빙의로 고통받는자 즉시 회복
(천도방법전수)
※ 한가지 술기만으로도 명의가 될 수 있는 기회

나. 수행자격 : 신심있는 모든 청신사 청신녀
동 참 금 : 속성 1개월 과정 100만원

▶ 계좌번호 : 농 협 702061-52-052323
국민은행 629-21-0293-427
예금주 : 조 진

여래사 불사에 동참하여 평생 함께 수행하며 노후를 의탁하실 불자님들의 소중한 인연을 기다립니다.
연령 50~60세 전후로 신심있는 불자님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아래 **여 래 사**
주지 심묵 법장 향장
(011-245-5467)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신과 중음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음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명, 신명으로 고생하는 분, 머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7시~일요일 아침 7시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저녁 7시 ~ 9시)
숨차지 않고 헐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립고 다리, 무릎,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흡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 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2003년 9월 27일 토요일**
군자전철역 4번출구 → 법왕정사 건너편 5번출구 능동주유소 앞 4시 30분 출발
- **차량 예약 문의 : 양 현 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심 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 요망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애동승복 직원일동 –

순추복 / 조끼 · 몸배
-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동방, 바지 ₩160,000
- ●두루막 ₩140,000
- ●₩60,000
◆ 모직(올 50%) ◆ 광목 ◆ 순면(무늬있는 먹물)

라복 / 적삼 · 조끼 · 바지
- ●구김이 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A. ₩130,000 B. ₩160,000
- ●아 ₩160,000
- ●모직 ₩160,000

쉬즈
라운드형 / 차이나형 / 칠부
●₩20,000 ~ 35,000원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구청유장 (중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전시된 시계업 상품 40%할인판매

인터뷰 대만불광산사 성운스님



◇9월13일 서울 불광산사에서 기자회견하는 성운스님. 사진=고영배 기자

불교 사회화로 인간정토 앞당겨야
신앙·의식·기복불교서 실천불교로

50여년 만에 대승불교의 꽃으로 만개한 대만 불교의 정신적 지주. 세계 각지에 200여개의 불광산사 분원을 건립하고 170여개의 국제불광협회 지부를 통해 '인간불교(人間佛敎)'의 이상을 실천하고 있는 세계적 고승. 9월 15일 해인사에서 '1029일 영가천도 20번째 49재 영가법문'을 하기 위해 12일 방한한 성운 스님을 서울 불광산사(주지 의은)에서 미리 친견하고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 불교와의 교류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과 대만은 같은 북전(北傳) 불교의 전통을 잇고 있는 형제 불교국가입니다. 20여년 전부터 여러차례 방한한 적이 있는 저는 통도사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한중불교교류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상호교류를 통해 불교 현대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불교의 인간화, 사회화를 앞당겨 인간정토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대만 불교는 사회복지 등 중생구제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사회봉사와 수행의 간격을 메꿀 방안은 무엇인가요?

"불교 홍포가 바로 수행입니다. 불교는 의식불교, 기복불교로부터 실천불교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승불교는 개인의 해탈과 함께 중생구제 역시 중요시 여깁니다. 세계 100여국 170개 협회를 둔 불광회는 참선과 절, 보시를 강조하면서 가정의 안녕, 중생의 이익을 모두 수행의 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임제종 제48대 법맥을 잇고 계십니다. 한국 조계종과 중국 임제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선종의 다섯 갈래 가운데 임제종은 한국 조계종과 연원을 함께 하며, 많은 공안으로 간화선을 닦고 있습니다. 이 공안은 '왜?'라는 물음표만 있어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밥을 왜 먹나?' 등 간단한 문제라도 깊이 생각하면 큰 문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참선은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의 방안은 없을까요?

"<삼국지>에 '세월이 흐르면 천하는 흩어졌다 합해지기 마련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평화 공존과 통일의 시대입니다. 민족이 분단되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반드시 통일이 이뤄질 것입니다. 양국 정치가들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큰스님께서는 '21세기가 아시아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중국의 강택민 주석이 '세상과 함께 발걸음을 같이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자들이 태허(太虛)를 품는 포용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만 불광산사를 가 본 이들은 환희심에 젖어 이 땅에 정토가 실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광산사의 신도들(전세계 100만여명 추산)은 큰스님을 석가모니불의 화신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 아닌가요?"

김재경 기자

문화예술화된 한국불교 모습 확인

다. 이렇듯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우리들 마음의 밭을 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자비를 개발하고 반야지혜를 개발하고 우리들 마음의 본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스님들은 일생동안 최소한도 60여년의 출가생활을 하는데, 사소한 일이라도 늘 계율을 생각하며 참회하며 살아갑니다. 60년의 출가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참회하는 마음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누적된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스님들은 존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가에서는 부모님을 소중하게 모셔야 되지만 승가에서는 승보를 소중히 여기고 공경히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광보조'라는 말은 부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두루 비추시고, 법보는 법해(法海)와 같아서 온 세상을 오대양의 바닷물과 같이 가득 채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승보는 우리들에게 복전과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불법승 삼보를 똑같이 삼보로서 모시며 오랜 세월 신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공덕은 무한해 지고 결국에는 극락왕생할 수 있는 복덕이 생길 것입니다.

한국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오랜 역사의 총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년이 넘는 이러한 가람들은 스님들의 원력하에 많은 신도님들이 보시하고 동참해서 큰 불사를 이루어내어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해인사 스님들께서 다시 불사를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예전에는 신도님들이 스님과 삼보를 위해 불사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스님들이 많이 동참하여 신도를 위한 수행처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현대화, 사회화, 대중화입니다.

해인사의 전통적인 가람과 장엄함은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적인 장엄을 추가해서 아름다운 꽃, 합창단과 피아노들의 장엄한 음악공양, 스님과 신도님들의 어우러지는 화합을 통해서 불법승 삼보의 융화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문화예술화된 불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듯 불교가 현대화, 사회화, 대중화되고 문화예술화되는 모습은 불법승 삼보가 함께 융화되고 어우러져서 이루어내는 힘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진명스님의
스님이야기
일운스님



길이 좋아지고 교통수단이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티베트 만큼 멀고 높게 느껴지는 울진 불영계곡. 여름 한철이 끝나면 사람의 발길이 한적해 깊은 오지 같은 곳, 물줄기도 돌아가며 순응하는 천축산 불영사.

그곳에 향기 좋은 적송과 함께 600년 세월 변함없이 도량을 지키는 든든한 은행나무 같은 일운 스님.

몇 년전, 하안거를 나던 도반스님을 만나러 불영사를 찾았다. 나는 가끔 산중에 있는 스님들을 만나며 신선한 기운을 채우기도 하고, 거짓 없이 다 비춰주는 좋은 거울을 삼기도 한다.

그날도 많이 지쳐있던 심신으로 찾아 갔었다. 주말을 그곳 불영사에서 시간을 보내며 달디단 공기와 시원한 물, 밤하늘 총총히 빛나는 별빛이며, 빼 놓을 수 없는 스님들의 청정한 기운으로 지친 마음을 충전하고 있었다.

안거 기간에 선원을 찾을 때는 언제나 조심스



그림 · 문병성

럽다. 예민하게 화두 참구에 몰입해 있는 스님들은 주변 모든 것에 다 무관심할 수도 있고, 반면 개미 한 마리 지나는 소리에도, 바람 한 줄기 창호문 스치는 소리에도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 24시간 대부분을 입선에 드는 선원 생활에도 틈틈이 멀리서 찾아온 도반을 챙기던 대훈스님과 주지 스님 방을 찾았다. 도심에서 방송포교에 애쓴다며 분에 넘치게 맞이해 주시던 일운스님과 나는 그렇게 인연이 되었다.

향기로운 차를 가교로 수행자로서의 선배와 후배의 마음은 그렇게 오고 갔다. 문중이나 학연을 떠나서 말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수행자들의 바람직한 사상과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우리 수행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참으로 진지하게 마음을 나누었던 시간이었다.

한국불교 속에서 비구니로 수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도 빼놓지 않았다. 어떤 문제에 대한 비판 이전에 자신의 성찰과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대화의 뿌리가 되어서 말이다.

스님은 1991년 총무 소임을 시작으로 불영사와 인연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10여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크고 작은 전각들을 도량 규모에 어긋나지 않고 자연 환경에 어울리게 신축과 보수를 거쳐 어엿한 선원 규모를 갖추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다. 가람수호 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수행자의 본분사인 정진의 끈도 늦추지 않고 공부시간을 챙긴다.

가사가 다 헤지도록 절을 하고 또 절을 하며 부처님 가피를 마음 가득 충만하게 하고, 불영사를 찾는 행자와 제자가 된 초심자를 지도하는 일도 게으르지 않는다. 틈틈이 찾아오는 불자들이 부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갈 수 있도록 좋은 다리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

하루라는 시간을 두 배의 가치로 쓰고 있는 스님이다.

얼마 전에 가까운 불자들과 불영사를 찾았었다.

일운 스님은 누각을 신심으로 가득 채우고 마음의 귀를 열고 있는 불자들에게 "삼독심과 교만심 그리고 의심을 다 내려놓은 자가 대자유인이

정진 틈틈이 전각 신축·보수 힘써
확신에 찬 법문, 신심배양 자양분

고, 부처님 법을 알고 실천하며 생활주변에서 진심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행복한 대 자유인이 되는 길을 일러주었다.

입을 떠나는 말의 당당함은 사람들 가슴에 새로운 힘이 되었다. 스님이 들려주는 확신에 찬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번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열쇠가 되어 주고, 신심을 키워주는 자양분이 되기도 했을 것이며, 삶이 고단한 사람에게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 주기도 했을 것이다.

아침 공양 끝에 한걸음 한걸음 발끝을 살피며 도량을 다져 밟는 스님의 뒷모습에서 비바람과 눈보라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는 천축산 자락 적송의 당당함을 엿볼 수 있다. 타인의 재능을 아낌없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마음의 소유자, 어른스님 성심으로 공경하고 후배들에게는 격려의 마음을 아끼지 않고 제자들에게는 엄격함과 자상함이 있는 스님이다.

산야에 존재하는 풀 한 포기도 그 존재의 가치가 있듯이 누구나 존재 가치가 있는 삶을 산다.

우리도 그렇게 수행자로서 존재 가치가 있도록 살피고 또 살피며 수행하자고 말하는 일운스님은 내 마음에 든든한 울타리이다.

■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진행자

침술·명리학 최고위 과정

침술과 명리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원하십니까?
평생교육을 추구하는 본 학회에서 3개월만 공부하시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주추명학 강좌(초~고급)

가장 어렵다고 하는 용신법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배울 수 있으며 역술인에게 필요한 실력을 2배이상 책임지고 높여드립니다.

▶ **내용** : 사주작성, 취용법, 대세운법, 사주간명법, 적성판단, 직업판단, 택일, 궁합, 작명법(실습위주)
▶ **개강** : 2003. 10. 8(주 2회 - 매주 수,목요일.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강사** : 명리학 교과서, 매화역수 저자 직강(교재 무료)

사암침술 강좌(초~고급)

3개월이면 침술인에게 필요한 실력을 3배이상 책임지고 높여드립니다.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침구요결, 정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 정골방법, 종합실습
▶ **개강** : 2003. 10. 6(주 2회 - 매주 월, 화요일. 주 · 야간반)
▶ **강사** : 침술즉효요법, 침술학 교과서 저자 직강(교재 무료)

매화역수 강좌(고급)

매화의 맑고 독특한 향처럼 오직 수리학(1~9숫자)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매우 재미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개강** : 2003. 10. 10(주 1회 - 매주 금요일. 주 · 야간반 : 1개월완성)
▶ **강사** : 매화역수, 명리학교과서 저자 직강(교재무료)

정통풍수지리 강좌(초 ~ 고급)

패철 사용법을 위주로 관산을 통해서 음택을 터득하고 양택에서는 사무실, 점포, 가옥의 길흉판단, 풍수건강법, 풍수인테리어에 중점을 두고 강의합니다.

▶ **개강** : 2003. 10. 8(주 2회 - 매주 수, 목요일. 야간반 : 2개월완성)

사 암 침 술 학 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문의 : 011-307-2975. 02-355-8312

부산 · 대구지역

법화경 교양 강좌

불교 최고의 경전인 법화경 교양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강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 래

1. 개강일시
   - **부산** - 10월 9일(목요일) 오후 6시
   - **대구** - 10월 7일(화요일) 오후 3시
2. 강좌기간 : 3개월(매주강의)
3. 동참회비 : 5만원(3만원 상당의 교재지급)
4. 강의장소
   - **부산** - 부산역옆 올림픽예식장 앞 (명성회관 2층 202호)
   - **대구** - 동대구역옆 동대구빌딩 3층 전관 (국제어문 연구소 강의실)
5. 문의전화
   - **부산 017)501-8711**
   - **대구 053)952-8711**

주관 : 불경한문학회. 국제어문연구소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지명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지명스님

새벽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취해 명상에 빠진 지명스님은 남이면 남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엿된 여승을 바랑을 짊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 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을 4바퀴를 돌며 불교를 전하고 그들의 찌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흘가 후 즐곳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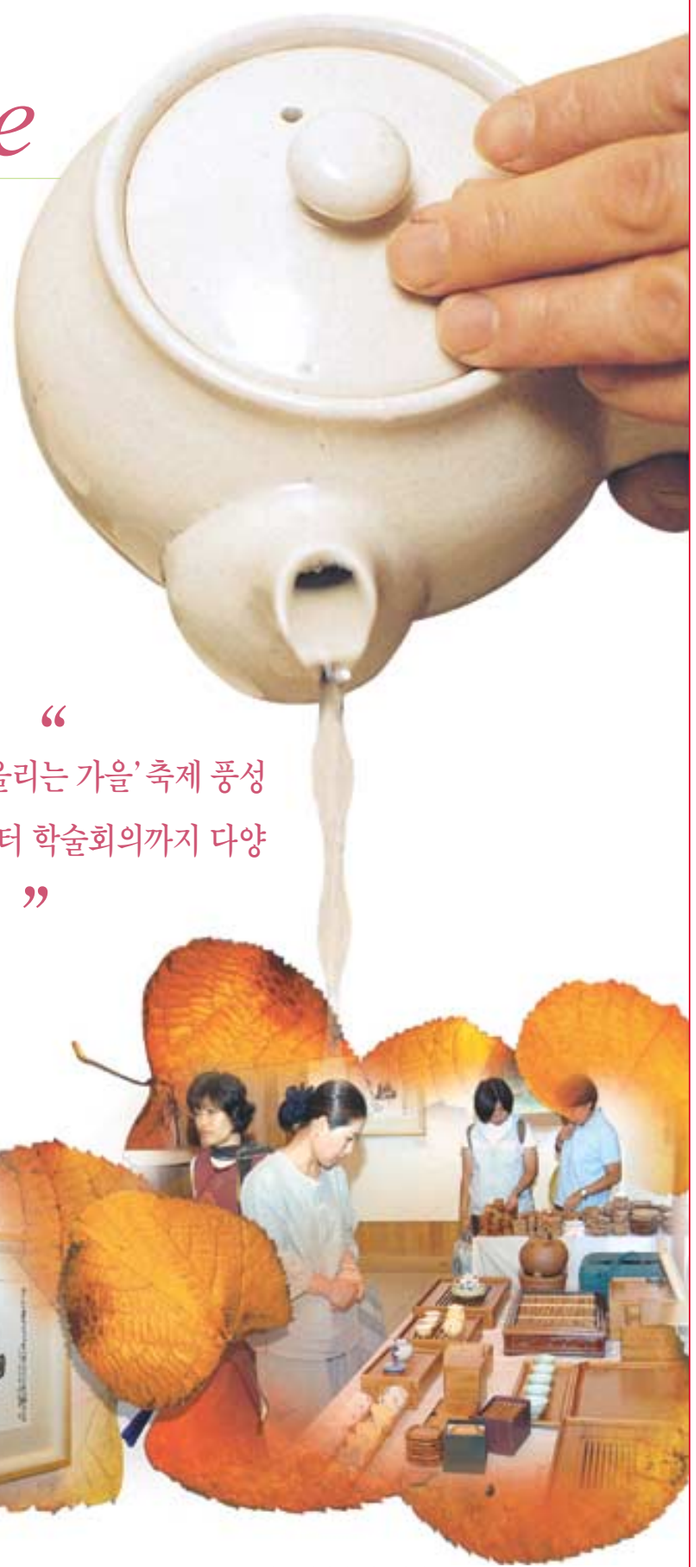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반 여점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안양의 (0)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홍익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로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 달마 6폭병풍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 현 사 지명스님 합장

차 한잔에 가을향기 담으세요



“‘차와 잘 어울리는 가을’ 축제 풍성 다구전시부터 학술회의까지 다양”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면서 차 관련 문화행사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 차 향기가 묻어나는 전시장을 찾아가 보자.

단풍이 물들어가는 합천 해인사의 구광루 갤러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다도구 전시회’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린다. 서울 인사동 소슬다원이 준비한 이 전시회에는 오영순 대표가 수집해 온 한국과 중국의 차 도구 200여 점이 선보인다. 또한 소슬다원이 직접 만든 차와 대만 구산우룡과 보이차, 중국 구산차 등을 시음해보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오 대표는 “다양한 차 도구들뿐 아니라 ‘차나무로 만든 관세음보살상’ 등 아름다운 소품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말한다.(02)739-3035

한편 구광루 갤러리에서는 담원 김창배 화백의 ‘차 한잔의 인연’전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함께 열린다. 인사동 담원 갤러리를 운영하는 김창배 화백이 지난 6월 펴낸 <차 한잔의 인연>에 담긴 그림 36점을 선보인다.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은 차인들의 모습을 담백한 선묵화로 만나볼 수 있다.(055)934-3102

전통 찻사발의 투박함과 순박함을 느껴보고 싶다면 문경시가 개최하는 ‘제5회 문경 전통찻사발축제’를 찾아가보자.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문경새재도립공원 내 문경도자기전시관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문경 전통 찻사발 및 대를 이어 온 사기장(沙器匠)들의 찻사발 명품전, 전통 다례시연, 선조 도공 추모제를 볼 수 있다. 또한 문경 도자기 체험교실’과 전통 망댕이 가마 불 지피기, 전통다례 시연, 장승 깎기 시연 및 체험, 차나무 전시 및 수제차 시연, 가족다례경연대회, 풍물한마당 등 다채로운 참여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경은 조선 초기의 분청사기 도요지로 유명한 곳으로, 지금까지 고려청자 가마터 4개, 분청사기 가마터 1개, 백자 가마터 76개 등 총 80여 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문경 도자기는 우리 민족의 순박한 심성이 그대로 배어있어 색채와 형태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다.(054)550-6061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안국동 백상기념관에서는 월간 ‘다도’ 초대 ‘한국 다기 명인 5인전’이 열린다. 주흘요 대표이자 고려다완 연구가인 월파 이정환 씨와 대한민국 도예 명장인 도천 천한봉(문경대 도자기학공예과 명예교수)씨, 중요무형문화재 제105호 사기장이자 도예부분 초대 명장인 백산 김정옥 씨를 비롯해 원당 길성, 우송 김대희 씨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02)722-7777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서울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국제 차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차학회가 주최하고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다례법 발표회와 들차회, 차도구 전시회, 차사진 전시회가 함께 펼쳐진다. (02)3280-2894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김태곤씨 ‘한국차 선비다례’ 발간

(사)한국차인연합회 1기 다도정사(正師)이자 (사)태정예다악문화협회 이사장인 김태곤 씨가 차의 정신과 선비다례를 자세히 소개하는 <한국차 선비다례>를 펴냈다.

김 씨는 책에서 현대인들에게 있어 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선시대 선비들의 다법인 선풍류의식다례와 선풍류행다, 옥골류의식다례 등의 순서를 사진을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생부터 초 · 중 · 고등학생의 다례법도 함께 소개한다. 값 1만원.

예지원 다도반 가을학기 개강

(사) 예지원이 가을학기 다도반과 규수반을 개강한다. 차의 역사와 정신, 행다법 등을 배우게 되는 다도 초급과정은 12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생활예절과 차생활예절 교육이 마련되어 있는 제140기 규수반은 11월 3일부터 매주 월 · 수 ·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강의가 시작된다. (02)2253-2211



우리차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

‘하소백련’은 백련지로 유명한 김제 청운사 주지 도원 스님이 백련의 맑고 그윽한 향기를 작설차와 접목시킨 차다. 명나라 전춘년이 쓴 <제다신보>와 도융이 쓴 <고반여사> 등에 근거해 만들어진 ‘하소백련’은 백련이 폈을 때 삼베 주머니에 싼 작설차를 넣어 백련의 향을 담은 것으로, 차의 찬 성질이 백련과 함께 따뜻하게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작 100g, 6만원.(02)732-1520

차맥 지킴이



설옥자

(가예원 원장)

월요일은 천안 각원사에서 강의, 화요일은 조계사와 서울 사무실에서 강의, 목요일은 안성 대안사…. 여느 유명 강사나 젊은 기업인의 일정이 아니다. 이 스케줄의 주인공은 올해 일흔을 맞은 가예원 설옥자 원장. 지난 9월 16일, 30여 년 간 차인 양성을 위해 힘써온 설 원장을 조계사 맞은편에 자리 잡은 가예원 중앙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처음 차를 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본격적으로 차 활동을 시작한 것은 제가 39살 때입니다. 1975년 창덕궁 낙선재에서 열린 헌다례에서 예지원 강영숙 원장을 만나 함께 차문화 대중화에 앞장서자고 다짐했습니다. 당시는 차를 마시는 사람이 극히 드물 때였는데, 예지원에 다도회를 개설하고 회장직을 맡아 5년간 이끌었고, 이후 가예원과 조계사 문화강좌에서 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예원 창립과 활동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1981년 후학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가예원을 창립했습니다. 처음엔 조계사 앞에 차인들과 불자들이 편히 쉬며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곳(조계사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20여년 넘게 문하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예원을 사단법인

20여년 일본, 대만등서 발표회 자신을 낮출줄 아는 자세 필요 ‘차 자료관’ 설립 마지막 바람

으로 등록하고 가예원 회원과 차에 입문할 사람들을 위해 조직을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일본과 중국 등을 100여회 넘게 다니며 우리 차문화를 알리는데 앞장 서 오셨는데요.

“외국의 차문화가 우리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알아보고, 또 우리 차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여년 동안 일본과 중국, 대만 등에서 차를 배웠고 발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1984년에는 일본 다도의 한 유파인 엔슈류(遠州流)에서 교수증을 받았는데, 그 덕분에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옥숙 여사에게 일본 다도를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후학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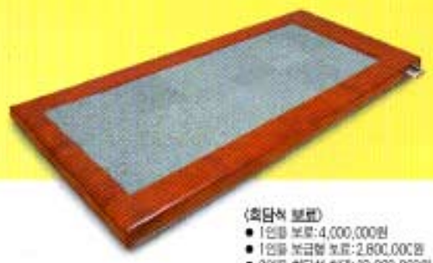
“차를 마시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정신을 순화하고, 더 나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모습이 진정한 차인의 모습이지요. 저는 차를 처음 배울 때부터 이런 마음을 항상 간직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차를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야말로 ‘맑고 향기로운’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저는 일선에서 물러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개발한 다법들을 책으로 묶어 펴내고, 20여년 동안 수집해 온 수백여 점의 다구들을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에 기증해 ‘차 자료관’을 만들고 싶은 것이 마지막 바람입니다.”

여수령 기자

mahamall.co.kr
미하몰이 수험생에게 추천하는 상품
희담석 稀潭石
생명의 돌, 희담석은 이렇게 다릅니다
“생명의 돌, 생체활성 메카니즘 –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동남아 오지에서 옛날부터 치료용으로 쓰이던 신비의 돌입니다. 지구 깊숙히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단단해진 화산석의 일종으로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여타의 제품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희담석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한 것이 (주)자원넷의 희담석 제품입니다.

(희담석 방석)
※ 권장소비자가격 : 198,000원
● 색상: 연두색, 살구색

〈희담석 보료〉
● 1인용 보료: 4,000,000원
● 1인용 눕급형 보료: 2,800,000원
● 2인용 희담석 침대: 13,000,000원
〈희담석 체험사례〉
“엄마, 제가 어느 대학에 갈지 기대하세요”
희담 방석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2년이 되어간다. 1년 전 여고 1학년이었던 맏은 평소 책상에 앉아 밤 12시 넘기기를 힘겨워 했으며 졸기 일쑤였다. 또한 아침에는 늘 깨우기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재작년 추석에 우연히 〈희담 방석〉을 알게 되어 딸 아이의 의자에 깔아 놓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졸지도 않고 집중을 잘 하는 듯 보였다. 하루는 중간고사를 준비한다며 딸 아이가 새벽 3시~4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졸지도 않았고 아침에 힘들어 하지 않고 잘 일어나는 것이었다. 평소 자기 반 32명중 27등 정도였던 딸아이의 성적은 〈희담 방석〉을 사용한 직후 10등으로 쑥 올라갔다. 과목중에서는 암기 과목을 제일 힘들어 했었는데 암기 과목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월등히 높아졌다. 나와 딸애는 물론 선생님과 친구들까지도 매우 놀라웠다. 그후 큰아이는 아예 잠을 잘 때도 희담 방석을 베개로 사용할 정도가 되었으며, 공부에 대한 열정도 점점 높아졌다. 그리고 나서 치른 1학기말 고사 성적은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전체 과목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95점이나 나왔던 것이다. “엄마,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공부하는게 이렇게 재미있을줄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어느 대학에 갈지 기대하세요” 하며 흥분해 하는 딸 아이를 보니 그저 감사할 뿐이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희담 방석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 글을 씁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영희(42세/여,수험생 어머니,부천중동)
부천 중동소재 △△여자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
과목 | 2002년도 1학기 (희담석) | 2002년도 2학기 (일반석) | 과목 | 2003년도 1학기 (희담석) | 2003년도 1학기 (일반석)
국어 | 77.82 | 86.00 | 사회문화 | 95.60 | 100.00
도덕 | 81.88 | 82.50 | 윤리 | 80.30 | 91.70
수학 | 80.12 | 58.40 | 독서문법 | 87.70 | 91.40
사회 | 84.06 | 80.00 | 정치 | 72.00 | 96.00
국사 | 88.23 | 96.00 | 세계지리 | 82.00 | 87.70
과학 | 86.89 | 92.00 | 생물 I | 96.00 | 92.00
가정 정보 | 73.96 | 68.00 | 한문 | 91.90 | 100.00
영어 | 74.67 | 96.00 | 물리 I | 93.00 | 91.30
 | | | 문학독해 | 95.70 | 100.00
 | | | 일본어 I | 100.00 | 96.00
 | | | 정보과학 | 80.00 | 92.30
“엄마, 정말 공부가 잘돼요.”
일 년 전 손바닥 크기의 희담석 지키미를 선물받았다. 허리가 아플 때 한번 대 보았더니 한두 시간 지나자 요통이 사라지는 게 보통 돌이 아닌가 보다 싶었다. 그후 희담석으로 만든 방석이 나왔다고 하기에 한 개 구입하여 고등학생 아들의 의자에 깔아주었다. 어느 날 아들이 묻듯 “엄마, 정말 공부가 잘돼요.” 하는게 아닌가! 이유를 묻으니 희담방석 위에 앉아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중이 잘 된다고 하였다. 그후로도 성적은 올라 갔으며 지금도 꾸준히 성적이 오르고 있는 중이다. 모두 희담방석 덕분이라 생각된다. 수험생이 있는 집에서는 꼭 한번 써 보실 것을 자신있게 권한다. 장혜숙(43세/ 여, 수험생 어머니, 일산)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맡입니다.”
나는 백혈병과 투병중이며, 이틀에 한번 씩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머시는 붓은 아시겠지만 주사 맞고 난 다음날 백혈병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의 소개로 무연히 희담석 보료를 구입한 후, 주사를 맞고 희담 보료 위에서 하룻밤을 잤더니 이상하게도 통증이 없었습니다. 의아했지만 다음날 다시 주사를 맞았고, 그리고 희담석 보료에서 또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던 중 희담석 보료를 한번 시험해 보고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 후 4가월 동안 백혈병에 대한 어떤 약도 먹지 않았으며 병원 치료도 중단한 채 오로지 희담석 보료에서만 잠을 잤습니다 (백혈병 환자는 약을 끊을 경우 대부분 1달 정도 되면 병원에 실려 간다고 합니다)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였고 결과를 본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혈구의 수치가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었던 당시의 수치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희담석 보료에서 자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맡입니다. 김기주 (51세/ 남, 대전시 서구 둔산동)
“몸 안 가득히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느끼며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늘 넝약한 나는 불사를 앞두고 건강을 회복하고자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으나 별다 지나지 않아 결국 실망하곤 했다. 특히 명소에 잠을 푹 잘 수가 없었기에 아침에 일어나려면 육신이 천근만근인 듯했다. 우연히 도반스님의 소개로 희담석 보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잠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잠이 보약’이라고 했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숙면을 취한 덕분인지 몸 안 가득히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느끼며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희담석 보료를 사용한 지 약 6가월이 되었다. 불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지만, 희담석 보료가 있기에 그 큰 불사를 대과없이 치러내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스님, 경남)
마하몰 제품문의
(02)732-1520
제조원 (주)자원넷 JAWONET CO., LTD.

법연스님, 23~30일 부산서 공예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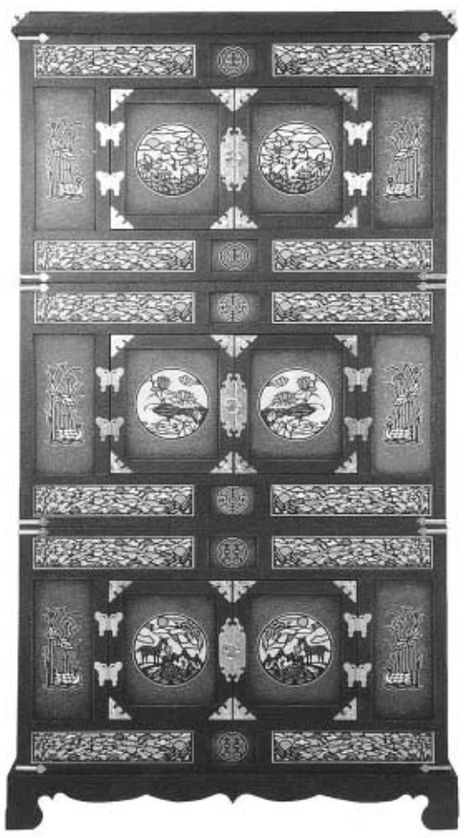
화엄세계 한지로 나투다



◇법연스님.



◇스텐드로 사용되는 '불감등'.



◇연꽃문양을 붙인 '3층장'.

"도(道)를 이루는 길이 평상심과 다름 아니듯 한지공예라는 것도 실생활에 쓰이지 않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겠다 싶어 생활공예 중심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작품속에 들어간 문양만큼은 연꽃과 불보살 등 불교적인 것들로 새겨 넣었습니다."

부산 국제신문사 4층 제 1전시실에서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제 1회 '한지공예전'을 여는 공예가 법연 스님은 제작 의도를 이렇게 내비쳤다. 상(床), 장(欌), 함(函), 등(燈), 경(鏡) 등 5개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12

5개 주제, '불감등' 등 70여 작품선뵈

고동·검은색 주조…대부분 생활용품

각호족상', '팔각상', '12서랍장', '반짓고리', '예단함', '경대', '격자등', '불감등' 등 70여 작품이 선보인다.

스님은 이번 작품에 주로 색을 탈색해 은은한 느낌이 드는 탈색기법을 사용했다. 화려한 색상이 많이 들어가는 오색전지기법이 실용공예와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스님의 작품을 보면 색상이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 고동색(나무 색깔)이나 검은색과 같이 단조롭다. 특히 고동색은 검은색을 묻힌 한지에 다시 락스로 탈색해서 만들어 냈다. 이때 색상의 명암은 락스의 양으로 조절해서 같은 고동색이라도 다양한 질감을 표현했다. 또 무엇보다 실용성이 중요한 생활공예품들이다 보니 서랍장과 같이 짐을 넣어두는 것에는 단단한 '하드지'를 기본틀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교잣상에는 나무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한지에 주름을 입히기도 했다. 또 거실이나 안방에서 사용하면 좋을듯 싶은 스텐드인 '바람꽃등'에는 알루미늄철사를 한지로 싸서 긴 대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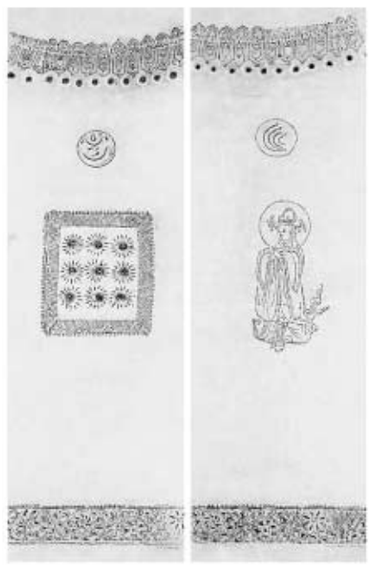
이번 작품중 가장 주목이 가는 것은 '불감등'. 검은 색 바탕위에 위엄있게 서 있는 금색의 관세음보살이 마치 한편의 벽화를 연상케 하지만 가정용 스텐드에 문양을 새겨 넣은 것이다. 법연 스님이 한지에 조각도로 한땀한땀 파냈다. 스님은 "나무도 아닌 종이를 얇게 조각도로 파는 것은 작업이 끝난뒤에 한동안 팔을 못 사용할 정도로 힘든 작업이었다"며 "새기고 붙이고 탈색하는 등 여러 작업 과정을 거치면서 예술도 구도여정과 같이 꾸준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그간의 힘들었던 과정을 토로했다. 스님은 내년 2월 한지공예 회원전도 열 계획이다.(051)500-5221.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한국범종 종합탁본 전시회

最古상원사종 등 사적 의미 큰 190점

직지사, 10월31일까지



◇1716년에 주조된 완주 송광사 종을 왼쪽과 오른쪽에서 탁본했다.

사찰에서 빠질 수 없는 도구이자 불교미술의 중요한 분야중 하나인 한국의 범종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리는 직지사 성보박물관 특별전 '하늘꽃으로 내리는 깨달음의 소리'가 바로 그것. 이번 행사는 직지사 성보박물관 전시팀들이 3년여에 걸쳐 전국 사찰과 박물관,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3백여점의 범종 가운데 역사적 의미를 지닌 190여점을 선별해 탁본한 것을 선보이는 전시회다. 이중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의 범종인 상원사종, 에밀레종으로 잘 알려진 성덕대왕신종을 비롯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범종이 들어 있다. 또 운주지, 고묘지, 우사진 구, 덴린지, 온조지 등 일본에 소재하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범종 60여점도 포함돼 있다. 이중에는 일본인으로 한국 범종 연구의 선구자였던 쯔보이 료헤이씨가 20세기 전반에 탁본한 신라종 가운데 가장 큰 것인 국보급 '하스이케지종' 등 4점의 희귀 탁본도 공개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전시회에서는 범종의 기원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인 황룡사터와 감은사터에서 출토된 풍탁도 볼 수 있다. 또 사찰에서 범종과 함께 쓰이는 법구인 법고와 목어 운판도 전시된다. 9월 24일 저녁 7시에는 소리꾼 장사익과 가수 안치환,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출연하는 전시기념 산사음악회도 열린다.(054)436-6009.

김주일 기자

문화소식

장안사 산사음악회 열어 10월11일 경내 특설무대

경북 예천 장안사는 경내 특설무대에서 10월 11일 오후 6시에 '아미타불 조성 기원 산사음악회'를 연다.

하유 스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범능 스님이 '푸른 학으로'를, 불자가수 김태곤씨가 '망부석'과 '송학사'를 각각 음성공양한다.

또 소리꾼 한자이씨가 창작 사설시조 '팔만대장경'도 부른다. 이외에도 구선 스님은 '선도가(禪道歌)'를, 이유진씨가 '비밀'을 노래한다. 불교중창단 L.M.B도 출연해 '연꽃향기 누리 가득히'를 선사한다.(054)655-1400.

작품사이 걸으며 명상 수선재, 선문화 체험展

선문화연구회와 심신수련단체인 수선재는 9월 24일까지 인사동 서호갤러리에서 걷기 명상을 위한 작품을 선보이는 '선문화 체험전, 맨발로 가는 명상여행'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관람객들이 여러 설치 작품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다니며 명상을 통해 심신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 잔디로 된 미로를 따라 천천히 중심쪽으로 걸어가도록 만든 설치미술가 성영진씨의 '선으로 가는 길', 10여 종류의 자연석 위를 걸으며 자연의 기(氣)를 느낄 수 있도록 한 '순례-자연 위에서' 등 다양한 작품들이 등장한다.(02)723-1864.

조선시대 전통 장지·한지 사용

선화 입체적으로 표현

이홍기씨, 송광사서 '은둔의 꿈' 展

화가 이홍기씨의 선서화전 '은둔의 꿈'이 11월 2일까지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그림들은 선화에서는 보기 드물게 시도된 입체작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홍기씨가 7년여 만에 꺼내 놓는 이번 전시회에는 선수행의 어려움을 쌓아놓은 책높이에 비유한 '블립문자', 윤회와 제행무상을 상징한 '달과 같은', 송광사 산내 암자인 불일암의 풍경을 그린 '불일암', 선적인 메시지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달마입체도' 등 30여점이 선보인다.

대부분 평면작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재를 통해 선(禪)적인 분위기를 묘사했다. 작품 재료 또한 천연염료를 사용하기 위해 황토물과 일반흙은 물론 쑥즙과 밤나무



◇달마대사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이홍기씨의 '달마'.

껍질, 야생 풀꽃즙을 섞어 사용한 것도 특이하다. 또 화면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전통 장지와 한지에 그렸다. 그래서인지 작품을 보면 조각을 해서 종이에 붙여 놓은 것 같은 입체감이 자못 흥미롭다.

이홍기씨는 "입체적인 것과 선적인 것은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많은것 같아 선서화에서 한번쯤 시도해보고 싶었다"고 의도를 설명했다.(061)393-0282.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TV <ch 32>

06:05 불교강좌
09:05 차 한잔의 선율
11:05 행복스튜디오 황청원입니다
14:45 고승열전
16:45 룸비니 동산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4일 12:20 충성 성불하십시오
25일 08:30 정세채의 선식 건강법
26일 09:20 김영무가 만나는 문화, 문화인
27일 09:20 설수진의 러빙유
28일 14:10 최완수의 불교문화 바로알기
29일 14:25 특별법문 전강스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10월 2일 09:05~10:00)-담백한 목소리의 진명스님이 감미롭고 편안한 음악을 전해주는 차 한잔의 선율. 목요일 시간에는 한양대 송진범 교수의 소개로 클래식 음악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클래식 갤러리'가 방송된다.

■불교텔레비전

▷정세채의 선식건강법(9월 25일 08:30~09:05)-이날 방송에서는 대표적인 성인병인 당뇨에 대해 원인을 알아보고, 음식으로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건강법에 대해 소개한다.

신장이전 나폴리 승복 특별사은

승복, 버리시기 아까운 제품을 정성모아 몸에 맞게 고쳐드리겠습니다.

판매제품안내

1. 장삼, 가사
2. 두루막, 동방
3. 적삼
4. 모시론(풀안해도 됨)
5. 무명(수재)
6. 면 래푸사(풀안해도 됨)
7. 광목
8. 누더기(한국산 손염색)순면
9. 하이쿨 (몸에 붙지 않고, 가볍고, 물세탁)
10. 기타제품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만족할만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나폴리승복

대표 정용호 합장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1동 673-3(대구은행 반월당 지하철역 앞)

전화 053)253-8482 / 011-9599-7963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몸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간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C.W. 초원케미칼라이프 Co.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불교의식(범음 · 범패)
제 2기생 학인모집

본 대구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초종파를 막론하고 불교의식 염불, 또는 범패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스님)은 물론 현재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계시는 교임 또는 법사님께서도 본 교육원을 이수하신 후에는 아무런 불편없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과정

▶ 의식 초급반(3개월) 주 2회 강의 (매주 월,화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 (새벽 도량석, 종성염불, 상단새벽예불, 저녁예불, 아침송주, 저녁송주, 상단불공(제불통청), 신중퇴공, 행선축원, 불공축원, 관음시식, 배송, 사미율법 및 초발심 자경문

▶ 의식중급반 (5개월) 주 2회 강의(매주 수, 목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 시련절차, 천도, 49제 재공편, 전점안법, 설교의식, 시왕불공, 시식, 배송, 다비편, 방생의식, 불상 및 탱화 점안법, 예수제의문, 구병시식 등
※ 재장엄번설치법, 령가축원문작성법, 위패, 지의, 전, 작성법

▶ 작법반 : 일반(5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일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2시간)
속성(2개월) 주 1회지도(매주 금요일) 시간 : 오후 1시 ~ 4시 30분(3시간 반)
● 종 목 : 천수바라, 도량계(나비춤), 사다나니(가지계) 화의재진연바라

▶ 역학반(10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수요일)
● 강의시간 : 오후1시~3시 (2시간) ※ 특별강사초빙

▶ 사물특강반 내용 : 태징, 광쇠, 북치는법(천수북, 정근북, 장엄염불북, 요잡쇠)
● 기 간 : 3개월 주 1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2시간)

▶ 속성반 : 의식, 작법, 사물(짧은 기간에 이수하실분은 별도 등록 요함)

대구불교의식 법음 · 범패 교육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67-14(2층)
원장 주동주(동현) 합장 ☎ 053)955-7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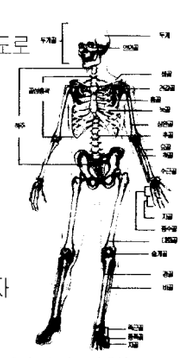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29화 죽림정사의 건립



이 때 니련선하(尼連禪河)의 하류에는 우루빌바 카사파의 두 동생인 나디 카사파(Nadikaspa)와 가야 카사파(Gayaksapa)가 각각 300명과 2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역시 형과 같이 불의 신 아그니를 모시며 교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형님의 뒤를 따라 모두 붓다의 구족계를 받고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카사파 삼형제와 그들이 거느린 일천 명의 제자들이 모두 부처님께 들어오면서 붓다의 승가(Sangha)는 일거에 마가다국 제일의 교단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한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기에 열중했던 붓다는 이제 어느 정도 불자로서의 입문교육이 끝났다고 보고 일천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마가다(Magadha)의 수도 라즈기르(Raja-grha, 王舍城)를 바라보고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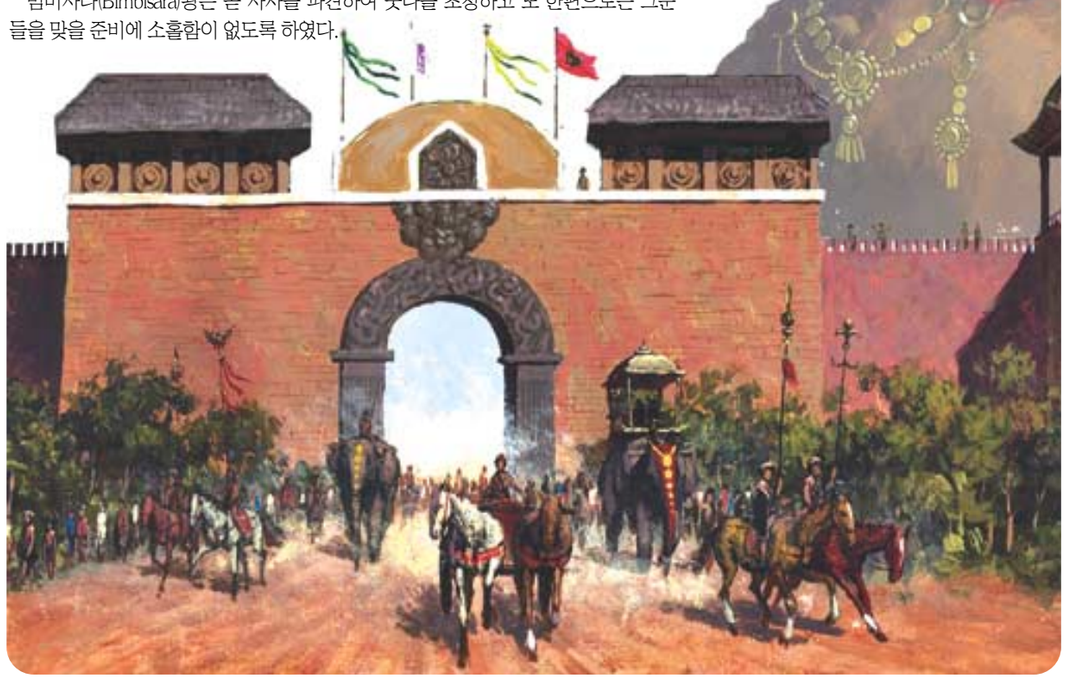


부처님이 일천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마가다의 서울인 라즈기르(王舍城)의 서남쪽 교외에 있는 랏티바나라 숲 속까지 진출한 후 스파티타 묘(廟)에서 쉬고 있을 즈음, 부처님과 카사파 삼형제의 놀라운 이야기가 빠른 속도로 왕사성에 전해지고 있었고 이 놀라운 소식은 빔비사라(Bimbisara)왕에게 보고되었다.

"샤카무늬(釋迦牟尼)라고 했느냐? 그러면 몇 년 전에 이곳에 왔었던 그 샤카족의 태자인 싯다르타가 아닌가? 그때 그 태자는 나와 약속하기를 그가 성도(成道)하여 붓다(Budha, 佛陀)가 되면 반드시 나를 찾아와 그의 깨달음을 들려주겠다고 한 일이 있지 않았던가.

만약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카사파 바라문께서 스스로 아그니의 신전을 부수고 그 샤카무늬에게 귀의하셨다면 이것이야말로 싯다르타 태자가 이미 붓다가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빔비사라(Bimbisara)왕은 곧 사자를 파견하여 붓다를 초청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을 맞을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붓다의 설법을 듣고 있는 동안 빔비사라왕은 그 마음이 점점 맑아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기쁜 환희를 조금이라도 더 맛보기 위하여 왕은 붓다와 그의 일천 명 제자들을 모두 초청하여 왕으로서는 첫 번째의 공양(Pujana)을 올린다. 이때 카란다라는 사람이 빔비사라왕과 붓다 앞에 조용히 다가왔다.

"붓다시여, 저는 카란다(Karanda)라는 사람이옵니다. 어제부터 붓다의 설법을 듣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사옵니다. 붓다의 고마움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자 이렇게 찾아 왔나이다. 어젯밤 곰곰히 생각해보니 붓다께서 언제까지나, 이곳에 계실 리가 없으시겠기에 불안했습니다. 저는 붓다를 가까이 모시고 그 귀중한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데, 만약 붓다께서 훌쩍 떠나버리시면 제 생활기반을 버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사옵니까."

"카란다 장자여, 너의 마음이 과연 나의 마음과 똑같구나. 나도 지금 부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사원을 지어드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곳은 이곳에서 너무 멀어서는 곤란하고 또 너무 가까워도 안된다고 생각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붓다를 찾아뵙고자 할 때는 쉽게 찾아갈 수가 있어야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번거롭게 해서도 안 되는 곳, 밤에는 소리가 없어 조용하고 홀로 앉아있기에도 알맞은 곳, 그런 곳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로다."

"그런 곳이라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베누바나(Venuvana) 동산밖에 없사옵니다. 그곳이 바로 대왕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런 곳으로 싱싱한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죽림원(竹林園)이옵니다. 제가 기꺼이 그 곳을 붓다께 바칠 것이니 대왕께서는 그 곳에 아름다운 사원을 지어주소서. 그리하여 붓다를 그 곳에 머물게 하시면 우리 모두의 소원을 풀 수 있게 되옵니다."

"아, 그 생각 참으로 갸륵하도다. 네가 정말로 아름다운 베누바나 동산을 바친다면 내 그곳에 인도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원을 지어 붓다께 바칠 것이다. 이로써 우리 마가다국은 이 세상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마가다의 백성들은 모두 번뇌의 고통으로부터 해탈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또 있겠는가. 사원의 건설은 내일부터 곧 착수하여 우기가 오기 전에 완성할 수 있도록 전 국력을 기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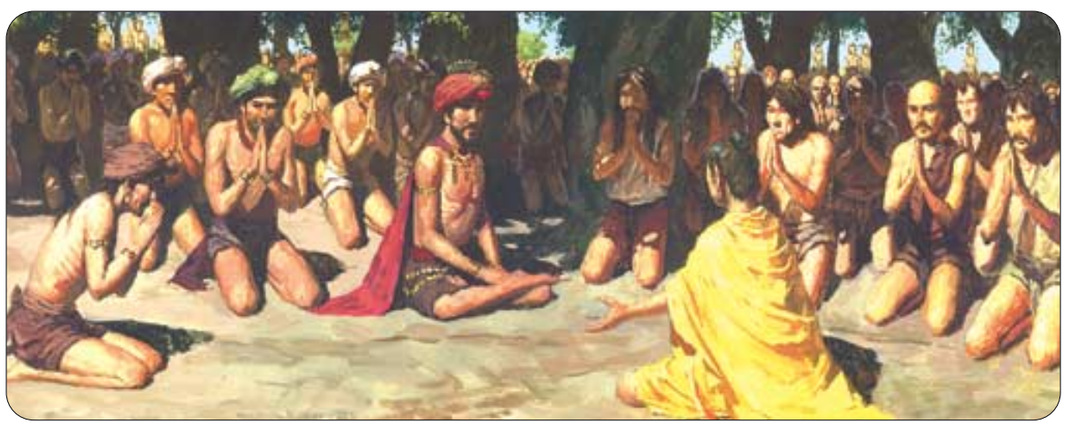


빔비사라(Bimbisara)왕의 특명을 받은 사자가 왕의 초청 편지를 들고 아직까지 스파티타 묘(廟)에서 쉬고 있는 붓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바람같이 달려 나갔다. 한편 라즈기르 성내에서도 붓다 일행을 맞기 위해 모든 거리와 골목이 깨끗이 청소되었고 꽃을 놓아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하루 이틀 기다리던 빔비사라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백성 수만 명을 이끌고 붓다를 만나기 위하여 라즈기르의 동쪽 바이바라(Vaibhara) 언덕과 소나(Sona) 언덕 사이에 위치한 제티안(Jethian, 杖林)까지 나아갔을 때, 마침 왕의 초청을 받고 라즈기르로 향해 오고 있던 붓다의 일행과 마주치게 되었다. 왕은 즉시 코끼리에서 내려 예의를 갖추고 붓다를 맞았다.

실로 오래간만에 다시 만난 붓다와 빔비사라왕은 곧 제티안(Jethian, 杖林)숲의 시원한 그늘을 찾아 마주 앉았다. 처음 만났을 때는 싯다르타 태자가 장차 차크라 바르틴(Cakra-Varti-raja, 轉輪聖王)이 되기 위하여 마가다를 염탐하러 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만났었다. 그러나 이번엔 샤카무늬(釋迦牟尼)가 붓다(佛陀)가 되어 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빔비사라왕은 너무나 벅찬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붓다에게 고백한다.

"붓다여, 나는 아직 태자였을 때 다섯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들을 모두 성취했습니다. 그것들은 첫째, 관정(Abhiseka, 灌頂)을 받아 국왕이 되는 것. 둘째, 나의 영토에 성자인 정등각자(正等覺者)가 오는 것. 셋째, 붓다를 내가 모시는 것. 넷째 붓다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깨달음을 얻는 것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내가 비록 마가다의 국왕이지만 그동안 복을 닦으려고 불신(火神, Agni)을 섬기며 우루빌바 카사파를 도와 거대한 신전을 지어 올려 공덕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도 불을 섬기고 주술을 닦았는데, 욕망은 더욱 커져만 갔고 번뇌 또한 더 커져서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법문을 들려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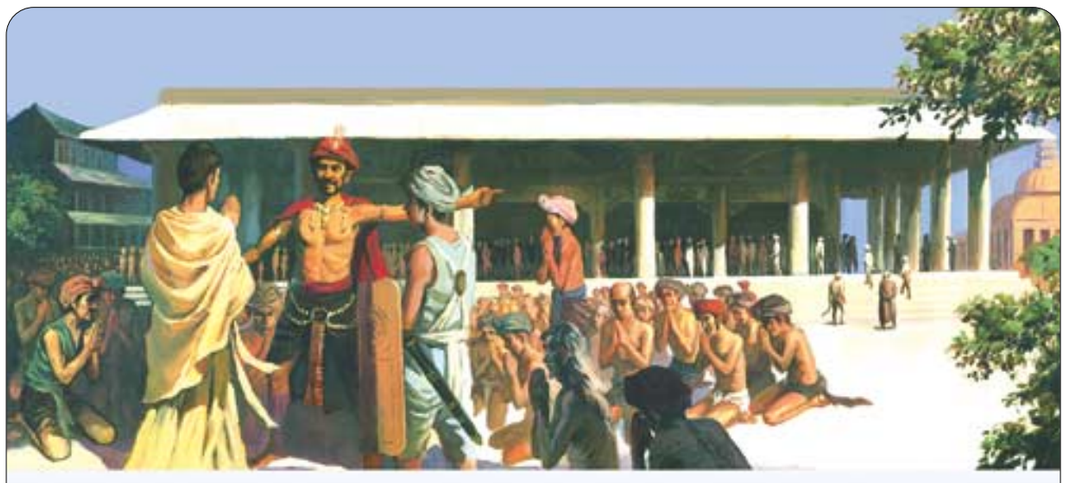


"대왕이시여, 우선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법(法)에는 '나(我)'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의식이 특별한 형태로 나타났을 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가 있음으로 해서 온갖 불행과 괴로움, 분노와 원한 등이 생깁니다."

"대왕이시여, 우리들의 육체도 의식이 있음으로 해서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다면 육체란 돌과 같아서 번민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我)'라는 생각은 나와 반대에 있는 상황이 부딪혔을 때 반짝 공중에 떠오르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은 돌과 돌이 부딪혀 불꽃이 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꽃은 돌의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것입니까?

대왕이시여, '나'라고 하는 것은 그 불꽃과 같은 한순간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 조그마한 진리를 알기 위하여 6년간의 수행이 필요 했습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백성을 생각하고도 '나'를 잊어버리고 중생을 걱정하며 '나'도 '중생'도 잊어버리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완전히 없게 되어 마음이 우주에 확대될 때 비로소 열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그곳에는 생(生) 사(死)가 없습니다. 그곳에 '나(我)'란 없으므로 태어나기 이전, 죽음의 이후도 없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불교 최초의 절 죽림정사(竹林精舍)가 지어지게 되었다. 죽림정사는 'Venuvana-Kalanda-Kanivapa' (베누바다 카란다 카니바파)라 불리우는데 베누바나(Venuvna)는 대나무동산(竹林園)이고 카란다(Kalanda)는 동산을 기증한 부호장자의 이름이며 카니바파(Kanivapa)는 '다람쥐를 먹이는 장소'라는 뜻이다. 정사(精舍)의 경내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다 한다.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Venuvana)가 완성되자 사르나트(Samath)에서 포교를 하기 위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던 제자들도 차츰 이곳으로 모여 들었다. 이것으로 불교(佛敎)교단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궤도 진입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일체가 다 부처와 둘 아닌 줄 알아야


그림 · 최주현

마음공부 바르게 하는 방법

문 스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마음공부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 옛날에 어느 부부가 바닷가에서 살면서 외동딸 하나 낳아 놓고서는 애지중지 기르면서 절에를 열심히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 아이를 위하고 가정을 위해서 말입니다. 누구든 다 그랬겠죠. 그 어머니가 절에 갈 때는 항상 깨끗하게 쌀에 뉘를 골라서 가지고 갔는데 십 년이나 그렇게 해 가지고선 다녔어요. 왜 그렇게 지성으로 절에 다녔느냐? 거기 풍습이 나이가 열일곱 살에서부터 열아홉 살까지의 처녀는 해마다 산에 바치게 돼 있었어요. 만약에 바치지 않으면 그 동네가 발칵 뒤집히고 농사도 안되고 사람이 자꾸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처녀 한 명을 바치게 됐던 거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나이가 닥쳐오니까 어머니가 안절부절못하고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머리에다 공양물을 이고서는 딴에는 기도의 효험이 있다는 절로 찾아가는데, 찾아가는 도중에 보니까 스님 한 분이 턱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무 데 절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 계신 법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 이 보살 보게. 아, 부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잖나!" 그러면서 소나무도 가리키고 돌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부처가 있고 저기도 부처가 있잖나. 그걸 모른다면 어떻게 딸을 건지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그냥 탁 박힌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저 소나무를 부처로 볼 수 있고 돌을 부처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꼭 딸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저 돌이나 소나무나 당신하고 똑같소.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닌 줄 알아야, 일체가 다 부처하고 둘이 아닌 줄 알아야만이 그 자식을 건질 수 있소." 이러거든요.

그래서 매일 기복으로 빌다가 그때부터는 소나무를 붙들어도 '둘이 아닌 내 부처님, 우리 딸 살려 주시오.' 돌을 봐도 '나와 당신이 둘이 아니니 우리 딸을 살려주시오.' 하면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물을 봐도 그렇게 하고 나무를 봐도 그렇게 둘이 아니라고 관하고, 흙을 봐도 그렇게 관하는데 하다못해 큰 벌레를 봐도 '너도 나와 둘이 아니잖니. 그러니 네가 나 좀 도와줘! 너도 내 주인공이야.' 그 어떤 걸 봐도 '너도 주인공, 나도 주인공, 주인공은 둘이 아니니까 나 좀 도와줘!' 하면서 관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얘, 아무개야! 너도 나와 둘이 아니고 모든 게 둘이 아닌 것을, 앞서에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헤맸구나." 그러시고는 한 일주일 곡기를 끊고 그냥 앉아서 계시더니 나중에는 "얘, 나는 지금 급해! 그러니까 내 옷을 내와라." 그러시더니 하얀 옷 한 벌 지어 놨던 것을 탁 입고서는 그냥 앉아 계시니까, 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왜 새 옷을 입고 앉아 계신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녁밥을 짓는다고 나갔다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열일곱 살 먹던 해에 말입니다. 돌아가셨으니 어떡합니까? 아버지를 부르고 그래서 장사를 치를 준비를 하는데, 장사 치르기 전날에 그 어머니가 꿈에 나와서 "아버지는 말을 안 들을 터이니 너라도 관을 지고 가서 물에 갖다 넣어라." 그러더란 얘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일평생이 아니라 수억겁을 거쳐서 나는 먹어 왔다. 그런데 내 몸뚱이 하나 던져 주는 거야 뭐가 그렇게 아깝겠니? 그것도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건데, 큰 고기든 작은 고기든 다 먹게 던져 주는데 뭘 그러느냐?" 그러거든요. 소원이니 꼭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러니 어찌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는 상여로 내가서 묻으려고 관을 갖다 놓고 염을 하고 병풍을 둘러쳐 놓고 야단났거든요.

근데 일가친척들 보라고 관 뚜껑도 안 덮고 병풍을 쳐 놓고 관에만 넣어 놨어요. 그랬는데 밤중이 되어서 초상 치르는 사람들은 다 나가고 딴 데서 자고 그러니까 거기를 딸이 지키고 앉았다가 몰래 겨우 관을 쓰러뜨려서 빼내 가지고 그걸 그냥 걸머지고 나갔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여자도 지게를 잘 졌지 않습니까? 지고 가서 돌을 달아서는 물속에 그냥 얼른 넣고는 왔단 말입니다. 와서 자는 척하는데…, 그게 인제 소원을 이루어 드린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삼 일 만에 말입니다. 두꺼비 한 마리가 슬슬 부엌으로 기어들어오는 겁니다. 그 두꺼비가 들어오면서 눈물을 주루룩 흘리거든요. 전날 저녁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이렇게 하니 그런 줄 알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이 두꺼비가 눈물을 주루룩 흘리는 걸 보고 "아이구, 엄마가 날 살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두꺼비가 돼 가지고 나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가." 이러면서 돌이 운 거죠. 그러고는 부뚜막에다 항상 밥을 주고 해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인제 딸도 열아홉 살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바치기 전에는 아무도 시집을 못 갔고 그렇게 일 년에 한 명씩 바치고 난 뒤에 나머지 처녀라도 남아야 시집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 딸이 뽑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두꺼비를 보면서 "내가 지금 저 집에 들어가 있느니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몸을 해 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데 너를 살리고 난 뒤에는 이 몸을 벗고 갈 것이니라. 네가 만약에 가마를 타고 그 산중 골짜기에 있는 산당에 가거든 꼭 나를 치마에다가 싸 가지고 가거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딸은 어머니 두꺼비를 싸 가지고 갔어요.

싸 가지고 갔는데 밤중이 되니까 큰 지네가, 서까래만한 지네가 그냥 주욱 나오는데 차디찬 입김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쓰러질 것만 같은 겁니다. 그래 푹 주저앉았는데 그 두꺼비가 치마 위에다가 앞발을 척 걸더니 그냥 보꾹을 쳐다보고 안개를 뿜어 대는데 안개가 자욱해지더랍니다. 이 딸은 그 지네를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앉아서 그냥 오그라진 채 까무러쳤어요. 그런 사이에 이 두꺼비는 한 서너 시간 동안 안개를 그냥 그렇게 뿜어 댄 거죠.

그랬는데 뭐가 털썩 내려앉는 소리에 까무러쳤다가 홀연히 깨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불도 꺼지고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냥 그 두꺼비가 치마폭에서 자꾸 발로 손을 치면서 얼른얼른 나가자고 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도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 새벽에 동네 사람들이 전부 와서는 와 하고 달려들었어요. 인제 창문이 훤해지니까 그렇게 큰 서까래만한 지네가 떨어진 거를 알았어요. 그 어머니가 두꺼비의 몸을 해 가지고 나와서 딸을 살리고 마을을 살린 겁니다. 그게 다 부처님 법이죠.

그러면 그 어머니가 두꺼비의 몸을 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도, 만약에 사람을 건지는데 두꺼비로 화해야만이 그 사람을 건진다 할 때는 두꺼비로 화하는 겁니다.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 속에 들어가야 돼지를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되지 않는 때가 없으니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 것이 부처님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딸을 살리고 그 마음을 다 살린 겁니다. 다 살려 놓고 그 딸의 꿈에 턱 나타나서 "이제 나는 갈 터이니 내가 입었던 그 옷과 저 지네의 옷도 다 태워 버려라. 그 지네의 마음도 이제는 둘이 아니게 인간으로 화했느니라. 마음을 고쳐서 인간으로 화해 가지고선 좋은 일을 많이 할 거고 나도 옷 입었던 것을 벗어 놨으니 둘 다 태워 버려라. 지네도 둘이 아니요 두꺼비도 나와 둘이 아니요 너도 나와 둘이 아니니라, 이제는." 이러면서 훌쩍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과연 두꺼비가 죽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공중을 쳐다보고 울면서 장작을 이쁘게 쌓아 놓고선 거기다가 그 두꺼비를 백지로 싸서 올려놓고 화장을 시켰대요. 딸이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스님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딸을 살리고 동네를 살리고, 그 뜻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불씨를 심어 줬답니다. 그 스님이 그 부인에게 똑바로 자성본래불을 찾게끔 해 줘서 일체 모두 자기 아님이 없는 줄 알게 만들어서 딸도 살리고 동네도 살리고, 딸과 동네 사람 모두에게 불씨를 심어 줘서 자력으로써 마음 도리를 공부했대요. 그래서 전부 보살을 이루어서 하늘을 오르고 내리면서 모든 중생을 건졌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일체 만물만생이 모두 어항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한 발도 바깥으로 떼어 놓을 수가 없어요. 공기주머니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자유스럽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체제 속에서 저항을 받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위치에서 마음으로 그냥 자유자재 못하고 제 마음을 가지고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두가. 벌레에 이르기까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어는 자기가 난 자리에 다시 와서 새끼들을 낳아 놓고 죽어야만 하는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렇게 표현을 해서 인간도 박아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어항 속에서 벗어나야, 즉 말하자면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우리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박탈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노예가 돼가지고 갇혀서 사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 먹기에 달려 있으니까, 한 마음 먹기에 달려서 한 마음을 잘 먹으면 부처가 되고 한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냥 중생으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러한 의지 하에 인간이 되면 만물의 영장으로 부풀린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우리가 마음공부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찾는 자나 믿는 자나 자기를 믿고 자기를 발견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본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자기가 발견을 못하니깐 꼭 해야만 하는 거죠.

지금 색경을 보고 있으면 색경 속에서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색경 속에서 하지요? 그것과 같이 마음이 하자는 대로 육신은 움죽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그림자가 아니라, 참자기와 자기 그림자가 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자 하나만 가지고 자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지요. 앞의 예화에서도 말을 했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살아서 그 도리를 모른다면 죽어서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모두가 몸뚱이가 없어지기 전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어

먼지 앉을 자리가 없다는 까닭

문 육조단경에 보면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묻지 않게 하라."고 신수대사가 말씀을 하셨는데, 육조대사께서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거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 있으리오. 마음은 보리의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라.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니 어느 곳이 티끌과 먼지에 물들리오."라고 답하셨습니다. 스님께서도 프로펠러 돌아가듯 공한 자리이기에 먼지 앉을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왜 그런 것인지요?

안되는 것도 찰나, 되는 것도 찰나니 나오는 그 자리에 맡겨 놓으세요

답 원래 청정한 그 자리는 죄도 없고 업보도 없고 유전도 불을 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억겁을 살아오면서 차원이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얼마나 업을 많이 짓고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장창 이 도리를 모르고 가면 자기가 한 대로 자기 차원대로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그거는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하고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왜 '고는 없다' 라고 한마디로 말했겠습니까? 고 하나만 알면 고(苦) · 집(集) · 멸(滅) · 도(道)가 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왜냐. 내가 줄창 말씀드리듯이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못 알아들으신다면, 과거에 살아왔던 거를 카세트에다 녹음했다고 합시다. 그럼 카세트를 짊어지고 나온 거죠? 그 짊어지고 나온 카세트 테이프에 갇혀 있는데다가 새로운 녹음을 하니까, 나오는 자리에다 다시 넣으니까 자꾸 넣는 대로 앞서 녹음되었던 과거의 업보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다못해 카세트로까지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새로 넣으면 앞서 넣은 것은 없어진다, 또 새로 넣으면 그게 또 없어진다. 이러니까 업보가 붙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신수대사가 '갈고 닦아야 한다.' 이랬는데, 육조선사는 '먼지 앉을 틈이 없는데 어째서 닦고 갈아야 되느냐.' 하고 그냥 한 마디로 말한 겁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런 것과 같이 진리를 가만히 고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을 산다 하더라도 한 철입니다, 한 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나날이 살아가는 게 한 찰나 생활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친구를 만날 때는 자동적으로 세 가지가 포함돼서 나갑니다. 말도 뜻도 행도 그냥 친구로서 나갑니다. 근데 그 친구와 헤어지고는 자식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아버지가 됐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동적입니다. "얘, 너 어디 갔다 오니?" 이렇게 말이 나가죠? 생각과 뜻도 그렇게 나가죠? 행도 그렇게 나가죠? "너 배고프지 않으냐?" 할 수도 있고 "집으로 어서 가자."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또, 집에 들어가서 부모를 만나 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버지는 또 그냥 없어지고선 금방 자식이 되어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어머니가 "아유, 이제 들어오니?" 이렇게 응대해 주시죠. 그런데 자동적이 아닙니까? 아내를 만나니까 또 금방 자동적으로 납편이 됐습니다.

염주알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의 내가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만났을 때입니까, 자식을 만났을 때입니까, 친구를 만났을 때입니까, 아내를 만났을 때입니까? 그렇게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했다고 했습니다. '공했다. 공했느니라.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그렇게 돌아가는데 무슨 먼지 앉을 자리가 있고, 업보가 붙을 자리가 있고, 지옥이 있겠는가 이겁니다. 안되는 것도 찰나요, 되는 것도 찰나니, 되는 거 안되는 거를 다,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 맡겨 놓아라. 맡겨 놓으면 거기에서 그대로 자유스럽게 사용해도 그대로 여여하니라. 그것이 바로 법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30면으로 계속

평생을 산다 하더라도 한 철 나날이 살아가는 게 한 찰나생활

☞29면에서 계속

그토록 믿었는데…

문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보니 정말 이 세상에 누구를 믿으면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세상이 싫어집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는지요.

답 누구든 자기가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지 누가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기대고 누구를 믿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기대고 믿었다면, 100% 믿었다면 아마도 100% 후회가 되거나 미움이 생기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무엇이든 밖으로 믿지 말고 자비하게 사랑하라 이겁니다. 밖으로 믿지 말고 그대로, 나는 그대로 두고 사랑하라 이겁니다. 거기다 착을 두지 말고요. 천 냥을 주었더라도 착을 두지 말고, 만 냥을 주었더라도 착을 두지 말고요. 자기가 굶으면서 주라는 게 아닙니다. 가진 돈을 내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내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쌓아 놓고 살더라도 좋은 일을 하면서 관리만 하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살아도 당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관리인이다 이겁니다, 관리인!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돈은 다 나가요. 언제고 다 나갑니다. 그러나 그 돈을 관리한다고 생각할 때 그건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죠. 그래서 돈입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우리가 밥 한 그릇에 숟가락 서너 개를 끼워 놓고 같이 먹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야 그것이 즐거움이고 보람입니다. 그야말로 고기반찬에 음식을 잘 해 놓고 먹으면서도 그냥 올고불고, 속으로는 부아가 치밀고 해서 티격태격하고 먹다가 수저를 놓고 뛰쳐나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삶이 아니라 지옥이죠. 그런 지옥을 누가 가져오나요? 자기네들이 가져오지요.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아서 부처님한테 처덕처덕 갖다 놓는대도, 또는 절을 지어 주고 부처님 제자들에게 의복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이 도리를 모르고 '이렇게 해 주었으니 내가 잘될 거다.' 하고 기복으로만 나간다면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님들이 왜 출가 해서 스님 노릇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한테 돈 받아서 먹고 살 양으로 스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도 안 갖다 주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어렵게 벌어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시죠?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주고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 오지, 상점을 위해서 물건을 사 오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스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식을 위하여 여러분이 오거나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남편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 가족을 위한다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남편이 잘되고 자식이 잘돼야 내가 편안하고 좋으니까 말입니다.

이렇듯 모두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거지, 다른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 해도 자기가 가난하고 밥을 굶고 죽겠을 때, 무슨 일이 있어 죽겠을 때는 그 부모님을 여읜 슬픔으로만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신세까지 첨보해서 애절복통을 하고 울게 되죠. 동시에 울음이 터지는 거죠.

그 뒤에 자기가 돈이라도 벌어서 살 만하고,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부모 마음을 그때서야 조금 짐작하고, '아휴! 우리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내가 그러지를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법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 사는 것이 불법이지 우리의 삶을 떠나고 우리 자신을 떠나서는 불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한 일을 모두 알고 있고 바로 그 일을 하게 했던 그 자체, 자기를 형성시킨 자체에다가 '네가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나를 이끌고 다니고, 네가 형성시켰으니까 사는 것도 네가 알아서 끌고 다녀라.' 하고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놓는 겁니다. 잘못된 게 있어도 '너밖엔 해결 못한다.' 하고 믿고 거기에다가 맡겨 놓고 산다면 바로 나도 발견하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집안도 편안하고 화목해져서 모두가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너그럽고 자비하게 생각을 하면서 일체를 내 탓으로 돌리고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다.'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놓고 간다면, 바로 내 속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자꾸 좇아가게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천백억화신으로 화한다면 여러분은 뒤집어쓰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은 자유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찰나의 생활을 하면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한 철 사는 겁니다! 한 철 꽃이 피었다가 시들어도 그 나무가 죽는 게 아니라 꽃이 시들어서 떨어지는 거죠. 봄이 되면 다시 잎이 나고 꽃이 피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무한정인데도 여러분은 항상 기복으로, 바깥으로 끄달리니까 미치는 수도 있고 머리가 도는 수도 있고, 안에서 파워를 일으켜서 병이 드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깥에서 세균이 들어오거나 또는 유전성으로 인해서, 인연에 따라서, 업보로 인해서,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는 얘기죠. 왜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는가? 자기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지내는데 배고프면 밥 잡숫죠? 과일도 잡숫고 뭐 별의별 거, 고정되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먹죠?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말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좀 나으면 나은 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시면 그게 그냥 고정되게 속에 들어가서 담긴 채 있습니까? 항상 배설이 됩니다. 먹으면 배설되고 먹으면 배설되는데 거기에 뭐가 붙을 게 있어서 죄업이 있겠습니까? 이건 한 찰나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똥 싸는 게 한 찰나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카세트에 노래가 들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노래를 넣으면 앞에 있던 것은 없어지고 또 넣으면 또 앞서 있던 게 없어지고 이러는데 과거의 빚이 어디 있겠느냐, 업보가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모든 업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린 거니까 말입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니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으니 여러분의 생각에 달린 거다 이겁니다. 생각 하나가, 한 생각이라는 것이 전체를 다 집어삼킬 수도 있는가 하면 전체에 말릴 수도 있는 거지요. 생각 하나가 그렇게 귀중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한생각의 도리를 안다면, 체험하고 들이 아니게 나투는 보살행을 하면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천체물리학이라든가 천문학, 또는 현재의 정치학이라든가 지리학이라든가, 이 모두가 다 하나의 복합체로서 구성이 돼서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공식(共食)하고 공존하는 것을, 공체(共體)로서 공용(共用)하고 공심(共心)으로서 공생(共生)으로서 같이 돌아가는 이것을, 바로 여러분이 천차만별의 여러분의 가락에 맞추어서, 용도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포착해서 용도에 따라 마음으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자유인이 돼라고 하는 거지, 항상 남한테 기대고 항상 무엇을 해 달라고 하면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수만 개로 퍼져 있는데, 지장보살이니 무슨 무슨 보살이니, 용왕이니 지신이니 조왕이니, 이름은 많지요. 보살 이름도 많고 부처님 이름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밝으면 그 밝은 연등부처님의 마음과도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하고, 본래 밝은 것이니까 얽매이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우선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일체를 놓아야 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일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것이 화두고, 내가 지금 있으니 바로 주인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으니까 나로부터 알아야 되겠기에, 바깥에서 경계가 들어오는 것도 놓고 안에서 나오는 것도 거기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주인공이 모든 것을 내고 들이는 거니까요.

그러면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제법의 고멍어리가 어디에 있느냐? 내 몸속에 수십억 마리의 고멍어리가 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아상과 아만, 괴로움, 병, 이런 수많은 마음들이 다 나오는 데 그거를 주인공이 다 하는 거니까 다 주인공에 놓으라는 거죠. '주인공이 나를 형성시켰고 나를 이끌어 가고 있고 주인공만이 안되게 할 수도 있고 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믿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그게 놓는 공부요, 그게 바로 집안을 화목하게 만드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니 좌선이요, 나를 발견하게 하니 참선입니다. 바로 생활을 그대로 아주 편안하게 해 나갈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보도 녹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죠.

> "믿고 거기에다가 맡겨놓고 산다면 나도 발견하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집안도 편안해지고 화목해져서 모두가 좋은 겁니다"

먹는 것에 대하여

문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먹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자기 안에서 벌써 압니다. '이것은 나한테 맞는 거야.' 하고 안에서 받아들이는 대로 심부름만 해줍니다. 숟가락 들고 심부름만 해줘요. 만약에 서너 가지를 식탁에 놨다고 하면 자기 입에 맞는 것부터 벌써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입에 맞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 벌써 자기 입맛에 맞는 걸로 다 찾습니다.

자기 현재의식 자체가 찾는 게 아니라 잠재해 있는 속의 생리적인 운영을 할 때 벌써 '내가 이게 모자라니까 이걸 다오.' 하기 때문에, 말없이 달라하기 때문에 주는 거뿐입니다. 이것이 조절입니다. 그래서 알칼리성이 적으면 어떤 때는, 멸치 같은 종류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 게 먹고 싶을 때가 있고, 후루룩 뜨뜻한 국물을 만들어서, 그저 신선하게 해서 마시고 싶은 생각도 나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경 쓰고 모든 것을 적합지 않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속상하고, 속은 안 상한다고 하면서도 어딘가 은근히 그것이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부진하니까 위막이나 장막이나 간막에, 음식을 먹어도 언제나 거기에 찌끄럭지가 항상 누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누적이 되니까 역시 물질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병이 오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군데가 꼭 아프다 그래서 거기서 고장이 난 게 아닙니다. 딴 데서 고장이 나서 거기까지 오는 것이죠.

어떤 때 한 번만 속 끓여 보십시오. 숨이 차고 벌써 눈이 게슴츠레해지고 귀가 멍멍하고 보이는 게 없고, 누가 잘하든 못하든 벌써 보면 신경질이 납니다. 그럴 때는 꼬투리가 없어서 말을 못하게끔 됩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를 때는 자기 몸을 자기가 긁어서 피를 내는 거죠. 그러고 아파서 애를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고 싶은 대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러면서 소화가 되고, 이것도 소화가 되고 저것도 소화가 돼야 좋죠. 그런데 그것이 잔뜩 고여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우리가 먹으면 스스로 소화가 되고, 또 소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거기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먹으면 스스로 그냥 녹아 없어져요. 그런데 그걸 끊어 없애려면 됩니까? 그럼 위를 갖다 끊어버려야죠. 아예 넣지도 말고. 그러니 쌓아놓은 게 없이 먹으면 없어져요. 우리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망상이라고 끊으려고 한다면 그게 끊어집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인간인데 우리더러 어떻게 놓으랍니까? 뭐든지 살아야 하는데…." 이러죠? 그렇지만 살아야 하니까 놔라 이거에요. 그냥 넣으면 녹아서 슬슬슬슬 그냥 내려가니 그냥 놔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밥 먹고, 똥 싸고, 잠 자고,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밥 먹고 체하면 그냥 부대끼고 병이 나고 그러지요. 체하는 데서 큰 병이 생기고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는 지금 살림살이하고 돌아가는데 걸리고 자꾸 그런다면은 그것은 부작용이 일어나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무척 지장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닥치는 대로 집어 먹어라, 모든 거를 닥치는 대로 집어 먹되, 걸리지 않게 집어 먹어라, 체하면 막힌다, 막히면 죽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생활을 하는 데도 내가 한생각과 또는 행과, 내가 음식을 먹는 데도 또 마음을 쓰는 데도 항상 조절의 활용을 제대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나쁜 거는 소탕하게 돼 있습니다. 안에서도 말입니다. 나쁜 건 왜 소탕이 되느냐. 내 안에서 작업을 하면서 원자력에서 모든 나쁜 거는 태워 버리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원자가 태워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썩은 물이나 나쁜 물이나 좋은 물이나,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받아들이면서 글리고 또는 체내에나 세포의 모든 것이 공급이 되게끔 되지만, 만약에 나쁜 물질이 잘못 공급이 되면 사람이 나쁘게 될 땐 그거는 태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한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체험하고 돌아가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수만 개가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불습니까, 거기.

닥치는 대로 먹되 걸리지 않게 집어 먹어라

기쁘든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주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본사 김두식 기자

미국 IT업체 탐방기(下)

철저한 기획으로 승부한다

워너브라더스 애니메이션(Warnerbros. Animation)





미국적인 캐릭터로 애니메이션 제작 정평
아이디어 공유, 자유로운 의견 개진 특징
철저한 심사와 작업 진행이 성공비결
최근 아시아 특히 한국문화에 관심 많아



"미국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활용할 좋은 문화원형 소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호주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야기대회를 개최했지요. 그때 선정된 아이디어가 바로 무차루차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의 소재가 되었고 지금도 무차루차는 전세계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한국은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문화원형도 다양해 이를 활용한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좋은 소재가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4일 허리우드 인근 셔몬옥스(Sherman Oaks) 갤러리아 몰에 위치한 워너브라더스 애니메이션(Wamerbros. Animation)사를 방문했을 때 마케팅 담당 프랭크 케이팅(Frank Keating) 부사장이 들려준 이야기다.

루니툰(looney Tunes) 상표의 캐릭터로 유명한 벅스바니(Bugs Bunny), 트위티(Tweety), 대피덕(Daffy Duck) 등을 개발한 워너브라더스 애니메이션사. 영화 배급회사인 워너브라더스사의 애니메이션 부서가 독립해 만들어진 이 회사는 1960년대 만든 스쿠비두(Scooby-Doo)를 비롯해 슈퍼맨(Super Man), 스태틱 쇼크(Static Shock), 무차루차(Mucha Lucha) 등의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TV 방영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다. 모회사인 워너브라더스사와 함께 AOL 타임워너그룹에 속해 있으며 본사 직원만도 500명이 넘는다. 미국에서는 미국적인 캐릭터로 가장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로도 정평이 나 있다.

워너브라더스 애니메이션사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그동안 개발한 대표적인 캐릭터들과 방패와 알파벳 W, B를 형상화한 워너브라더스사의 마크가 한눈에 들어왔다. 굳이 누가 설명해 주지는 않았지만 이들 캐릭터들은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변해 주는 듯 했다.

마케팅 담당 사원인 니아(Leah) 양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공정대로 부서를 자세하게 소개해 주었다. 기술의 외부유출을 고려해 회사의 핵심 부서를 소개하지 않은 디지털도메인(관련기사 437호 9월 3일자 31면)과는 대조적이었다.

처음으로 방문한 부서는 바로 기획부서. 일반 회사와 같이 칸막이로 일하는 공간을 나누어 놓았지만 칸막이 곳곳에는 캐릭터의 초기 드로잉 작업물과 사원들이 제안한 기획서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이에 대해 니아 양은 "사원들이 직접 잡지나 책, 리서치 자료, 브레인스토밍 등으로 얻은 아이디어들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라며 "일종의 자유 게시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원 스스로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소중히 여기는 회사의 경영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워너브라더스 애니메이션사는 애니메이션 제작 공정 가운데 기획단계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소문나 있다. 실제로 기획부서에서는 1년에 1300~1400개의 프로젝트들이 제안되지만 애니메이션 제작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는 1개 내지 2개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제안되면,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이며 미국의 문화를 포함한 멀티플 스토리를 가졌느냐를 전 부서 임원들이 몇 단계에 걸쳐 엄격하게 심사해 작품을 선정한다고 니아 양은 전했다. 철저한 사전 기획과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이 세대를 가리지 않고 미국인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좋은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비결임을 알 수 있었다.

창작관리부 크리스토퍼 키난(Christopher Keenan) 선임 부사장은 "우리 회사의 장점은 애니메이션의 전체 공정을 잘 알고 각 부서별 업무 조율을 잘 하는 능력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과 독특한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는 것"이라며 회사를 소개한 뒤, "최근에는 외국 문화, 그 가운데서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문화원형 가운데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기획부서에 이어 창작관리부, 2D 제작 부서, 장비를 담당하는 부서, 마케팅 부서를 차례대로 방문했다. 특히 제작부서에서는 아비드 등 대형 장비를 이용해 실제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지 시현해 주었는데 "와 이렇게 만들어 지는구나"하는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화콘텐츠는 한 가지 소재가 여러 분야에 적용된다는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Multi Use)의 특징을 가진다. 워너브라더스 애니메이션사는 원소스멀티유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자신들이 개발한 캐릭터를 활용해 팬시, 문구, 게임, DVD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너브라더스 애니메이션사는 앞으로 그동안 축적해 놓은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 등 인터넷 비즈니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불교 창고 (http://www.edepot.com/buddha.shtml)



미국인 불자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지대방은 어디일까? 바로 불교 창고다. 사이버 법당에 들어가면 나의 기도문을 올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불교토론방에서는 스리랑카 불교도의 명상, 평화, 명상, 공사상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볼 수 있다. 라이브 채팅 코너에서는 언제라도 대화의 장이 열린다.

불교창고의 매거진에서는 다양한 법거량을 선보인다. 불교예술갤러리에는 항마상 · 고행상 등 부처님의 다양한 수행상과 네팔 카투만두 계곡에 있는 탑골사원의 장관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불교소개, 빨리어 불교 경전, 불교관련 유머와 만화, 오디오 도서관, 불교용어 사전 등도 눈길을 끈다.

IT단신

음악산업 갈등해소 토론회 19일 개최

디지털콘텐츠전문가협회(회장 현대원 서강대 교수 http://www.kdcpa.org)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강대학교 이냐시오관에서 '음악산업의 갈등해소와 동반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YBM서울음반 함용일 대표, 벅스뮤직 박성훈 사장,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백강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음악산업 전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KBS 인터넷, 어린이 방송국 운영 예정

KBS인터넷(대표 김성호)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초동 옛 아크리스 백화점 자리에 새로이 조성되는 어린이 종합몰인 '키즈컴플렉스(Kids Complex) KOBO' 내에 어린이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인터넷방송국은 인터넷 방송 장비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실제 방송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 방송단도 구성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시설 설치.
1500여 사찰에 무선 마이크 및 각종 마이크 공급.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중풍(뇌졸증)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 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증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증(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5년 효성카톨릭대학교 약학과 졸업
▶1997년 흥채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새한빛약국(반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오리엔탈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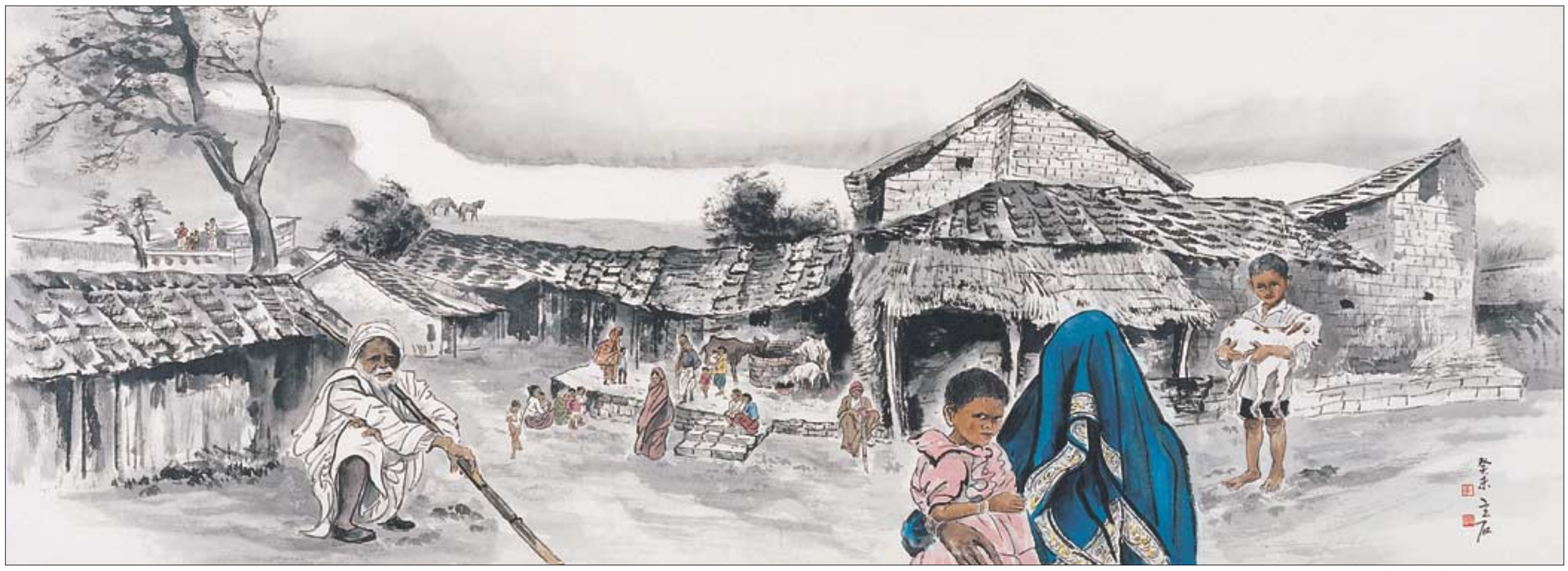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광주일원	주용직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강릉일원	전유진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제천지국	제천 / 단양	청산스님	043)644-4366 / 011-485-4080

인도그림기행

17 그림·글 이호신

염원·상처 함께 간직한 회한의 땅



◇ 야무르강의 그루와 마을 (199×79cm).

강마을과 순교터에서의 단상

(그루와마을과 코샴비 성지)

아난다 비구가 배를 타고 불법 전한 성지
부러진 석주에 지난날 역사의 아픔 남아

"나마스떼, 짜이 이크거프 비지에(안녕하세요, 짜이 한잔 주세요).

자파티 이크 비지에(자파티도 한개 주세요)."

현지 가이드에게 배운 말로 이른 아침 동전(루피)을 내고 사먹는 따끈한 짜이(홍차에 우유를 섞은 차)와 구수한 자파티(밀가루를 빈대떡처럼 만들어 불에 구운 것)는 인도 어디에서도 인기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성자처럼 기른 사내가 웃통을 벗은 채 화덕에서 자파티를 구워 집게로 접시에 담아주니 일행은 열을 지어 그의 검붉은 나신(裸身)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한편 카레에 밥을 비벼 손으로 집어먹는 인도인들의 모습은 이제 익숙하여 그새 모두의 눈길이 자연스럽다.

갑작스레 골목길에서 낙타가 나타나 곱사등이 아주 휘도록 사탕수수 짚더미가 산을 이룬 채 뒤뚱거리며 걸어가니 일행은 셔터를 누르며 환호성이다. 몇 루피를 의식한 탓인지 고삐를 잡은 주인은 몇 번이고 포즈를 취하며 낙타를 좌우로 이끈다.

칸푸르(Kanpur)를 출발 코샴비(Kosambi) 성지로 가는길. 코샴비는 바라나시(Varanasi)로 가는 갠지스강과 야무르강이 합류하는 길목에 자리하는데 현재의 지명은 코샴(Kosam)이다.

예전 야무르강에서 아난다 비구가 배를 타고 건너온 나룻터가 있다는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그루와(Gruhwa)마을로 들어서자 전형적인 인도 농가의 풍광이 펼쳐졌다. 황토벽과 흙으로 구운 벽돌위에 나무껍질과 짚으로 엮은 지붕들이 오종종 드러나고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들을 이중의 눈빛으로 맞이한다.

즉 가족모두 뛰쳐나와 구경하는 이와 숨는이들. 어린양을 품에 안은 아이, 무료하게 장죽을 늘어뜨리고 있는 노인, 고추를 내놓고 우는 아이, 아기를 안고 업은 아낙들의 시선이 나그네 심정에 일렁인다. 그 중 푸른 원색의 사리와 분홍빛 원피스를 입은 모녀의 모습이 눈앞을 마주해 카메라를 들이대자 그만 아낙은 사리를 뒤집어 써 버린다. 내 욕심이 그녀를 언짢게 했으니 이를 어쩌랴. 그 어떤 풍광이나 감흥보다도 지금껏 남아 떠도는 미안함이다. 마을 뒤 언덕엔 낡은 흰두사원과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데, 소녀는 흐르는 강물에 설거지를 하고 한 쌍의 말이 한가로이 물가를 서성이는 이곳이 예전 불법을 전하던 나룻터였단다.

강을 바라보다 말고 순교(殉敎)의 성지(聖地)로 불리우는 코샴비 유적지를 찾아 발길을 돌리자 황량한 들판을 가로지른다. 지평선 들녘에 유일하게 솟아 있는 부러진 석주하나. 역시 아쇼카대왕의 석주로서 깊은 역사와 함께 벽돌로 남은 잔해가 일행을 맞이하고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581년(전법9년) 코샴비를 처음 방문한 붓다는 당시 고시따(Ghosita)장자가 기증한 고시따라마(Ghositarama)절터에 머물렀다. 전법은 고시따장자등의 후원을 얻어 활기를 띠었지만 반대로 불행한 사건을 맞게 된 곳이기도 했다.

즉 사소한 계율 문제로 승단이 분열, 이를 지켜본 붓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구들의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실망한 붓다는 코샴비를 떠났고, 시민들은 비구들에게 공양을 거부하는 사태로 번졌던 회한의 장소이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사 자기 입장이 강해 종교마저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간 사실을 경계해야 하는 일에 대해 불교 초기경전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이 청정하다' 고 고집하면서, 다른 가르침은 청정하지 않다고 말한다. 자기가 따르고 있는 것만을 진리라 하면서, 서로 다른 진리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이 수행자들 사이에 일어나면, 이들 가운데에는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논쟁에 이겨도 잠시 칭찬을 받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이익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대는 '나야말로 승리를 거두리라' 는 생각의 편견을 가지고 사악함을 물리친 사람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지만, 결코 그것으로는 진리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숫타니파타> '파수라'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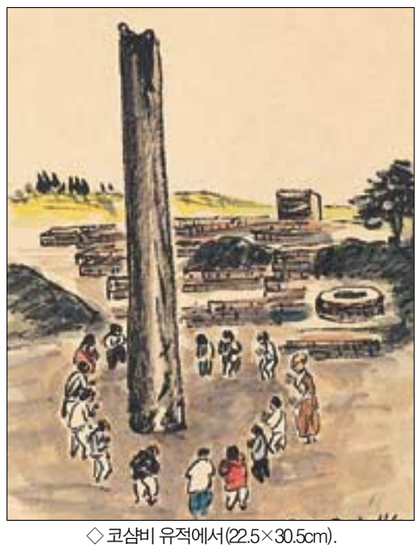
한편 코샴비는 옛날 번창했던 밤싸국의 수도였었는데 당시 고시따라마절에서 일어난 순교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 순교의 주인공인 쿠주따라(Khujjutara) 여인은 코샴비궁 사마와띠 왕비의 하녀였는데, 절에 머물던 붓다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자리에서 견성하였다고 한다.

그 후 그녀는 왕비와 5백궁녀의 법사가 되어 불법을 펴던 중 사악한 외도들이 궁중에 불을 지르자 피하지 않고 결가부좌로 태연부동(泰然不動), 불퇴전(不退轉)의 용맹으로 불법(佛法)의 불사(不死)경지를 실증해 보였다고 한다. 이를 따르는 5백 궁녀 또한 쿠주따라와 함께 순교한 곳이 코샴비성지이다.<법구경>(고려원, 1991) 참조

황량한 절터를 살펴보니 우물터, 승방, 그리고 설법지로 추정되는 규모의 벽돌담 층계 틈새엔 무성한 풀만이 새 생명으로 돋아나 있다.

그 들녘에 꽂히는 햇살아래 나투는 영혼의 숨결들. 부러진 석주는 그날의 염원과 상처를 함께 보여주는 듯하여 산 자들은 목탁소리와 함께 탑돌이를 시작했다.

lhs1957@lycos.co.kr



◇ 코샴비 유적에서(22.5×30.5cm).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의 강력한 氣기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氣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념무아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 하실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 195.000원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연꽃축제기념 행사기간 동안 전화 주시면 3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스님, 불자님께서 영어를 배우고자 해도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등으로 영어를 배우기란 참으로 어렵다. 또한 학원에서는 직접 말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외국인들은 우리 불교문화를 보고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으며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사찰내 스님은 물론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필수어다. 위더스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로봇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을 응용한 말하는 영어로봇의 인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영어는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는 거의 듣기위주 혹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주의 CD, 테이프 등 모든 것을 동원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서 반쪽 공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영어로봇 뉴지니컴의 보급으로 1:1쌍방향 대화 학습이 가능해졌다. 영어 학습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청취력" 훈련이다. 청취력을 위해서 라도 가장 중요한 영어학습 법으로 로봇 뉴지니컴이 영어로 한마디 하면 스님께서 영어로 대답해야 하고 스님께서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

로봇이 사찰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 지니컴

발음이 틀리고 화법이 틀리면 뉴지니컴은 말을 안 하든가 수정해준다. 영어에 기초가 전혀 없어도 뉴지니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침만 바꾸면 누구라도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귀부터 트이지 않고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들어도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영어로 대화하는 로봇 이름이 뉴지니컴으로 뉴지니컴은 스님께서 1:1로 재미있게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미국 친구와 같다. 영어로 말하는 뉴지니컴은 전면에 LCD창을 통해 에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세히 보여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사찰에 하나만 있으면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다.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누구나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것이다.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분할도 할 수 있다.

몸체 전면에 설치된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 / 한글 자막을 자세히 보여주어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LCD형 영어로봇 '지니컴'

학습 문의 전화 (02)3210~3178,9